

碩士學位論文

나를 있게 한 모든 것들

(Sweet America, Steven Kroll .論文翻譯)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英科

金文熙

2008年 8月

나를 있게 한 모든 것들

(Sweet America, Steven Kroll • 論文翻譯)

指導教授 金 載 原

金 文 熙

이 論文을 通譯翻譯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金文熙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종민

委 員 박경란

委 員 김하영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8年 8月

Sweet America

Steven Kroll

Moon He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ae 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e sea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faint watermark in the background.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the Korean characters '제주대' (Jeju University) and an open book below it. The shield is surrounded by a laurel wreath. The outer ring of the seal contains the text 'CHEJU NATIONAL UNIVERSITY' at the top and 'SINCE 1952' at the bottom.

August 20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감사의 글

지난 3년간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앞으로 살아가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일깨워 주셨고, 지금은 멀리 호주에 계신 김원보 교수님, 언어의 놀라움을 깨우쳐 주신 김재원 교수님, 통역 분야에 있어서 항상 프로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박경란 교수님을 비롯하여, 타 과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문번역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셨던 변종민 교수님, 통역 대학원 6기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었던 대학원 생활동안 제 곁에서 많은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친구들 및 선배들, 이제까지 저를 믿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격려를 해 주신 우리 집 식구들에게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Abstract

It's 1889. Tony Petrosino is 14 years old. He comes from a poor village in Italy. He has been in America for two years.

Tony and his family live in a cramped tenement apartment in New York's Little Italy. His papa has seasonal work laying streets. His mamma sews garments and makes artificial flowers at home. Tony, his two brothers, and his sister do what they can to help.

But Tony wants to do better. Struggling with neighborhood gangs, working as a part-time newsboy, he has learned English and graduated from the eighth grade. Now he'd like more education, but his papa, stuck in Old World ways, says no!

Tony must become a full-time newsboy. He must give more to the family. Tony wants to rebel, but he is loyal to his family. His decision will begin the widening of his experience. His story and its conclusion will fascinate lovers of history and fiction alike.

들어가며

“안돼요!”

토니는 아버지에게 소리치고는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을 쾅 하고 닫고 5층 계단을 단숨에 뛰어 내려갔다.

마치 낙하하는 것 같았다. 계단은 폭이 좁고, 칙칙했으며 경사가 가파랐다. 불결한 각 층계참을 지날 때면 역겨운 음식냄새와 화장실 냄새가 났다.

토니는 숨을 들이쉬고 계단 손잡이를 잡았다. 그의 발은 삐걱 거리는 계단들을 훌쩍 뛰어넘어 반쯤 찌부러진 계단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아래층 문을 활짝 열어 재겼으나 멀리가지 못하고 아파트 현관 계단위에 힘겹게 주저앉았다.

멀베리 가(街)는 이미 저녁때가 지났지만 사람들로 붐볐다. 행상인들과 길거리 악사들도 일을 마치고 다 자리를 떠난 뒤였지만 다 큰 사내들이 아직도 길거리를 기웃거리고 있었고 카페나 식당, 술집 들은 손님들로 분주했다. 손님들이 웃고 떠들며 문을 큰 소리가 나도록 열고 닫았다. 몇몇 카페 문은 열려 있었는데 대부분 이탈리아인들로 이루어진 손님들이 테이블을 인도로 들고 나왔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의자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끼리끼리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푹푹 찌는 6월 밤인지라 아파트 안에 갇혀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토니는 사람들이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무례하고 오만하게 말대꾸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거스르지 말았어야 했다. 그건 아들로써 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뛰쳐나올 때 보았던 아버지의 화난 얼굴이 떠올랐다. 거구의 체격을 갖춘 피에트로는 내복을 입은 채 부엌 식탁에 앉아서 번뜩이는 눈으로 아들을 몰아세웠다.

토니는 자신이 가족에게서 소외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남동생과 여동생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들은 그가 의지 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자신이 신문팔이나 하며 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토니는 2년 넘게 미국에 있으면서 학교에도 입학했고 영어도 배웠으며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무역이라든가 전문분야와 관련해 진학을 하고 싶었다. 그는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신문팔이 일을 하기로는 했지만 그는 좀 더 발전하고 싶었고, 성공도 하고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입장은 그 반대였다. 아버지는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젠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야지.”

그래서 그 때 바로 토니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중간정도의 키에 말랐고 따뜻한 눈빛과 날카로운 콧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 페트로시노 였지만 미국인들은 그를 토니라고 불렀다. 여전히 그를 토니오 라고 부르는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그렇게 불렀다.

1887년 봄, 뉴욕에 왔을 때 그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의 남동생인 빈센조와 기세프는 각각 10살, 8살이었다. 막내 여동생인 안젤리나는 6살이었다. 그들은 살레르노 지역에 있는 나폴리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테지아노 출신이었다. 페드로니 (역주 : 이탈리아인 여관 주인)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엄마와 함께 뉴욕으로 온 것이었다.

페드로니 (때에 따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는 미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 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아버지는 2년 전 먼저 뉴욕으로 건너갔고, 그 후 아빠가 좋은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엔 화이트 스타 선박의 증기선 표도 함께 들어있었다.

토니오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엄마, 우리 집 벽에 화이트 스타 포스터가 붙어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스터 속에는 하얀 배가 태양을 향해 증기를 내뿜고 있었다. 토니오는 몇 번이고 그 그림을 보고 또 보았다. 그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그림을 보았다.

테지아노에서의 삶은 고달팠다. 그의 가족은 벽지가 벗겨지고 돌바닥이 깔려있는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았다. 의자 두세 개와 위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작은 휴대용 난로가 있었다. 문을 열어야만 빛이 들어왔고 커다란 석침대가 방의 공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 안젤리나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밧줄로 동여맨 갈대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매달려서 지내기도 했었다.

어머니는 그 포스터 옆에다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 집 옆 마당에는 바깥채가 있었다. 매일 이른 새벽이면 모두가 일어나서 언덕에 살고 있는 부잣집 주인의 밭에서 일을 했다. 토니오는 우유를 짜다. 가끔씩 바람이 매서울 땐 가족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기 위해 우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가뭄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세금도 내지 못했으며, 아무튼 아빠가 떠나고 모든

상황이 더 나빠졌다. 식구들은 아버지를 매우 그리워했고, 그래서 더더욱 일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사실 이런 영세농의 삶이란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는 것이었다.

어쨌든 토니오는 편지를 받자 흥분했지만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다. 테지아노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고 영어도 못했으며 따라서 미국은 매우 크고도 두려운 곳이었다.

식구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여권을 발급 받았다. 아빠가 이미 미국에 있는 터라 여권발급은 쉬운 듯 했다. 그들은 새 옷도 샀다. 토니오는 색깔이 화려한 셔츠를, 엄마는 솜을 샀다. 토니오로서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다. 조르시오 삼촌이 차려주는 정찬을 먹고 나자마자 서둘러 나폴리 행 기차에 올라탔다.

안젤리나의 손을 꼭 쥐고 창 문 밖을 바라보며, 토니오는 과연 이렇게 어두운 땅과 우울한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여정을 마치고 귀향했으나, 그 중 얼마는 돈을 벌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나 토니오는 미국에서 직업만 구할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갈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그의 인생은 다르게 펼쳐질 것이었다.

나폴리에 도착하자, 그들은 항구 근처의 다 쓰러져가는 낡은 호텔에 떼를 지어 들어가 비좁은 객실 안으로 다른 두 가족들과 함께 밀고 들어갔다. 아기 하나가 끈질기게 울어대자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토니오는 이래저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의 머릿속은 흥분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년 후, 그는 오늘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자유로움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테지아노에서는 손바닥 만 한 집 안이 식구들로 북적대거나,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땐 들판에 나가 깊게 숨 한번 들이마시면 그만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훨씬 트인 공간은 없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붐빌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항구는 사람들로 꽉 차서 배 근처로 갈 때 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다. 소매치기들이 그 사이를 돌아다녔지만 토니오가 엄마가 들고 있는 손뜨개 가방을 지켰고 어린 동생들을 멀리 가지 못하게 했다.

페드로니에서 온 아빠의 편지에는 도둑을 조심하라고 쓰여 있었지만, 이민자들이 허술하게 챙긴 옷가지와 종이로 싼 짐들을 단단히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노끈을 파는 남자가 보였다. 그는 성실하게 보였고 노끈 가격도 저렴했다. 엄마는 노끈 한

줄을 사서 짐 가방을 짊 조여 매었다.

잠시 후, 빈센조가 소리쳤다.

“엄마! 엄마 저기 보세요!”

한 할머니가 모자꾸러미를 들고 배에서 내리고 있었다. 빨강, 초록, 황금색 모자들이었다. 엄마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지금은 안 돼, 빈센조. 미국에 가서 사줄게.” 그녀는 빵 살 돈이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밀어제치고 토니오는 기세프와 안젤리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배를 올려다보았다. 포스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 크게 보이지는 않았다. 더 작고 오래 돼 보였다. 더 가까이 가자, 수하물 딱지, 예방접종 확인서, 혹은 터무니없는 이익을 챙겨가며 리라 (역주 : 이탈리아의 화폐단위)를 달리로 환전해주는 남자가 보였다.

엄마는 아이들을 챙겼다. 배 근처로 와서 표를 보여준 다음, 그들은 바로 갑판 밑에 있는 3등선실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닷물 바로 위에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만큼 낮은 곳이었다. 계단을 내려오며 토니오는 꼭 지옥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리도 비좁았고 어두웠으며 때때로 연기가 빠져나갈 창문마저 없었다면 완전히 어두컴컴했을 곳이었다. 케케묵은 악취도 났지만 그래도 몇 주씩 목욕도 하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냄새만큼 고약하지는 않았다. 뻑뻑이 들어선 3층짜리 침대들은 짝을 이루어 나뉘어져 있었다. 매트리스는 밀짚위에 대마 천을 두른 모양에, 그중 곳곳에는 벌레들로 우글거렸다. 사람들은 매우 재빠르게 침대로 달려갔으며 같이 있기 위해 엄마와 토니오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는 없었다.

여정은 2주 하고도 반이 더 걸렸다. 폭풍이 몰아쳤고, 사람들은 배 멀미를 하기도 하고, 불결한 침대칸에 동물 무리처럼 떼지어 있었다. 음식 (소금으로 절인 고기와 감자, 상한 생선)은 너무나 역겨워서 토니오는 거의 먹을 수가 없었다. 갑판 위에 엄마와 다른 가족들을 위한 자리를 발견했을 때, 혹은 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펄럭이게 할 때, 그리고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들을 바라 볼 때만이 그가 그런 음식을 먹고 삼킨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안젤리나는 아파서 며칠 동안을 울어댔고, 기세프는 싸움에 말려들어 코에서 피가 날 정도였지만 토니오는 애써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같이 지냈지만 2주가 지나갈 무렵에는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되었다. 밑에서

나는 악취를 피하려고 낮에는 갑판 위로 슬그머니 올라갔었다.

선원 한 명이 그를 보고 욕지거리를 했다.

“봐, 이탈리아 얼굴이.”

토니오는 앞으로 다시 들게 될 말이긴 했지만, 당시엔 난생 처음 듣는 욕이었다. 그는 바다 위를 쳐다보며 난간을 꼭 붙잡고, 선원이 하는 말을 아랑곳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옆에 있는 다른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너는 어떻게 참고 있니?” 그 애가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미국에서도 이럴까?”

토니오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곧 대화가 오고갔다. 그 애의 이름은 토마소 바타글리아이며 테지아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서 살았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역시 뉴욕에 계시고, 토마소가 외아들이라 어머니와 함께 길을 떠나는 중인데 어머니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토니오와 토마소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성질 지독한 선원들을 골려주기도 했다. 엄마는 토니오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돌아다녀서 약간 조바심이 났으나 여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윽고, 배가 정박하여 육지에 발을 디디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동안 토니오는 토마소를 놓치고 말았다.

배가 뉴욕 항으로 입항하자 갑판 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토니오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아갔다. 그는 배 난간으로 가서 최근에 옮겨진 자유의 여신상을 보았다. 횃불을 들고 있는 팔과 멋들어진 머리 위의 화관은 이제껏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 광경을 가족들에게 말해 주려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맨하탄 부둣가로 가보니 의사가 배 위에서 백신검사 여부를 확인하며, 트라코마 같은 전염성 안질환이 있는지 선객들의 눈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배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그 외엔 모두가 캐슬가든이라는 배터리 공원에 위치한 둥글고 넓은 건물로 안내되었다.

캐슬가든은 1812년 전쟁 당시 요새 지역이었고 그 후에는 콘서트 홀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크기만 크고 빛도 들어오지 않으며 쓰레기 투성인 곳이 되어버렸다. 토니오가 건물 안 위를 올려다보자 천장에서 비스듬히 흘러나오는 몇 줄기 가는 빛이 보였다.

방은 이미 먼저 배에서 내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토니오의 가족들은 그냥 벤치나 난간, 아니면 그냥 바닥 위에 앉았다. 저 쪽 옆에는 기차표를 파는 부스와 음식을 파는 테이블이 있었다. 토니오는 가서 구경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그의 손을 잡고서 그 곳으로 가도록 놔두지 않았다.

저 쪽 너머에는 검시관들이 키가 높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토니오의 가족들은 일렬로 서 있었다. 줄이 앞에서 조금씩 짧아질수록 토니오는 두려운 생각이 증폭되었다. 고향을 등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어찌지. 만약 아버지가 우리를 마중 나오러 저기에 와 계시지 않다면? 미국 땅에 우리들만 홀로 남겨져 버린다면?

시간이 멈춰버린 듯이 서 있는 동안 빈센조는 배가 출출함을 느꼈고 안젤리나는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토니오 가족 차례가 되었다.

검시관은 매우 말랐고 제복을 입고 있었다. 옅은 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의 파란 눈은 테 없는 안경너머로 토니오 가족들을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키가 땅딸막하고 포동포동 살이 찐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통역관이었다.

토니오는 이 검시관처럼 생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검시관은 웃지도 않았다. 그는 여권을 검사하고는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본인 나이가 어떻게 되죠? 자녀들 나이는? 결혼은 했나요? 어디서 거주할 건가요? 지금 가진 돈 액수는? 뉴욕엔 누가 오라고 했나요?

이 마지막 질문에 엄마는 어깨를 펴고 환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제 남편이요.”

검시관은 대충 보고는 말했다. “알겠소. 그만 가보시오.” 그렇게 해서 토니오 가족들은 무사히 뉴욕 시에 있는 배터리 공원으로 갈 수 있었다.

2

그리고 그곳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피에트로!” 엄마는 이렇게 소리치며 달려가 그의 팔에 안겼다.

토니오와 나머지 식구들은 서로 아버지에게 안기겠다고 이리저리 밀치며 주위를 둘러쌌다. 이윽고 아버지는 엄마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 한명 한명에게 포옹하고 키스를 해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여행은 어땠는지를 물었는데, 다만 안젤리나는 번쩍 들어 올리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구, 우리 막내, 아주 예뻐졌구나.”

안젤리나는 기분 좋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기분이 좋아 보인 건 몇 주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토니오에게 물었다. “그 동안 어머니는 잘 보살펴 드렸겠지?”

토니오는 다른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네, 아버지. 물론이고 말고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 미국에서의 새 보금자리, 아버지가 식구들을 위해 구해 놓은 멀베리 가의 새 아파트로. 구겨진 짐 가방을 들고 그는 식구들과 배터리 공원에 있는 배에서 이제 막 내린 사람들과 줌도독들, 싸구려 호텔 방에서 묵어가라고 손짓하는 사람들, 하숙집 주인들, 뜨끈뜨끈한 먹을거리를 팔고 환전도 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났다.

그들은 소란스러운 브로드웨이를 뚫고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엔 많은 사람들, 상점들, 길 중간에 뻗은 기차길을 따라 내달리는 말 마차들, 그리고 자갈밭 위에 쌓인 쓰레기와 거름이 있었다. 토니오는 높게 솟아 있는 고층빌딩을 보고 놀랐다. 그는 꼭대기가 높은 모자와 중산모를 쓰고 있는 남자들과 허리부분을 꼭 조여 맨 긴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을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거의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종일관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아빠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는 가급적 보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 외에, 여관주인에게 편지 심부름을 시킬 돈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 그는 너무나 많은 희망을 안은 채 남겨졌지만 나폴리 항구에서 강탈을 당해 뉴욕에 도착했을 땐 이미 거의 빈털터리 상태였다는 것을 가족들도 알고 있는 터였다.

테지아노 출신이자 사촌인 루이지 마짜페리가 캐슬가든에서 아버지를 맞았다. 그건 그가 한 일 중 제일 잘 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배터리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무방비 상태의 이민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줌도독이나 사기꾼들에게 넘겨졌을 것이었다. 루이지는 곧바로 그를 멀베리(街)에 있는 한 하숙집으로 데려갔는데, 이제껏 그들은 그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 하숙집은 같은

테지아노 출신인 여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 돈 몇 푼에 아버지에게 깨끗한 침대와 괜찮은 식사를 대접했다.

그 다음날, 루이지는 술집 앞에 위치한 사무실 운영자에게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그는 뚱뚱하고 대머리에다가 좀 과하게 으스대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일을 하고 싶으면 내 말만 잘 듣게.”

아버지는 그렇게 했고 그 댓가로 백 명 정도 되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버몬트에 있는 채석장 행 기차에 올랐다. 그 곳에서 그는 매일 우직한 팔 힘을 이용해 돌을 깨부수는 일을 했다. 그는 생각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매 주마다 회사에서 그가 알고 있는 시간보다 적게 일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열 명의 일꾼들과 함께 그는 한 화물칸에서 지냈다. 밤에는 춥고 잠자리에는 이나 바퀴벌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 먹고 남은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걸 발견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로 위에다 놓고 데워 먹었다.

3개월 후 그는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다. 페드코니가 허드슨 강 부둣가에서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또다시 그는 멀베리가(街) 하숙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일은 고되고 힘들었으며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그리워졌다. 그러다 일 년이 지났고 마침내 그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했는데 센트럴 파크 근처에 도로를 놓는 일이었다. 그 일로 하루 일당 1달러 50센트를 받았다. 나머지 가족들도 시간이 날 때 일을 하면 여기서의 생활도 그리저럭 괜찮을 것이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며 엄마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사이 그랜드 가(街)에 도착했다. 아버지의 말에 집중하고 듣고 있던 토니오는 브로드웨이에서 사람들이 입었을 법한 다채로운 린넨 의상과 가구들로 가득 채워진 가게 윈도우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멀베리 가(街)에 도착해서 브룸을 향해 북쪽으로 걸어갔다. 토니오는 앞으로 집이라고 부르게 될 동네의 첫 인상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곳은 그에게 압도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차양이 쳐져 있거나 또는 차양이 없는 가게들을 비롯해 과일, 야채 가게들, 거리에 넘쳐나는 옷과 신발가게들이 있었고, 비상계단을 가로지른 너머엔 빨래가 널려 있었다. 지나가는 말과 마차들, 배달하는 소년, 꽃집 상인들, 원숭이를 데리고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머리 위에 바구니를 이고 가는 여자들과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는 여자들, 카페와 식당도 있었으며, 손수레와 휴대용 테이블, 파는 물고기, 사탕, 셔츠, 바지에 매는 멜빵 등을 파는 행상인들도 있었다. 길을 중간쯤 내려가다 보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지나갔다. 그곳엔 여기저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골목 안에서 구슬치기하는 아이들, 또는 주사위 던지기 놀이, 아니면 구석에 모여 앉아있거나 달리기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불안했고 겁이 났다.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안젤리나의 손을 꼭 잡았다. 토니오는 감정을 되도록 자제하며 빈센조와 기세프가 옆길로 새거나 없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분위기에 모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렇게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살레르노 지방이나 테지아노에서 왔지.” 어머니는 한편으론 부딪치는 걸 피하고 또 한 편으론 발을 밟히는 걸 피하려고 애쓰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토니오는 뜬금없이 맨발에 반바지를 입고 달려오는 아이와 부딪쳤다. 아버지가 재빨리 토니오를 잡으려 했으나 토니오는 다치지 않았고 단순히 몸의 균형만 잃었을 뿐이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옷을 털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네를 반쯤 내려왔을 때 그들은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겨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시간이 몇 시간이나 지난 것 같았다. 큰 바퀴가 달린 두 개의 손수레 사이로 올라가며 아버지는 그들이 살 집으로 앞장섰다. 그가 문을 열어주려고 문 앞으로 갔는데 그보다 먼저 문이 열렸다. 문가에는 토니오와 나이가 비슷하게 생긴 키 큰 소년이 서 있었다.

아빠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이웃들을 보아왔지만 이 아이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파둘라시에서 온 살바토레 아말피라고 해요.” 그 소년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러자 곧 아빠는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파둘라는 테지아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서로 나눌만한 이야깃거리나 서로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다. “부온 조르노(안녕).”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소년도 인사했다. “부온 조르노(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빠는 그 소년에게 어머니와 아이들을 소개했다.

그가 토니오를 소개하자 살바토레는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좀 더 이곳 생활에 적응할 때 다시 올게.”

토니오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굉장히 낯설고 큰 도시에 이제 막 도착하자마자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다. “그라찌에.(고마워)”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을 따라 앞으로 새 보금자리가 될 건물의 어두운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한 층에 네 가구가 살 수 있는 방이 있는 6층 높이의 마치 “아령” 모양의 건물이었다. 그 곳을 실제로 ‘아령 모양의 아파트’ 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좁은 중앙 환기구와 역시 좁고 어두운 계단이 건물의 중간 부분을 끝 부분보다 더 알뜰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토니오가 그 계단을 처음으로 올라가 보았을 때 우울한 어둠속에서 보이는 움푹 들어가 있는 벽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화장실, 소름끼치게 빠걱거리는 나무계단소리를 들으니 꼭 가면 안 되는 곳을 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층층마다 나 있는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는 길은 영원히 끝이 보이지 않을 듯 했다. 그들이 지낼 아파트 문은 활짝 열어 젖혀져 있었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한 달에 10달러지.” 아빠가 말했다.

일자로 나란히 붙어 있는 작은 방이 3개가 있는 아파트 건물에서도 후미진 곳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다. 저쪽 끝 방에는 창문이 두 개 달려 있었는데 빈센조와 기세프가 재빨리 달려가 창문 밖을 보았으나 이웃 해 있는 셋집 벽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나머지 방에는 통풍기 위에 조그만 창문이 있었는데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뒤쪽에 있는 두 개의 방에는 침대가 각각 놓여 있었고 맨 앞에 있는 방에는 (복도 오른편에 위치한) 난로와 싱크대가 있었다!

엄마는 매우 기뻐했고 토니오도 기분이 좋았다. 아주 멋진 곳은 아니었지만 테지아노의 집보다는 괜찮은 곳이었다. 방 한 칸 보다는 많았고 침대도 하나 이상 있었기 때문이다. 집 안에 창문도 달려 있고 물도 쓸 수 있으며 더욱이 화장실도 안에 있었다. 테지아노의 집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없었던 채로 살았었다.

“우리는 끝 방에서 잘 거예요.” 빈센조와 기세프가 소리쳤다.

세 명의 사내애들이 끝 방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을 보았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안젤리나는 중간 방에서 잠을 자고, 난로와 싱크대가 있는 첫 번째 방은 부엌 겸

가족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으로 정했다. 사람들이 앉거나 하는 응접실로 쓰일 것이다.

엄마와 아이들은 짐 가방을 풀었다. 엄마는 침실 벽에 십자가를 걸었고, 모두들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아빠는 밖으로 나가서 저녁거리로 먹을 파스타와 소세지를 사왔다.

조금 있자 살바토레가 토니오를 만나러 집에 들렀다. 그는 오늘이 그들 가족이 미국에서 맞는 첫날밤임을 알고 있었기에 토니오를 밖에서 늦게까지 잡아둘 생각은 없었다.

그는 토니오를 데리고 ‘찰리네 할인가게’에 데려갔다. 그곳은 길 모퉁이에 있는 나폴리라고 하는 사탕가게인데, 이웃 꼬마들이 그 곳에서 자주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카드놀이도 하며 가끔은 공연도 하는 장소였다. 오늘 밤에는 연주하는 꼬마들이 없었다. 살바토레는 토니오에게 음료수 통에 들어있는 탄산음료를 뽑아주고, 계산대 위에 줄지어 있는 유리상자안에서 검드롭 (역주 : 딱딱하고 투명한 젤리 모양의 드롭스)을 사 주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산 지 이제 일 년이 조금 안 됐고, 영어를 배우고 있으며, 시간제로 신문팔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을 파는 일은 꽤 괜찮은 직업이야.”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먼저 영어를 익혀야 해. 그럼 무엇이든 할 수 있지.”

토니오는 길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일이 정말로 괜찮은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를 익혀야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그의 말은 맞는 것 같았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영어를 배울 거라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되도록 빨리 읽고 쓰고 익힐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친구를 사귄 것이 정말 잘 된 일이라고 토니오는 생각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만나자마자 충고를 해주고 싶은 만큼 자신을 신뢰해 주는 친구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그는 배 안에서 만났었던 토마소의 안부가 궁금했다.

토니오와 살바토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험상궂게 생긴 사내아이들이 사탕가게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그들은 테이블 몇 개를 차지해서 의자에 발을 뻗어 앉았다. 그들 중 두 세 명이 살바토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들은 그를 ‘살’ 이라고 불렀고 영어로만 말을 했다. 토니오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자신을 가리키며 “저 애는 누구냐?” 라고 묻자,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명확해졌다.

살은 토니오에 대해 설명했다.

“재가 우리 조직에 들어온데?”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는데 인상이 험악한 걸로 봐서 우두머리가 분명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살이 대답했다.

“재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폴.”

폴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콧수염이 나고 야구 모자를 쓴 한 사내아이가 말했다. “이봐, 우린 넌지오네 가게나 가자고. 목도 축일 겐 말이야.”

그 사내 무리들이 다 가고 없자, 살바토레는 토니오에게 뉴욕의 갱패 조직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는 이탈리아 갱패들이 어떻게 이탈리아인들(대부분 아일랜드 출신인)을 지켜 주었는지 얘기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직에 토니오가 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갱패 조직은 ‘웨이페어러(도시의 방랑자)’ 라고 불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역을 지키려고 했고 그들의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꾸었다. 토니오는 곧 머지않아 미국에서 토니라고 불리게 되겠지만, 만약 그가 조직에 가입한다면 당장에 토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조직들은 행실 또한 나빴다. 그들은 이웃을 협박하고 어쩔 때는 사람들 지갑을 털거나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웨이페어러’ 조직은 그렇게 나쁜진 않았다. 그들 조직은 일종의 사고모임과 더 비슷했다. 그러나 그들은 질이 좋지 않고 그들 중 몇은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며 평범한 일자리에 오래 있지도 못했다. 그들은 아마 토니오를 가입도 시키기 전에 과일 수레에서 과일을 훔쳐오라고 시킬지도 모른다.

살바토레가 조직원이었던가?

“그럴 리가 있니. 난 갱패조직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항상 상냥하게 굴지. 그 애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말이야. 그게 그 애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그날 밤, 두 동생들 옆에 누워서 토니오는 오늘의 이 믿기 힘든 하루 일과에 대해 곰곰이 곱씹어 보았다. 오랜 여정 끝에 아빠를 만나러 캐슬가든에 도착한 때부터 브로드웨이와 멀베리 가(街)를 지나온 길, 그리고 아파트로 와서 살바토레를

만나게 되고 ‘웨이페어러’라는 깡패 조직을 마주친 일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고 낯설었으며, 불확실하고 새로운 것 투성 이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하지? 어떤 일이 생길까?

그가 확실히 느낀 건 단 하나, 바로 토니가 되기엔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었다.

3

다음 날이 되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시작되었다. 아빠는 새벽 5시 30분이 되면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 했다. 말 마차를 타려면 5센트를 내야 했는데 그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언덕을 몇 블록이나 걸어서 올라가야 했고, 일터에선 삼으로 퍼내고 고르는 일을 하루 종일 하다가 집으로 다시 걸어서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가능하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빠는 이 직업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래서 이 일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거의 날이 저물어야 집에 도착했다. 몹시 피곤해 했으며 종종 화도 내곤 했지만 한 번도 일을 그만 두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벌써 미국에서의 첫날 오전이 지나자 조그마한 아파트는 금새 어두워졌고 답답해 보였다. 어린 형제들을 위한 공간도, 엄마와 아빠 또는 토니오가 있을만한 공간도 없었다. 테지아노에서는 물론 여기보다 더 좋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냥 밖으로 나가서 산책 할 곳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이 곳, 멀베리 가(街)에서는 이미 땅에서 5층이나 위로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나 한단 말인가.

몇 주가 지나자, 엄마는 이런 불편들을 극복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생활을 꾸려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로선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이탈리아에선 한 번도 동네 밖으로 외출한 적이 없었고 거의 매일 보는 건 식구들 얼굴 뿐, 어느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녀는 먼저 이웃들을 만나러 다녀야 했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전부가

테지아노 근처 마을 출신이고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지라 그 일이 그렇게 겁이 나는 일은 아니었다. 엄마는 결국 이웃사람들을 전부 만나봐야 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복도가 워낙 어둡고 계단은 비좁은 통에 그들을 다 알기까진 아마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마른 체형의 그녀가 밝게 웃으며 제일 처음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문 위에는 비온도 라고 적혀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시그노어 테레사 페트로시노는 시그노어 기세피나 비온도에게 자신의 소개를 했고, 그 다음 아이들을 소개시켰다. 토니오는 수줍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모두들 안으로 안내받아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며 옛 고향과 이웃 사람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기세피나는 남편이 이발사고 슬하에 자녀가 다섯이 있다고 했다. 테레사가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찾을 때마다 기세피나 집 창문을 통해 보면 되었다.

엄마는 똑같은 인사를 여러 번 했다. 4층에서 그녀는 미라벨리 부인을 만났는데, 그녀의 남편은 구두닦이였다. 3층에 사는 파찌 부인의 남편은 과일 행상 일을 하고, 2층에 사는 아멜피 부인은 살바토레의 엄마인데 남편은 노동자였다.

살바토레가 두 여동생들과 집에 도착하자 페트로시노 가족들이 왔는데 그도 토니오와 마찬가지로 별로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들은 엄마가 소개 하자 당황해서 벽만 쳐다보았다. 다른 이웃들이 그러했듯이, 아말피 부인도 페트로시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이렇게 해서, 엄마는 새 친구만 사귄 게 아니라 식구들이 먹을 만한 이것저것(생선과 소시지를 비롯해서 파스타, 과일, 야채 등)을 살 수 있는 곳도 알아냈다. 그런 다음 그 상점으로 가서 주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자, 자신과 아이들이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곳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8월이었는데도 옷 수선 일은 비수기를 맞았다.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부 휴스턴 거리에 있는 알파 플라워 회사를 찾아갔다. 그곳의 매니저는 이탈리아어를 구사했다. 엄마가 자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고 설득시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매니저는 조화 재료가 들어있는 박스 더미를 올려놓았다. 각자 상자 세 개씩 들었다. 두 팔 안에 박스를 쌓아 올린 채로 멀베리 가(街)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가까스로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계단을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안젤리나가 우거지상을 하며 말했다. “난 더 못 들겠어.”

“걱정 마, 안젤리나.” 토니오가 속삭였다. “내 짐을 옮겨놓고 나서 네 상자를 다시 가지러 내려 올 테니까.”

작은 중고소파 하나와 테이블, 의자들은 이제 앞방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전부 외상으로 달아놓은 것들이었다. 엄마는 달력과 천사가 그려진 그림을 소파 위에다 핀으로 고정시키고 진열장 선반에는 레이스 장식이 달린 깔개를 놓았다. 빨래비누와 본 아미 상표의 세제는 싱크대 끝 쪽에 놓여졌다. 엄마는 전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잘 씻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파트 내부는 갑갑하기 그지없었지만 가구들은 있어야 할 곳에 군더더기 없이 배치되어 있었고 욕실에 욕조가 없어도 식구들 전부 일주일에 두 번은 스폰지로 목욕을 했다.

조화 꽃들이 들어있는 상자들이 테이블 위 표면에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일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줄기에 장미꽃을 끼워 맞추고, 꽃잎을 붙이고, 데이지 꽃에는 핵 부분을 맞추어 놓았다. 꽃 열 두 송이로 이루어진 한 다발을 만들면 8센트를 받을 수 있었다. 꽃잎이 몇 개 추가된 경우에는 조금 더 받기도 했다. 열심히만 일하면 일주일에 6,7달러는 거뜰히 벌 수 있었다.

테이블에 식구들이 다 둘러앉을 만한 공간은 없었으므로, 토니오와 빈센조는 바닥에 앉아 작업했다. 한 시간이 지나자 빈센조가 신음소리를 냈다.

“엄마!” 그의 손가락은 온통 풀 범벅이었다.

“너무 지겨워요.”

“그래 나도 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는 없잖니.”

엄마는 그런 순간에도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 안젤리나는 막내라서 옆에 앉혀놓고, 사내애들은 모두 오후 내내 놀도록 밖으로 내보냈다. 아이들은 함성을 내지르며 계단 위를 날듯이 뛰어 내려갔고 동네 밖, 안 가본 곳들을 가보려고 앞 다투어 뛰어갔다. 토니오는 동생들과 항상 같이 놀아야 했기 때문에 동생들을 쫓아갔다. 그들은 구슬과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배웠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개구리 뛰기와 한 블록 너머에 있는 모트 가(街)에서는 맨홀 뚜껑과 쓰레기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조니 라는 할아버지가 있는 자리를 베이스로 하기로 해서 야구경기를 했다. 그들은 카를로스 와 스테파노, 페더리코를

알게 되었는데 각각 칼, 스티브, 프레디라고 불렀다. 한번은 칼이 기세프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놀이에 낄 수 없을 거라고 말하자 토니오가 말했다. “기세프가 제외된다면 나도 안 하겠어.” 토니오는 뭐든 잘 했기 때문에 결국 기세프도 놀이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

엄마가 돈을 주면 그들은 길모퉁이에 있는 나폴리 사탕가게에 들렀다. 토니오는 주시푸르트 (역주 :알사탕의 일종, 옛날식 사탕)에 새로이 맛을 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세 명은 다른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경찰 아저씨들을 따라서 길을 내려갔다. 그들은 가게 안팎을 왔다 갔다 하다가 행상인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에 찍힌 물건들을 구경했다. 이따금씩 토니오가 구석진 곳에서 지난번의 강패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자기를 분명 보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어찌다가는 살바토레가 토니오 형제들과 함께 놀기도 했는데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다.

저녁을 먹은 후, 가족들은 다시 작업에 들어갔는데 가스등을 켜고, 조화를 만드는 작업이 9~10시까지 계속 되었다.

가끔은 아빠가 도와주려고도 했지만 그는 손가락이 두껍고 뭉툭해서 꽃잎을 쥐는 것도 힘이 들었다. 평소에는 너무 피곤한지 소파위에서 잠이 들기도 했지만 아빠가 땅을 파고 자갈을 삽으로 퍼내며 길을 포장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얘기해 줄 때, 토니오는 제일 기분이 좋았다.

루이지 마짜페리는 빈번하게 집에 들렀는데 그는 아빠가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캐슬가든에서 만난 사촌이었다. 토니오는 루이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루이지가 주목을 받기위해 너무 애를 쓰며 말과 행동을 아무렇게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루이지는 그들 가족의 친척이자 아빠의 친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식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가끔 루이지는 퍼포먼스를 해보이겠다고 하고선 작은 앞방 가운데 서서 유명한 시를 낭송하거나, 또는 1861년 이탈리아를 통일시켰던 위대한 가리발디 장군을 흉내 내기도 했다. 몸짓과 소리를 내지르며 춤을 추기도 했다. 아빠는 언제나 웃으셨고 엄마는 머리를 내저었다. 그 순간, 토니오는 루이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었다.

토니오는 학교 가는 첫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엄마가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워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힌 후에 아침을 먹였다. 그러나 학교까지 데려다 주려고는 하지 않았고, 대신에 문 밖에서 아이들을 배웅했다.

“내가 동생들을 챙기거라, 토니오. 내가 가장 형이잖니.”

엄마는 끊어지는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그렇지만 엄마...”

“어서 가거라. 학기 첫날 지각하고 싶지 않으면.”

토니오는 엄마가 학교 가는 걸 어색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엄마가 무척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엄마가 학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런 엄마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알았어요, 엄마.”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동생들 앞장을 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이른 시간임에도 멀베리 가(街)는 벌써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 어떤 사람은 수레에서 사과를 팔고 있었고, 꽃장수는 꽃을 진열하고 있었다. 길 모퉁이에 자리잡은 구두담이 아저씨의 손놀림이 바빴다. 손수레를 이끄는 행상인들은 커브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미라벨리 아줌마는 벌써 자신의 집 바로 앞에서 감자를 팔고 있었다. “부은 조르노, 밤비니 (애들아, 안녕).” 그녀는 토니오와 빈센조, 기세프. 그리고 안젤리나가 그 옆을 지나가자 인사를 건넸다.

“부은 조르노, 미라벨리 아줌마.”

토니오는 안젤리나의 손을 꼭 잡고 멀베리 가(街)를 따라 내려가며 헤스터와 카넬 길을 지나 바야드 가(街)와 공립학교 23번 가(街) 사이의 모퉁이로 들어섰다. 날씨는 흐릿했고 눈이 가는 상점들도 없었다. 토니오는 장사꾼들과 보행자들을 피해 이 길을 걸어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으나, 이제까지는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었다. 그는 미리 한번 찾아가 보지도 못했던 학교를 가는 것이 두려웠다.

계다가 P.S. 23번 가(街)는 뉴욕시에서 가장 최악의 빈민촌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멀베리 밴드 가(街)의 막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다 쓰러져 가는 건물들, 지하 술집들, 더러운 길거리에서 보여 지는 추악한 모습들, 마음씨가 고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뒤엎혀 지나가고 있었다. 그 구역은 바야드 가(街)의 남쪽과

멀베리 가(街)의 옆쪽으로 구부진 길까지 뻗어 있었는데 멀베리 밴드라는 이름은 그래서 붙여진 것이었다.

토니오가 집에서 해봐야 한 두 블록정도 떨어진 곳을 둘러보려 했을 때도, 멀베리 밴드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는 주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길 막다른 곳에 동생들 앞에 그가 있었다!

마침내,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은 크고 인상적이었으며 회색 돌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최대한 길 건너편에 사는 빈민가 주민들을 보려하지 않고 서둘러서 계단을 올라갔다.

“준비됐지?” 토니오는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동생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때의 동생들의 찡찡한 표정은 미국으로 오는 배 안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었다. 학교 입구와 복도에는 부모님과 선생님들로 북적였고 겨우 숨만 쉴 수 있을 정도였다. 어쨌든 이런 인파 속에서도 토니오는 이탈리아어를 하는 애를 찾을 수 있었고 지금 자신과 동생들이 찾아가야 할 교실을 물을 수 있었다. 그는 다시금 대서양을 건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빈센조와 기세프에게 교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복도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안젤리나를 1학년 교실에 데리고 가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교실로 갔다.

3학년 교실이었다.

안젤리나는 6살이었고 토니오는 12살이었다. 그녀는 1학년에, 그는 3학년에 들어갔다. 물론 토니오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할 노릇이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디서부터든지 시작은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1학년에는 왜 들어갈 수 없었을까?

그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어둡고 동굴 속 같은 분위기에 닫이지 않은 창문들, 지저분한 녹색 벽, 그리고 칙칙한 마룻바닥이 있었다. 책상과 의자다리는 차디찬 철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두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토니오는 그 중 한 의자에 앉아 보았다. 그의 무릎이 조그만 책상위로 툭 튀어 올라왔다. 잠시 후, 다른 소년이 교실 안으로 들어와 책상에 억지로 끼워 맞춰 앉아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윽고, 모든 학생들이 각각 책상과 의자를 하나씩

차지해 앉았다. 토니오는 9살은 훨씬 더 되 보이는 아이들 사이에 끼여 앉아 있게 되자 그의 나이 또래가 꽤 많다는 걸 알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청소 안한 화장실 냄새, 오래된 건물이 부식하면서 나는 냄새가 어우러져 고약한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의 이름은 맥 고웬이었고 첫째 날이라서 그런지 반나절 수업만 하고 마쳤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어디에서 왔는지도 헛갈렸기 때문에 출석을 부르는 데에만 반나절이 걸렸다. 한편, 복도에는 화가 잔뜩 난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데도 학교 측에서 정원이 초과되어 더 이상 입학할 허가해주지 않자,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들의 불멘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밝은 빨강 머리에 매우 어려보이는 맥 고웬 선생님이 'P' 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토니오를 부를 차례가 되었다. 그는 곧 불릴 자신의 이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토니 페트로시노” 고웬 선생님이 말했다.

토니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이제 토니였다. 조직 폭력단과는 무관하게 벌써 토니가 되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는 이곳 학교에서 당당히 토니가 되었고, 앞으로 어딜 가든 토니였다.

“토니 페트로시노” 고웬 선생님이 재차 출석을 불렀다.

“Si(네)!” 토니는 이렇게 외친 다음, 좀 더 부드럽게 다시 대답했다.

“네!”

이제 그는 토니였다. 영어를 배우는, 미국 사람인 토니가 되었다.

4

토니오(지금은 ‘토니’지만)는 수업이 끝나자 바야드 가(街) 모퉁이에서 남동생들과 여동생을 기다렸다. 그는 어쩌면 이런 위험한 멀베리 밴드 가(街) 골목에 서 있기로 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P.S. 23번지 현 관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떼거지로 나오는 바람에 그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빈센조, 기세프, 안젤리나가 나오려면 오래 걸리는 듯 했다. 토니는 밴드 가(街) 골목 길 안 밖을 배회하는, 정신없게 생긴 남녀들을 구경하면서 이쪽 발에서 저 쪽 발로 바뀌가며 폴짝거리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 나이 많은 사내아이들이 빙 둘러 있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갑자기 그들이 토니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그냥 무리가 아니라 깡패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거들먹거리는 태도와 악명 높은 검은색 옷을 보아서는 그냥 여느 깡패와도 틀려보였다. 그들은 백스터 가(街)의 래그피커스 갱단이었다.

그들은 아일랜드 출신이었고 우두머리는 감옥에도 갔다 온 해리 히키라는 거친 사내였다.

토니는 가슴이 떡 벌어진 그의 얼굴에 차가운 파란 눈과 사자코, 사각 턱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검정색 중산모를 쓰고 검은색 멜빵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가 히키임에 틀림없었다.

그가 말했다. “더러운 이탈리아 놈이구만.” 그리고 토니를 세계 밀쳤다.

토니의 입이 짝 벌어졌다. 너무나 놀라서 영어로 말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랐다.

“우리 구역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또 토니를 밀치며 계속 얘기했다.

이번엔 토니가 넘어졌다. 그가 이런 부당한 경우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여주려고 맞붙어 싸우고 싶었으나 그에겐 힘이 없었다. 거대하고 힘센 그가 토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말 잘 들어, 열간아! 난 히키야. 우리 조직의 대장이라고. 앞으로 우리 구역에서 얼쩡거리지 마, 알았어? 내말 안 들으면 래그피커스 조직이 널 가만 두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토니는 스스로 일어났다. 그들이 왜 자신에게 습격을 가했는지, 자신이 이탈리아인 이라는 것과 단지 다른 동네 모퉁이에 서 있었다는 사실 외에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것인지 궁금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는지 몰라도 그 일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웨이페어러 조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조직은 그에게 맞는 곳이 아니었다. 그는 폭력 또는 그런 삶을 혐오했다.

그는 옷을 털어냈다. 동생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얘기해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많은 사람들 사이사이를 통과하며 멀베리 가(街)로 돌아가면서, 빈센조와 기세프는 서로 나이가 다른데도 같은 반에 배정받은 것에 대해 재잘거리며 또 어떻게 반 학생들이 모두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린건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토니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기 때문에 동생들의 말에 별 안타까움을 못 느꼈다.

“배워야 돼.” 그가 마침내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니까.”

집으로 들어가다가 살바토레를 만났다.

“너 어디 있었니?” 토니가 물었다. “학교에서 널 찾았는데.”

살바토레는 오늘 아침 일찍 학교에 갔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7학년이었기 때문에 입학이 거절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다음번엔 볼 수 있을까?” 토니가 말했다.

“당연하지, 나중에 보자.” 살바토레가 대답했다.

비좁은 계단 꼭대기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식들이 하나씩 얼굴을 보이자 꼭 껴안고 키스했다.

“이제 학생이 됐네.”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얘기했다.

“모두들 학생이 되었어.”

그리고 그녀는 점심으로 달걀과 감자를 내놓았다. 아이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토니는 이제 더 이상 토니오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는 선생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토니라고 했다.

“전체 학생들 앞에서 절보고 토니라고 했다고요!” 그는 소리쳤다.

빈센조와 기세프는 놀랐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마 금방 잊어버리고 토니오라고 부를 테지만, 그가 이탈리아인이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미국인이 되고 싶은 것도 괜찮다고 했다.

래그피커스 조직을 생각하며 토니는 대답했다.

“그래요. 엄마.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특별한 날을 축하해주려고 엄마는 낮 시간을 밖에서 놀도록 배려했다. 오늘은 조화 작업이 없었다. 손가락에 풀이 붙거나 못에 찔리지 않아도 된다. 그가 이제 손에 쥐고 놓지 말아야 할 건 안젤리나 뿐이었다.

엄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아이들은 계단이 부서질 듯한 기세로 밖으로 뛰어났다. 토니는 안젤리나를 목마 태우느라 빨리 뛰어가지도 못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살바토레 집에 들러 그를 데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모트 거리 저 쪽 편에 칼과 스티브(토니는 이제 그렇게 불렀다)가 야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토니는 안젤리나를 잘 보이는 곳에 내려놓고는 최소 3루로 갈 뻔 했던 공을 낚아챘다.

잠시 후, 야구방망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며 토니는 살바토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가 토니오에서 토니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하자 친구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토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제 나보고 살이라고 불러도 좋아.”

이번엔 래그피커스 조직원들에 대해 언급하자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살이 말했다. “넌 해리 히키와 어울리고 싶지 않잖아.”

“절대로.” 토니가 말했다. “그가 나와 상대하고 싶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웨이페어러 조직은?” 살이 물었다.

“너처럼 행동하겠어. 항상 친절하게.”

살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토니는 일어나서 2루가 될 맨홀 뚜껑 위를 발로 쿵하고 두 번 굴렀다.

학교생활이 계속되면서 관심은 학교 시설물로 옮겨졌다. 거의 8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과 빼곡히 앉아서 어두운 조명과 열악한 통풍 시설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토니는 성장했다. 맥 고웬 선생님이 관습적이고 틀에 박힌 수업방식을 따른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녀가 가르치는 것은 모두 외웠다. 토니는 배우고 싶었고, 또 그렇게 했다.

매일 아침은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되었다. 소년소녀들은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 앞에서 애국시 낭송을 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던 토니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랑스럽게 일어나서 부푼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는 그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가 배우는 게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의 주변을 휩싸고 있는 여러 과목들과 쉬는 시간에 놀만한 곳이라곤 어두컴컴한 지하실 밖에 없는 상황에서 토니는 오직 영어를 배우는 데에 집중했다. 도대체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야 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 건지,

대화는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를 배워야 했다.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는 읽고 쓰기도 따라왔다.

토니가 영어단어와 문장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동시에 그것을 읽고 쓸 줄도 알아야 했다.

매일매일 토니는 자신의 어휘 책에서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외웠지만 맥 고웬 선생님은 그 단어를 이용해서 예문을 드는 걸 좋아하셨다. 그녀는 영어를 가르치다가 교실 뒤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학생들이 반으로 나뉘어 앉아 있어서 가운데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녀가 지나다닐 수 있었다.

“나는 책을 편다.” 그녀가 책을 펴면서 말했다. “토니 페트로시노,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미 그녀는 토니를 우수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맞았어.”

맥 고웬 선생님은 문을 닫았다. “나는 문을 닫는다.” 그녀가 말했다. “토니, 내가 방금 무엇을 했지?”

토니가 다시 정확한 답을 말했다. 그는 뿌듯했고 특별 관심을 받는 것 같아 약간은 당황했다.

“이제 앞으로 나와서 네가 한번 해보렴. 친구들에게 보여줘야지.”

이건 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토니는 자신보다 어린 급우들의 얼굴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들은 대로 행동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기를 바랐다.

토니의 영어수업은 방과 후에도 계속될 때가 있었으며 그와 살은 집 계단 앞에서 만나곤 했다. 살은 영어실력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었다. 그가 토니에게 단어를 들려주면, 토니는 단어를 발음해 보았다.

바나나가 이웃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었다.

“바-나-나” 살이 소리 내어 말하면,

“바나나” 토니가 이렇게 따라했다.

그날 토니가 엄마를 위해 장보기 시작하면서 손에 잡히는 다른 과일과 야채를 가지고도 연습을 계속했다. 엄마는 매일 장을 봤는데 그 이유는 고기나 과일, 야채를 봐 들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살 지는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엄마는 장 보는 것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가 신경이 쓰이는 건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좁고 높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다.

계단은 너무나 많았고 그녀를 질리게 만들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조화를 만들 시간을 뺏겨버리기 일쑤였고 돈은 벌어야 했기에 그녀는 토니가 장을 보러 가겠다고 하자 마음이 놓였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일을 도왔다. 매일 조심스럽게 조립된 조화 더미가 쌓이고 쌓였다. 그러나 이제 토니는 일을 덜 하게 되었다. 대신에 엄마를 위해 장을 봐 왔다.

매일 오후, 그가 완성된 조화를 알파 플라워에 가져다 준 후엔 마리오네 가게로 가서 간이나 양고기 다릿살, 또는 순대를 샀고, 그 다음엔 안젤로네 야채가게에서 버섯, 브로콜리, 토마토, 콩을 샀다. 비네토의 가게에서는 빵을, 쿠치나 이탈리아노에선 파스타를 샀다.

파스타 이름 중에는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링귀니’와 ‘토텔리니’는 고집스럽게 그 이름을 유지했고, ‘누들 모듬’은 올바른 이탈리아어 같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이름이 알맞게 번역되어 있었고 비록 그가 배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토니의 어휘량은 그들이 채워주고 있었다.

멀베리 가(街) 사람들이 하나 둘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반갑게 인사하거나 ‘헬로우’ 라며 미소 지어 보였다. 토니가 가게 문턱을 들어설 때마다 얼룩덜룩해진 흰 앞치마를 두른 식육점 주인 마리오씨가 손을 닦고 안경을 벗으며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여, 토니. 빌어먹을 오늘 기분은 어떠냐?” 그것이 그들이 나누는 둘만의 장난이었다. 그리곤 둘 다 웃었다.

이런저런 말들과 대화 속에서 토니의 영어실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의 읽기, 쓰기 실력 또한 늘어가고 있었다.

맥 고웬 선생님은 각각의 단어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외우게 하는 방식으로 읽기 지도를 했다. 그녀가 ‘보트’ 라고 말하면서 장난감 배를 집어 드는 것이다. 그럼 ‘보트’ 라는 단어를 모든 학생들이 따라서 말한 다음 책 속의 한 구절에서 그 단어를 찾아냈다.

토니는 이렇게 배우는 것이 지루하다고 느꼈으나 잘 따라갔다. 그는 문장을 쓰거나 단락별, 쪽수별로 읽는 것을 빠르게 배워갔다. 그러나 다른 과목들이 많은 학교

생활은 완전 고역이 따로 없었다. 산수시간에 맥 고웬 선생님은 학생 한명씩 일어나게 해서 공식을 암기시켰다. “1 곱하기 2는 2, 2곱하기 2는 4, 3곱하기 2는 6.”

어쨌든 토니는 잘 따라했다. 그는 배우고 있었고 스스로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가 계속 수업을 받는 중에도 머릿속에서 래그피커스 조직원들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빈센조, 기세프, 안젤리나를 학교까지 데리고 다녔으나 그 조직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진 못했다. 그의 동생들은 토니보다 학교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토니는 그들이 갑갑한 교실이나 지루한 선생님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빠짐없이 들으며 혹시 학교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절대 다시는 바야드 가(街) 골목에서 동생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에 학교 안에서 돌아다니며 있거나 계단에서 기다렸다. 그렇지만 래그피커스가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에도 멀리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걸 보았었기 때문이다. 그는 해리 히키에게 흠씬 두드려 맞을 것이고 그들이 쉽게 놓아주지도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웨이페어러 조직원들도 있었다. 그는 과연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학기가 시작된 지 수주일이나 지나자 엄마는 집에서 의복수선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미라벨리 아줌마와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미라벨리 아줌마가 엄마의 두 팔을 잡고 말했다.

“이제 일이 많을 거니까 전보다 나아지겠지. 수입이 좀 될 거야.”

미라벨리 아줌마는 엄마를 그녀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쌓여있는 코트와 남성용 바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야.” 그녀가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코트는 한 벌에 15센트, 바지는 10센트지.”

“하겠어요.” 엄마가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법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이탈리아에 있을 땐 제가 우리 집 식구들 옷을 전부 만들어 입혔답니다.”

엄마는 집에 와서 저녁때쯤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면 조화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아빠는 그의 넓은 가슴 위에 양손을 깎지 낀 채로 소파에서 반쯤 잠이 들어있는 상태로 말했다.

“ 좋아, 잘됐어.”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미라벨리 아줌마네 의상들은 헤스터 가(街)의 시도스키네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나갈 준비를 했으나 토니가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엄마를 설득했다. 그는 장을 보고 조화 만들기와 학교 숙제를 해야 했지만 엄마 혼자 가게하고 싶지 않았다.

동생들이 테이블 앞에 앉아 오후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토니는 어두운 계단 밑에서 엄마를 도왔다. 밖에서는 오르간 연주가가 자신이 만든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빨간 옷을 입고 노끈을 맨 그의 원숭이가 모자를 보이며 지나가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평소와 다른없는 장사꾼들과 행인들, 아이스크림 노점상인, 사탕팔이 등이 있었다.

“ 체리가 덮인 초콜레이요! 체리가 들어있는 초콜렛 한번 먹어보세요! 5센트에 2개 줍니다! 5센트밖에 안합니다! ”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끔씩 테지아노의 농장이 생각나곤 한단다, 토니오. ”

토니는 엄마의 허리를 잡고 말했다.

“여기가 더 좋지요, 엄마. 엄마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밭에서 일하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밭도 아니었지만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안다. 그냥 의욕이 떨어졌을 뿐이야. 곧 괜찮아지겠지.”

토니는 엄마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렸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헤스터 가(街)와 크리스티 거리의 골목 안으로 걸어갔다. 드디어 근처에 도착해, 그들은 2층에 있는 시도스키네 공장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가스램프로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우중충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 공기가 먼지로 탁해서 숨쉬기가 불편했다. 테이블로 길게 줄지어 있는 방 한 가운데에 여자들이 재봉틀 앞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수십여 벌의 치마, 원피스, 남자 조끼, 코트, 바지까지 그들 옆 바닥에 쌓여 있었다. 한 쪽 끝에 위치한 지저분한

창문가 벽을 따라 여자들이 앉아 있었고 턱수염이 있는 남자들은 수작업으로 수선 일을 하고 있었다.

토니는 이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탈리아인들이 동쪽 끝에서만 모여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쪽 아랫동네에서만 살았다. 토니가 아는 유대인이라고는 한명도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본 유일한 유대인은 행상인들 뿐이었다. 그들은 토니에게 관심을 갖고 궁금해 했지만 그는 항상 거리를 두었다.

시도스키씨는 몸집이 크고 턱수염이 나 있었다. 그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토니의 영어실력은 통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많이 늘어 있었다. 엄마는 시작삼아 코트 열 벌로 출발했다. 그녀는 코트 안감을 꿰매고 단추 구멍을 마무리손질 할 것이다. 토니는 열 가구의 주문량을 맡았기 때문에 의복더미에 가려져 얼굴이 보일락 말락 했다.

이제 엄마가 모두에게 바느질법을 가르쳐야 했다. 안젤리나와 기세프는 타고 낚는지 순식간에 배웠지만 나머지는 시작부터 가망이 없어 보였다.

“으으으!” 빈센조가 바늘로 손가락을 6-7번 콕콕 찌르며 괴성을 질렀다. “이거 못하겠어요, 엄마. 저는 소질이 없다니까요.”

“셋, 빈센조. 곧 나아질 거다.” 엄마가 말했다. “한 번 더 해보렴. 얼마나 쉬운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빈센조(이제 비니라고 부른다)에겐 절대 그 일이 쉬워지는 법이 없었다. 토니도 완벽한 한 뼘을 꿰매려고 바늘을 천에 통과시키는 게 어려웠다. 바늘이 계속 엉뚱한 곳에서 나온다는가, 손가락을 찌른다는가, 혹은 천을 비스듬하게 찢고 나와서 안감을 망쳐 버릴 뻔 하기도 했다. 더 답답한 건, 바늘구멍에 실을 제대로 집어넣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실눈을 뜨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실을 쑤셔 넣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안젤리나와 이제 조이라고 불리는 기세프가 바느질을 하기로 했고 비니와 토니는 방과 후에 조화회사는 물론, 시도스키네로 의복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로 했다.

비니는 투덜거리면서도 그렇게 했다. 토니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다. 그는 엄마를 위해서 무거운 코트와 바지를 배달하게 돼서 기뻐했다. 그리고 푼돈 벌이로 식육점 마리오 아저씨와 식료품점 안젤로 아저씨를 위해 멀베리 가(街) 손님들에게 메모사항을 전달하는 일도 시작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하기 싫은 조화작업을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 공부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고 학교 공부가 너무나 좋았다. 벌써 1학년이 오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11월이 되자 날씨가 바뀌었다. 더 추워졌고 사람들을 멀베리 가(街)에서 쓸어버릴 만큼의 비가 내렸다. 페트로시노 가족은 고향에서 가지고 온 두꺼운 옷이 몇 벌 있었으나 아이들은 그새 커서 대부분이 맞지 않는 옷뿐이었다. 그 나머지 옷들은 그야말로 너털너털한 옷이라 입고 지내기에 충분치 않았다.

토니는 언제나 추워 보였다. 손가락은 항상 젖어 있었고 그의 발은 젖은 신발 속에서 질퍽거렸다. 학교에서는 양손을 겨드랑이에 낀 채로 앉아 있었다. 집에서는 난로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는 침대로 뛰어 올라가 동생들과 함께 서로의 온기로 몸을 녹였다.

모두들 증상이 하나씩 나타났다. 안젤리나는 극심한 목감기와 몸살이 걸려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엄마는 그녀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도 의사는 부르려고 하지 않았다. 비용이 너무 비싸고 별로 믿을 만하지 않아서였다.

다행히, 막내는 1주일만 지나자 다 나았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학교도 나갔으며 바느질 작업도 다시 시작했다. 페트로시노 가족은 무사히 한 고비를 넘긴 듯 해 보였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졌다. 그리고 아빠는 일을 그만 두었다.

그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 건축 일이란 것이 계절을 타는 법이니 말이다. 아무도 추위에 떨며 도로를 놓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미리 계획하지 못했다. 아빠는 소파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화가 난 듯 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무기력하게 보였다. 엄마는 아빠를 바느질 작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비니나 토니와 다를 게 없었다. 그녀는 아빠에게 조화작업을 시켜봤지만 예전의 서투른 솜씨 그대로였으며 감을 익혀가는 것 같지도 않아보였다.

엄마는 이 상황을 이겨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이 일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축 일에서 생기는 수입이 없다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그에 달하는 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빠는 계속 노력했지만 저녁이 되면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 그는 도박장이나 술집을 돌아다니다가 조금 취한 채로 집에 왔다. 그는 루이지 마짜페리와 그의 친구들과 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토니는 아빠가 늦게 맥주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오면 엄마의 눈에 그러한 슬픔을 보았다. 어느 날 밤에는 아빠가 밤늦게 매우 취해서 들어왔다. 토니와 엄마는 서

로 조화 만드는 작업을 하고, 단추 구멍을 마무리 하는 일을 하느라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아빠는 문턱을 넘다가 넘어져 코트더미를 다 뒤집어 놓고는 소파위에 엎어져 누웠다.

처음엔 조용하다가 어눌한 발음으로 루이지의 친구인 지노란 사람이 포커게임에서 아빠를 속였다고 하소연 하는 것이었다.

엄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루이지씨와는 포커 게임을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대개 이탈리아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토니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 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빠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다.

아빠는 소파에서 엄마를 노려보았다. “나에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엄마가 더 높이 서 있었다.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피에트로. 당신은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해요.”

아빠는 엄마를 더 노려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빠는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매일 멀쩡한 정신으로 일찍 집에 왔다. 셋째 날 아침에는 테이블에 앉아 다시 한 번 조화작업을 시도 했다. 그의 크고 골격 큰 손으로 테이블 꽃 주변을 빙빙 감싸면서 모양을 만들면서도 동시에 망가뜨려 놓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는 노력하고 또 노력했으며 조금씩 나아져갔다.

토니는 그 일이 아빠에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최소한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강인한 가장으로 보여야 했고, 조화작업을 같이 해야 하는 나약함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너무나 더딘 발전에 그는 의욕을 잃기 시작했다. 토니는 아빠가 허공을 응시하며 두 손을 꼭 잡고, 소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 챘다. 그는 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다시 밖으로 외출하기 시작했다.

토니는 여전히 전만큼 바쁘게 지냈다. 학교와 숙제, 심부름, 장보기, 배달, 야구 등을 하느라, 그걸 다 하기엔 하루로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는 매일 밤 양 옆에 비니와 조이가 걸리적 거릴 만 한데도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가고 있었다. 겨울방학 바로 전에 맥고웬 선생님은 토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는 공부를 썩 잘 했기 때문에 1월이 되면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후에는 더 빨리 학년이 올라갈 지도 모른다. 토니와 동생들이 복도에 서 있을 때 맥 고웬 선생님이 토니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다. 그는 선생님에게 안기고 싶었으나 그러기엔 너무 부끄러웠다.

“고맙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토니는 뭘 듯이 기뻐다. 당장 엄마,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먼저 심부름 때문에 마리오네 가게로 달려가야 했다. 그 다음엔 칼과 스티브, 살과의 야구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엔 늦으면 안 되었다.

토니는 학교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집까지 걸어갔다. 그는 동생들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서 열등감을 갖게 하고 싶진 않았다. 그들도 비록 자신이 하는 만큼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자기 반에서는 그럭저럭 잘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비니가 선생님과 문제가 생겼다. 비니는 학교에서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의 담임선생님은 그가 떠들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벌을 주는 시간 외에, 그와 대화할 시간은 없어 보였다.

토니는 저녁식사로 뭘 사야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동생들을 집 앞에 데려다 줬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

“엄마한테 장 보러 갈 시간에 맞춰 오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곤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러나 마리오네가 평소보다 더 많은 심부름을 시키는 바람에 토니는 결국 야구 경기에 늦고 말았다. 애들은 토니를 빼고 경기를 시작하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7대 7 동점을 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그대로 있었는데 10회 말에 가서 살이 홈런을 쳐 버렸다.

토니는 거의 어두워져서야 집에 돌아왔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또 좋은 소식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긋지긋한 계단 위를 뛰어 올라갔다.

엄마가 부엌에 서 있었다.

“빈센조가 없어졌어.”

“뭐라구요?” 토니가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머지 식구들은 가운데 방 침대위에 머리를 떨군 채 앉아있었다. 엄마는 두 동생이 토니를 놀라게 해 주려고 형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장을 봐 오기로 결심했다

고 설명했다. 집에 오는 길에 빈센조가 갑자기 그랜드 가(街)쪽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이었다. 아빠가 동네를 살살이 뒤져보았지만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제가 찾아보겠어요.” 토니가 말했다.

그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가 가진 소식은 나중에 전해야 했다. 비니가 최근에 브로드웨이에서 일하는 신문팔이 소년들과 친해진 걸 알고 있었다. 그가 거기에 갔다고 토니는 확신했다.

그랜드 거리에 있는 상점들이 아직 열려 있었다. 브룸으로 난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토니는 브로드웨이를 향해 서둘러 길을 건너 시내 쪽부터 찾아 나섰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하워드 거리를 지나 카넬 거리를 건넜다.

대부분의 이민 공동체가 그러한 것처럼, 토니는 살고 있는 동네를 거의 떠나 본 적이 없었다. 직장도, 가게도, 이탈리아 친구들도 모두 거주범위 안에 있었다. 다른 동네사람들은 이탈리아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또 이탈리아 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토니는 이제 영어로 말할 줄 안다. 그에겐 배짱과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아야 했다.

카넬 시 바로 밑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토니는 좀 더 가까이 갔고 신문팔이 소년들 몇 명이 있는 걸 보았다. 그들은 몰려있는 사람들 끝에 있었는데 지금도 신문을 들고 서 있었다. 그 다음 래그피커스 조직원들 몇 명이 보이자 덜컥 겁이 났다.

그는 구경꾼들 속으로 끼어들었다. 타원형으로 빙 둘러싸인 가운데 해리 히키가 칼로 비니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봐, 역겨운 이탈리아 꼬맹아!” 히키가 다른 한 손을 내밀며 말하고 있었다.

“나한테 즐겁게 뭔지 말해 보시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의 영역을 보호한다는 래그피커스 조직원들은 그들의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필 왜 10살짜리 소년을 쫓아다니는 것인가? 비니는 즐겁게 아무것도 없었다. 히키와 그 패거리들도 그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미친 짓이었다. 이 일은 토니를 노리고 벌인 것이다. 그들은 비니와 자신이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형제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비니가 혼자 있는 걸 봤겠지. 비니가 토니를 대신해서 이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토니는 사람들을 뚫고 나갔다.

“이봐, 히키.” 그는 영어로 말했다.

“상대를 잘못 찾은 거 아냐?”

히키가 몸을 꺾 들렸다.

“여, 이게 누구신가.”

그는 칼을 휘두르며 토니를 향해 한 발자국 옮겼다. 그러나 그가 찌르려고 하기 전 그들 사이에 뭔가 우르르 달려 들어왔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던 군중 속으로 돌진해 들어왔고 래그피커스 조직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

싸움에는 소질이 없는 토니는 비니를 끌어당겨 그곳을 빠져 나갔다. 그가 모통이를 벗어나려고 할 때 히키를 쫓는(그땐 흐릿한 형체로만 보였다) 누군가가 눈에 띄었다.

놀랍게도 히키가 넘어졌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칼은 수 미터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는 뛰어서 히키의 가슴에 걸터앉아 포동포동한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토니는 멍 한 채로 서 있었고, 비니는 소맷자락을 걷어붙였다.

“형, 형 빨리 가자.”

그러나 토니는 갈 수 없었다. 그는 히키가 맞는 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 히키가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봤다. 히키 위에 올라탄 검은 머리의 소년은 덩치가 크지 않았으나 히키는 즐기치게 맞고 있었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고, 그런 그의 노력은 효과가 있었다!

다른 패거리들은 여전히 싸우다가 곧 히키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눈치 채자 모두 싸움을 멈추고 히키를 쳐다보았다. 히키는 그가 마치 벌레인 양 밟아 몽개 버렸다.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칼을 쥐려고 몸을 구부렸다. 그리고 그의 패거리들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가자, 재수 없는 이탈리아 새끼들은 다음에 손봐주지.”

그는 토니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쓰레기 같은 그의 무리들 틈에 둘러싸여 유유히 사라졌다.

두 발을 그 곳에 딱 붙인 채, 토니는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브로드웨이 위쪽으로 사라지자 그때야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지했다. 풀이 있는 게 보였고 수염이 나고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자신과 비니를 구해준 그 아이는 웨이페어러 조직원 이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

다.

히키를 거의 보내버릴 뻔 한 소년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설사 그가 히키를 완전히 보내진 못했어도 덕분에 토니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 소년은 토니의 어깨를 잡았다. “토니오” 그가 어설픈 영어로 말했다. “나야. 토마소.”

토니는 믿을 수 없었다. 같은 배에 탔던 그 토마소가 웨이페어러의 조직원이었다니!

“고마워, 토마소.”

토마소는 미소 지었다. “히키가 내 친구를 다치게 놔 둘 순 없지.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어.”

폴은 나머지 웨이페어러 조직원들을 모으는 중이었지만 토니와 토마소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서로 풀어놓았다. 토마소는(이제는 토미라고 부른다) 프린스 가(街)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구두닦이 일을 하면서 지내고 학교는 안다닌다고 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그곳에 웨이페어러 조직이 있었고,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또 그가 그 조직에 소속되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토니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이 한 조직에 가입하면 정말 좋지 아니 하겠냐고도 했다.

토니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치켜 올렸다. 웨이페어러 조직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었고 토마소와 토니도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들이 떠날 때 토니는 폴의 얼굴표정을 읽었다. 폴의 얼굴에는 ‘우리가 너를 구해 주었으니 이젠 너의 도리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라고 씩여 있었다.

6

해가 지고 있었다. 브로드웨이길 위를 큰 보폭으로 걷다가 토니는 동생보고 빨리 걸으라고 재촉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거야, 비니. 너무 늦었다고.”

그러나 비니는 서둘러 걷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 토니가 들어주길 바랐다. 그가 배운 영어로 말하기에는 표현이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는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난 히키에게 아무 잘못도 안했어, 형.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거야.”

“나도 알아, 비니. 그는 나를 노린 거야. 오늘 그는 너 때문에 진을 친 것일 거고.”

“하지만 왜?”

토니는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느라 애썼다. 이 모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며, 그냥 아일랜드인이 아닌 이탈리아인이어서, 혹은 이탈리아인이 아닌 아일랜드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토니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토니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아마 결국 그는 웨이페어러 조직에 가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방법인지도 몰랐다. 웨이페어러 조직은 래그피커스 조직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는 토마소와 친구가 될 수도 있었고 그와 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를 그만두고 정직원이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배움의 길과 그가 알 수조차 없는 미래에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생각을 거기서 멈췄다. 그는 학교에 다녀야 했다. 그는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조직에서 결정한 사항에만 따르며, 우두머리가 가자고 하면 그때 가야 되는 일개 조직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안된다. 그는 가족을 계속 부양하기도 해야 했지만 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했다.

토니와 비니는 아무 말 없이 몇 블록을 걸어갔다.

그때 비니가 말했다. “난 신문팔이 일을 하고 싶어.”

토니는 단숨에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비니, 그건 안 돼. 학교를 다녀야지.”

“난 학교가 맘에 안 들어. 형도 알잖아. 내 친구들도 모두 그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넌 길거리에서 일을 하고 싶진 않잖아. 모르겠어? 큰 곤욕을 치를 게 뻔하다고.”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두고 봐. 아빠는 승낙해 줄 거야.”

토니는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갑자기 아빠가 그의 진급 소식

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해졌다. 그는 아빠가 학교에 불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빠의 반응이 미심쩍어졌다.

“학교에선 뭘 배우는 거냐?” 그는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빠한테 대들라고 가르치디?”

그러고는 매일매일 소파위에 몸을 던지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떤 자식도 부모보다 나올 순 없다.”

이런 생각들은 고향에서 아빠를 봤을 때의 시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었지만 아빠는 절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테지아노에서는 아무도 학교를 다녀 본 일이 없었는데 왜 미국에서는 학교를 다녀야 하나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아빠는 미국은 다르다는 걸 이해 못했다. 테지아노에서는 콘타디니(농민)이면 코딱지만 한 밭을 일구는 일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가난한 소작농으로 살면서 학교는 가든 안 가는 달라질 것도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부모가 힘들게 살았던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되었고 부모의 삶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 또한 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엄마는 이해가 더 빨랐다. 학교문제가 화두에 떠올랐을 때 엄마는 눈에 빛을 내며 말했다. “학교에 다녀라.”
엄마는 아빠가 방을 나가자 토니에게 속삭였다.

“학교를 다녀서 더 나은 일을 해.”

침묵 속에 걸으며 토니와 비니는 거의 집까지 왔다. 그들은 멀베리 가(街) 모퉁이를 돌아서 집을 향해 사람들 틈 속으로 걸어갔다.

“이봐, 토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과일 행상인인 마르코 씨가 소리쳤다.

토니는 손을 흔들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도 잘 지내시죠?”

그리고 그들은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비니 뒤를 토니가 따라 올라가는데 모양새가 마치 비니를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문을 열었다.

“비니 오빠, 무사했네!”

안젤리나였다. 모든 식구들이 나와 맞이했고 비니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집에 무사히 돌아온 걸 환영했다.

“많이 걱정했다.” 엄마가 말했다. “빈센조. 어디 있었니?”

비니는 토니를 흘끗 보았다.

아무말도 하지마. 싸움이 있었다는것도, 조직 폭력단 얘기도.

“브로드 웨이에 있는 신문팔이 친구들과 같이 있었어요.” 비니가 말했다.

“그들은 내 친구들이예요..엄마, 저는 신문팔이 일을 하고 싶어요.”

순식간에 엄마의 표정은 안도에서 충격으로 변했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빈센조? 학교를 다녀야지. 아직 영어도 서툴고. 집에서 도와주는 걸로도 충분해.”

반면에 아빠는 좋아했다. “내가 보기엔 좋은 생각 같은데. 집안 살림에 지금보다 더 큰 보탬이 될 거야.”

토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맥 고웬 선생님이 저보고 1월에 한 학년 올라갈 거라고 말했다고요!”

상황이 어떻든 적절하게 나온 얘기는 아니었다. 선생님이 해준 얘기를 전달하기 보다는 거만하게 들렸고, 그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환에서 말했다라기 보단 비니에 대한 비난쯤으로 들렸다.

그러나 엄마는 입이 찢어지게 기뻐했다.

“대단하구나, 토니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축하한다.”

아빠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눈은 다른 곳을 향했다.

“그건 잘 됐구나. 그런데 이젠 신문팔이 일을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빠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고 거의 눈물이 고인 채, 토니는 아빠를 노려보았다.

“아빠, 제가 하는 심부름일과 조화 만드는 일에서 버는 돈만으로도 신문을 팔아서 버는 돈만큼은 돼요. 그리고 엄마를 도와 장 보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아빠는 보일 듯 말듯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 온 식구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중간에 토니가 외쳤다. “전 학교를 그만 둘 수 없어요. 절대로요!”

결국 그들은 중간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것은 물론 아버지가 결정한 사항이었지만 엄마가 제안한 것이기도 했다. 토니와 비니 둘 다 학교를 다니되, 새벽시간에 같이 시간제로 신문팔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 엄마. 꼭 다녀야 돼요?”

비니는 앞으로도 그가 학교와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음이 명백해지자 통곡을 했다.

“물론이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빈센조.”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토니는 수면 부족과 앞으로는 하지 못할 심부름들, 설령 숙제를 다 마쳐도 하지 못할 야구경기에 대해 생각했다.

“내일 아침 로우 출판사에 찾아가 보겠어요.”

말은 자신 있고 똑 부러지게 했으나, 사실 두려움과 상실감밖에는 들지 않았다.

이제 그는 살을 찾아야 했다. 살은 신문팔이 일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미국에 온 첫날 그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거라고 말을 했었다. 살은 로우 출판사가 사무실을 갖고 있는 큰 규모의 신문사라고 말했고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었다. 이제 더 자세하게 말해 줄 것이다.

“살의 집에 내려가 볼게요.” 토니는 이렇게 말하고 아파트를 뛰어나갔다.

그가 속도를 내서 내려가자 발 밑 계단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뭔가 바뀔 것이다. 상황이 전과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살의 집 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살은 집에 없었다. 아마피 부인은 살이 언제 돌아올지, 내일 아침엔 신문을 팔러 나갈 건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문제가 생겼다. 그는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했다.

살이 뉴욕 트리본에 대해서 뭔가 얘기 했던 게 생각이 났다. 한번 일 해 봄직한 곳이라고 했던 것 같았다. 살은 신문 10매를 팔면 5센트를 받는다고 했으며 신문 한 부당 1페니에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많은 부수를 팔면 꽤 이득이 남는 일이었지만 신문을 팔기 전에 몇 부를 사 줘야하기 때문에 처음에 드는 돈이 필요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한테 돈을 빌린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없었다. 그러나 막상 그녀에게 말을 꺼낼 때에는 긴장했다. 돈은 항상 있어도 모자랐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엄마는 웃으면서 20센트를 주고는 그의 손을 다독였다.

그것은 최소한 그에게 용기를 북돋게 해 주는 것이었지만 밤새 토니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종종 동네에서 벗어나 그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신문을 팔게 될 것이다. 대부분이 이탈리아인이 아닐지도 모르고 맥고웬 선생님과 같은 몇몇은 아일랜드인일지도 모른다! 비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단지 학교생활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고만 믿고 있었다.

마침내 토니는 잠이 들었다.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누군가 자기를 깨우고 있었다. 정신없고 지친 모습으로 그는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피에트로는 이제 주택가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매일 새벽 5시 30분만 되면 일어났다. 그 시간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두 아들을 침대 밖으로 내쫓았다.

비니는 졸려서 지금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너무 이르잖아요, 아빠.”

그는 덮은 이불을 돌돌 말아가며 웅얼거렸다.

잘란다, 토니가 생각했다. 비니는 이 일을 같이 하도록 망둥었지껏 이제 신문팔이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비니밖에 없어.

아빠는 다시 비니를 깨웠다.

“빈센조, 시간 다 됐다.”

빈센조는 이번에도 아빠 말을 거역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알았어요, 아빠.”

그는 구르듯이 마룻바닥에 발을 디뎠고 그 뒤를 토니도 따라갔다. 엄마는 벌써부터 분주하게 롤 빵, 우유, 커피 등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토니와 비니도 옷을 입고 세면기에서 세수도 해서 나갈 준비를 마쳤다. 30분 후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춥고 어두운 겨울날 아침의 태양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었다. 멀베리 가(街)도 갑작스럽게 거리로 나올 사람들을 맞으려고 깨어나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손수레 행상인들과 수레와 짐차들이 보였고, 가게들은 아직 문을 안 열었지만 길가에는 박스 안에 놓인 신발과 속옷이 진열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가게 안에 있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써어버리기 쉬운 음식을 밖에 내놓지도 못했다.

토니는 시내로 들어서기 시작하자 자신의 목도리를 꼭 졸라매고는 비니의 목도리도 잘 매주었다. 바람이 윗옷 속을 파고들었고, 그는 추위에 몸서리를 쳤다. 비니는 별로 추위 보이진 않았지만 첫날 치고는 별로 좋은 날 같지는 않았다.

토니는 앞장서서 모트 가(街)로 향했다. 그들은 그 길을 따라 채텀 광장 밑으로 내려가서 로우 공원길로 다시 나왔다. 그곳은 시청공원의 남쪽에 위치한 로우 출판사 거리로 바뀐 곳이다. 그 경로가 가장 가기 편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멀베리 가(街)에서 동쪽으로 한 블록만 가면 있고 멀베리 밴드와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모트 거리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계단위에 널부러져 누워 있었고 집 없는 소년들이 누더기를 걸쳐 입고 어떤 아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현관문 앞에서 떼지어 있었으며 될 수 있는 한 따뜻해지기 위해 열이 나는 틈새에 모여 있었다. 토니와 비니는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그곳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카넬 시를 건너 차이나타운의 중심가인 모트 거리의 한쪽 편으로 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생소한 식품점들과 미술 골동품 가게들, 포트 아서라는 레스토랑, 땀기 머리를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있었다. 시골벽적인 자신들의 동네에 비해서 차이나타운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들은 호기심이 생겼고 그 동네에 매혹되었으며 기분이 이상했다. 그러나 토니가 걸음을 재촉했다. 한가하게 구경할 시간이 없었다.

토니는 나소와 스프러스 가(街) 사이를 돌면 트리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청 공원에 도착하자 브룩클린 다리입구를 지나서 뉴욕 타임즈와 로우 출판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건물에 도착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 관리인이 트리본지 배급소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그곳은 매우 넓었고 사내애들로 꽉 차 있었다. 대부분이 어떤 책상 앞에 줄을 서 있었고 배급소의 부지배인은 돈을 받고 신문을 많이 나눠 주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토니와 비니가 모트 가에서 본 부랑아들보다 더 많았다) 건물 안 기둥이나 석탄 난로 주변에 기대어 줄고 있었다.

토니는 경력이 좀 더 많고 나이가 위인 아이들 대부분이 줄 앞쪽에 서 있다는 걸 눈치 챘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심지어 여자애들도 한 두명 끼여 있었다) 주춤거리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니는 곧바로 줄 끝에 가서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첫날이니만큼 누구의 발도 밟고 싶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앞으로 가게 되었다. 머리 뒤쪽으로 넘어간 중산모자를 쓴 그 부지배인은 그들을 차가운 태도로 대했다.

“20부 주세요.”

토니가 그에게 10센트를 건네며 말했다. 그는 돈을 다 주기 전에 이곳 관례를 알고 싶었다. 부지배인은 그에게 신문을 넘겨주자마자 뒤에 서있는 소년을 쳐다보았다. 토니는 비니에게 신문 반을 주고 그곳을 나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신문팔이 소년들은 골목마다 신문을

사라고 외치며 어디에서나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이 가야 할 장소는 어디란 말인가?
길 건너 시청공원 맨 끝에 신문을 팔기 좋아 보이는 곳이 있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너는 어때?” 토니가 비니에게 물었다.

비니는 신문팔이가 되어 들 때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공포에 질려 있었다.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고개나 꼬덕이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길을 건너 일을 개시했다. 토니는 한 방향을 향하고 비니는 다른 방향을 향해 섰다.

“따끈따끈한 아침신문 트리본 신문 보세요!” 토니가 소리쳤다.

비니도 똑같이 해보려 했으나 형처럼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한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잘 차려입은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는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나 주시오.”

재빨리 토니는 신문을 접어서 신사에게 주었다.

“고맙네.” 그는 5센트짜리 동전을 꺼내주며 말했다.

“잔돈은 필요 없네.”

“고맙습니다.” 토니는 동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행운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신문 한 부를 팔아서 벌써 4.5센트를 벌었다. 이 일이 이렇게나 쉬웠단 말인가?

갑자기 그의 발이 밑에서 걸려 허공으로 향하더니 바닥에 넘어졌다. 비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비니도 넘어진 것이었다.

토니는 일어나 앉아서 앞에서 있는 소년을 보았다. 그는 깡마른 몸집에 험클어진 금발머리를 갖고 있었다.

“여긴 내 자리야.” 그가 말했다. “설마 남의 자리에서 일하고 싶진 않겠지.”

7

“당연하겠지.”

또 다른 소년이 끼어들었다. 그는 금발소년보다 키가 더 작고 뚱뚱했으며 머리는

검은색이었다. “남의 밥그릇을 빼앗을 생각들은 아니겠지.”

비니를 넘어뜨린 바로 그 소년이었다.

“미안해. 몰랐어.” 토니가 말했다.

“그런 건 미리 알았어야지.” 금발 소년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의 구역을 넘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구. 그게 우리들의 규칙이야.”

“알았어.” 토니는 살을 찾을 수 있었다라면 하고 계속 생각하며 대답했다. 살이라면 이런 사실들은 벌써 말해줬을 것이다.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약속해.”

긴장이 사라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자, 이제 이 구역 밖으로 옮길 거지?” 금발소년이 물었으나, 어투는 확실히 명령조였다.

“물론이야. 걱정 마.” 토니가 말했다.

그가 발을 짚고 일어나며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저기, 너희들 자리에서 신문을 팔아서 미안했어. 오늘 처음으로 신문을 팔아서 그랬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지 말해줄래? 그러면 정말 고맙겠는데.”

분위기는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첫날이라는 거지.” 금발소년이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는 웃으며 비니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도 신문을 팔아야 하지만 시간이 남을 땐 너희 것도 좀 팔아주지. 보아하니 맘대로 남의 구역에서 일할 부류는 아닌 것 같으니까.”

토니는 해리 히키를 처음 만났을 때 받은 협박이 생각났다.

앞으로 우리 구역에서 억신대기만 해봐, 알아들었어?

그는 진저리를 쳤다. “아니야,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서로 자기소개를 했다. 금발소년의 이름은 알파였고, 검은 머리의 소년은 버즈였다. 그들은 이쪽 일에 있어서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었고 거의 같이 일을 했던 모양이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을 뛰쳐나와 절대 집에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신문팔이 하숙집에서 잠을 자곤 했다고 했다. 둔 스트리트와 챔버스 동네 위쪽에 보면 괜찮은 하숙집이 있었는데 침대도 깨끗하고 음식도 잘 나왔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오래 머무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지켜야 할 규칙들

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키 큰 고객이 다가 오고 있었다. 버즈는 신문 뭉치를 숨기고 길을 비켜섰다. 알피는 될 수 있는 대로 친절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이빨을 보이며 웃고는 신사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사장님, 마지막 남은 신문인데요, 1페니밖에 안 해요. 1센트요. 이걸 팔면 저는 집에 갈수 있어요.”

그는 트리본지를 흔들며 보였다.

그 신사는 걸음을 멈춰 섰다. “흠, 당연히 사주고말고. 젊은 친구를 도울 수 있다니 기쁘군. 여기 신문 값이오.”

그는 알피가 편 손바닥 위에 동전을 얹어주고 다른 손에 있던 신문을 잡아 쥐고는 가던 길을 갔다.

알피는 동전을 흔들며 춤을 추었다. 또 다른 ‘마지막’ 신문이 금방 팔린 신문 대신 재빨리 투입되었다. 그런 식의 신문팔이는 또 시작되었다.

토니와 비니는 눈이 마주쳤다. 장사를 하는 요령을 터득한 것이다.

“너희 둘은 더 잘 할 거야.” 버즈가 말했다.

“동생을 앞에다 세워. 귀엽고 또 상냥해 보이니까. 그럼 손님들의 눈을 끌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팁은?” 토니가 말했다.

그는 처음 신문을 팔았을 때 믿기지 않던 행운이 생각났다.

“팁을 받는 일은 거의 드물어.” 알피가 말했다.

“어떤 애들은 손님 앞에서 마술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것저것 하기도 하는데 난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특효약’ 이라고 하는 비법이 있긴 하지. 그게 뭔지 금방 보여줄게.

그가 신문 두어 부수를 더 팔고 나자 5센트짜리 동전을 들고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알피는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잔돈이 없네요.”

“됐다. 굳이 줄 필요는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겨드랑이에 신문을 꽂은 다음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알피는 아까보다 더 크게 웃으면서 주변을 빙빙 돌았다. “봐, 효과가 있잖아. 비록 항상 먹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어떤 손님은 잔돈이 없으면 만들어 오라고 하기

도 해.”

“잔돈을 못 만들면?” 비니가 말했다.

“그럼 시간을 길게 끌고서 그 짜증나는 손님이 그냥 가길 빌어야지. 만일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면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기만 바라야지 어찌겠어.”

토니는 그 '특효약'이라는 방법이 꽤 믿을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문과는 요령들을 빨리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스스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리고 팔아야 할 신문도 남아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알피.” 토니가 알피를 불렀다.

“신문을 팔 만한 좋은 자리가 다 차 버렸다면 우리는 어디서 신문을 팔아야 하지?”

트리본 지를 하나 더 파는데 성공한 알피는 어깨를 추켜세우고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대부분의 명당자리들은 그 곳 주인한테 자릿세를 내야 돼. 좀 아픈 상태거나 아니면 신문팔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리 주인들한테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 아는 주인도 없을뿐더러 돈도 없는데.”

알피는 또다시 웃고는 엉덩이를 내밀고 쭈그려 앉았다.

“고가 기차들이 한꺼번에 다니는 채텀 광장에 적당한 자리가 하나 있어. 교통이 좋은 곳이지. 몇 일전에 거기서 신문을 팔던 애가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 묻지도 않아. 개는 성격이 거칠어서 아무도 걔 좋아하지 않았거든.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 애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네가 거기서 자리를 잡아도 좋을 거야.”

“거기로 갈게.” 토니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 우리가 살아 있으면 내일 트리본 사에서 보자구.”

“그래, 거기 가 있을게.” 알피가 대답했다.

“거기 말고는 갈 데도 없지 뭐.” 버즈가 말했다.

토니는 조금 더 이 소년들과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은 학교에서 보는 학생들이나 동네에서 같이 노는 아이들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 그들은 스스로에게나 세상에 대해서도 관대했다. 그러나 이제 채텀 광장으로 가야 한다.

새벽 찬 공기에 더해 더욱 추워진 날씨 탓에 토니는 바로 얼마 전에 왔었던 길로

다시 서둘러 비니를 데리고 갔다. 신문을 꼭 잡고 길을 재촉하는데 자신들의 입김이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는 게 보였다.

크고 두꺼운 철판으로 된 지지대 위에 올려진 2번가와 3번가의 철판 (사람들에게는 두 엘가라고 알려진)는 채텀 광장 쪽으로 집중돼 있었다. 커다란 철판 덮개가 위에 덮여 있었다. 덮개가 보이는 몇 블록 떨어진 곳이 신문을 팔기엔 완벽한 장소였다. 구질구질한 날씨에는 그 곳이 더욱 도움이 되었다.

이제 금방 다가올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붐빌 것이고 그야말로 완전히 손님들의 집합지가 될 것이었다.

토니와 비니는 점점 가까이 가다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한 방면으로는 한 소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다른 방면으로는 놀랍게도 자리가 비어있었다.

분초를 다투어 토니와 비니는 행동개시에 들어갔다. 비니는 이탈리아 억양으로 ‘마지막 신문’을 휘날렸고 신문 몽치를 들고 있는 토니는 그의 뒤에 비껴섰다. 몇몇 승객들이 오갔지만 신문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훔쳐 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러자 비니는 손님 앞에 무릎을 꿇고 팔을 뻗었다. 한 손에는 트리분지를 들었다. 잠시 후 그는 신문 한 부를 팔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양쪽 방향에서 계속 왔다. 비니도 연신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고 신문을 팔았고 토니는 그런 그에게 더 많은 신문을 주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직 ‘특효약’을 시도해 보지도 못했다. 나중에 시도해 볼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귀를 계속 기울여 보니 다른 편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 신문기사 제목을 크게 소리치는 게 들렸다. 그게 좋은 방법 같아서 그들 똑같이 하자 신문을 더 많이 팔수 있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지막 신문 한 부만 남게 되었다!

“신문을 더 받아 오는 게 좋겠어.” 토니가 말했다.

“등교 시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잖아.”

트리분 사무실은 여러 블록을 가야 있었지만 서둘러 내려가서 금방 번 돈으로 신문 40부를 더 사고는 또다시 길을 재촉해 왔던 길로 다시 갔다. 그 자리에 다른 소년이 서 있을까? 그럼 그 소년과 대항해야 하나? 그가 전에 그 자리 주인이면 어찌지?

그들이 펄 거리에 도착하자 멀리 위로 철판 덮개가 보였고 그들은 더 빨리 걸어갔다. 야구 모자를 쓴 한 소년이 건널목을 건너 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엔

신문이 없었지만 그의 동료는 신문을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을지도 몰랐다.

“안돼!” 비니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벌써 자리를 뺏기면 안 되지!”

그와 토니는 달려갔다. 그들은 역 안으로 돌진했다. 그러나 그 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기차를 타려고 역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이다!

두 형제는 그 자리에 서서 안도의 포옹을 했다. 그리고 다시 장사 준비를 한 다음 신문을 더 팔았다.

비니가 앞에 서서 일하는 게 지겨워지자 토니가 다시 비니 역할을 해보려 했다. 그가 처음에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신문을 들어 제목을 크게 외치자 신문이 팔렸다! 그는 비니처럼 어리고 귀엽지는 않아도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호소력이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은 출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간신문을 읽고 싶어 했다.

그러나 예상외의 팁은 더 이상 없었다. 제일 처음에 받았던 것(최초의 행운)이 그날의 마지막 팁이었다.

“형!” 비니가 속삭였다. “우리 이제 신문 세 부밖에 안 남았어!”

“괜찮아.” 토니가 말했다. “우리도 이제 곧 가야돼.”

그는 다음 손님에게 시간을 물었다. 20분전 아홉 시였다. 학교로 출발해야 했다. 순식간에 마지막 신문이 팔렸다.

“형, 우리 오늘 얼마 벌었어?” 토니가 비니를 학교를 향해 재촉하자 비니가 물었다. 그들의 코는 얼얼했고 다 닳아 해진 장갑을 낀 손은 얼어 있었다.

“60부를 팔아서 30센트를 벌었고 거기에다 팁 받은 돈 4센트도 있지.” 토니가 대답했다.

“그 중 얼마는 우리에게 돌아올까?”

“이 돈은 가족을 위해 쓰일 돈이야.” 토니가 말했다. “엄마한테 주면 이 돈을 어떻게 할지 엄마가 결정 하겠지.”

그러다가 학교에 도착했다. 조이는 자기가 안젤리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학교에 있는 동안엔 비니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가 끝나 집으로 가는 길에 비니는 다시 끈질기게 물었다. “엄마가 우리에게 얼마 줄 것 같아?”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그 둘을 안아 주었다.

“너희들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구나.” 그녀는 특별한 날에만 보여주는 작은

웃음소리를 냈다.

토니는 아침에 채텀 광장에서 만난 알피와 버즈에 대해 말해 주고 나서 엄마에게 그 날 번 돈을 건네주었다.

엄마는 각각 1 페니씩 주면서 말했다.

“상으로 주는 거야.”

그녀는 나머지 돈을 다시 토니에게 다 주면서 말했다.

“신문을 더 사려면 필요할 거다. 오늘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내일도 아마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비니는 기뻐하면서도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다. 토니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제대로 배우지는 못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멀리 보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가를 잘 알고 있었다.

8

다음 날 아침, 아빠는 토니와 비니를 굳이 깨우지 않아도 되었다. 이미 그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나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아침을 차려주고, 아이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옷을 두껍게 입혔다. 그러자 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밖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갔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상관없었다. 트리본지 배급소 까지 가는 지름길을 알아두었기 때문이었다.

꽤 일찍 도착했는데도, 전날보다 더 많은 노숙자들이 이미 와서 자고 있는 중이었고, 벌써 신문배급을 하는 책상 앞엔 줄이 만들어져 있었다.

앞줄에 서 있는 몇 안 되는 소년들 중에 알피와 버즈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어젠 어떻게 됐어?” 알피가 물었다.

“우리가 판매할 자릴 만들었어.” 토니가 말했다.

“아무도 없더라고.”

“참 잘 됐다. 빨리 가면 네가 거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보다 빠른 사람은 없지.” 토니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알피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그 강가에서 개를 찾았대.”

“찾았다고?” 토니와 비니가 동시에 물었다.

“응, 비겁한 짓이지.” 버즈가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니?” 토니가 물었다.

“아마도 래그피커스 부하들 중 한 명이 그랬겠지. 항상 지저분한 일은 도맡아 하잖아.” 알피가 대답했다.

토니는 걱정이 되었다. 래그피커스 조직원들이 채텀 광장으로 나를 쫓아오고 있을까? 전에 있던 그 소년처럼 우리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까? 그는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애써 떨쳐 버리려고 했다.

“행운을 빈다.” 알피는 토니와 비니에게 두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너도.” 토니도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그들은 둘이 들 수 있을 만큼인 신문 50 부를 사서 다 팔고 40부를 더 사서 그것마저도 다 팔았다. 두어 번 팁을 받고, 50센트 정도의 돈을 벌고는 자리를 떴다.

토니는 하루 종일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은 학교공부도 대충 끝냈다. 엄마도 매우 좋아했다. 이번에는 번 돈의 일부를 저금했다.

“크리스마스 때 쓸 돈으로 놔두는 거야.” 엄마가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토니와 비니는 스스로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 아침도 정신없이 먹는 등 마는 등 신문을 사들고 채텀 광장으로 서둘러 나갔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엘스 거리 밑에 있는 자리가 아침시간에는 으레 그들의 자리로 알려지게 되었고, 아무도 그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 벌이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에 신문 95부수까지도 팔았다. 그리고 때때로 비니의 신문팔이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잠시 자리를 비워 알피, 버즈와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토니가 지난 일에 대해 묻자 알피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엔겐 과거가 없어. 미래도 없지. 버즈와 난 함께 파이프 포인트에서 자랐어.”

토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파이프 포인트라면 멀베리 밴드거리의 남쪽 끝에 있는 동네로, 멀베리 밴드가 그 악명을 물려받기 전까진 제일 위험한 곳으로 알려졌었다.

“우리 아빠는 매일 술에 찌들어 있었어.”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는 폐결핵으로 죽을 때까지 세탁 일만 해야 했고. 내가 매일 집에 돌아 올

때마다 아빠는 허리띠를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난 그게 무서워 도망쳐야 했지.”

알피가 얘기하는 동안 버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말했다. “내 얘기도 그보다 더 나을 게 없어. 부모님 두 분 다 술 때문에 돌아가셨거든. 내 누이도 힘들고 궂은일을 할 수 밖엔 없었어. 지하실 단칸방을 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서 지내는 것도 그럭저럭 괜찮아.”

“그래도 겨울엔 힘들어.” 알피가 덧붙였다.

“그렇겠지.” 토니가 말했다. “길에서 신문을 팔 때도 무지 추운데 말이야.”

겨울에도 길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토니는 목도리를 더욱 짝 여미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이었다. 토니의 가족이 가난에 찌들어 살아왔던 나날보다도 더 끔찍하게 굶주리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조금은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시도스키 공장에서 갑자기 내근 직원들을 모두 해고 해버렸던 것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토니는, 엄마가 그 소식을 가지고 집에 왔을 때 그녀가 풀이 죽어 있고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해고된 건 내근직원들뿐만이 아니었다. 철이 지나고 봄, 여름 의상은 모두 만들어져서 이미 수송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정규직원들마저도 가을, 겨울 의상을 만들어내는 시기인 3, 4월까지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해고되긴 마찬가지였다.

물론, 가족들도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미국에 정착한지 이제야 일년 정도 되어가고 있었기에, 아빠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처럼 그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계획해 놓은 게 있을 턱이 없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할 일들을 만들었다. 엄마는 조화 상자를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모두가 조화 조립 작업에 매달려야 했고, 신문팔이에 심부름, 장보기, 학교 숙제 등 할 일이 태산 같은 토니까지도 저녁에는 앉아서 꽃잎을 붙였다.

겨울에는 야구할 만한 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남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남는 시간에는 신문을 더 팔아야 했다. 그와 비니는 1주일에 3달러 이상

벌었다. 그것은 한 달 방값인 10달러를 넘는 액수였다.

아빠가 아직도 하는 일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특히 그 3 달러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가끔씩 아빠는 테이블에 앉아 조화를 만드느라 힘들어했다. 어떨 땐 방구석에 앉아 두툼한 팔을 접었다 폈다 동작을 반복했다. 집안에는 항상 식구들이 콧 차 있었고 공기는 심하게 눅눅해 있는데다가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누군가라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그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지겹고 짜증나게 만들 것이었다. 그래서 토니는 가정 내의 그런 팽팽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봄이 빨리 왔으면 하고 바랬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야 했다. 엄마는 전에 크리스마스 때에 쓸 돈을 모아 두겠다고 말했었는데 그 돈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신문을 팔아 번 돈도 거기에 모아 두었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엄마의 말이 들어맞았다.

페트로시노 가족들은 그랜드나 멀베리 가(街)에 있는 상점에서 장난감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진 않았지만 토니와 비니, 조이, 안젤리나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 나폴리 가게에서 사탕을 얻었다. 토니는 주시 후르츠 사탕을 특별 선물로 받았고, 비니는 레드 핫 달러스 사탕을 받고 좋아했다.

그들은 메스 가(街)에는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자주 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화 교회(Church of the Transfiguration)에는 아일랜드 사람들만 다녔고 엄마는 지하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이탈리아인 목사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들은 낮에 크리스마스 만찬을 준비 했는데 초대 손님으로는 루이지 마짜페리씨가 왔다.

“세상에,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모두 엄마가 음식 준비를 끝내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루이지씨가 갑자기 소리쳤다.

토니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상황을 주시했다. 그러나 그 때 엄마는 오븐을 열고 라자냐와 마니코티(역주 :파스타의 한 종류), 잘 구워진 듯한 냄새가 나는 리코타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시큼한 향을 풍기는 토마토를 꺼내고 있었다. 빵과 야채, 값이 비교적 저렴한 키안티(역주 : 이태리 와인의 하나) 한 병도 있었다. 모두가 음식에 탄복하고 나서 식사를 시작했다. 적어도 몇 분 동안은 이 작고 공기 안 통하는 방 안이 토니가 기억하는 한 최고로 조용했던 것 같았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자 마지막 코스가 남아 있었다. 바로 만테그나 빵집에서 사온 맛이 끝내주는 카놀리 디저트였다. 배를 채우고 난 후, 아빠가 동네를 산책하자는

제안을 하기 전까지 다들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같이 산책하는 데 동참할 미라벨리 부부, 파찌 부부, 아말피 부부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토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살을 반겼는데 결국 그들은 신문 배달 일에 대해 이야기 했다(그 때 토니는 명당자리를 다 익혀놓고 있는 터였다). 지난 몇 주간, 토니는 너무 바빠서 서로 볼 일이 거의 없었고, 게다가 살은 챔버스 동네에서 거의 오후시간에 신문을 팔았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일이 더욱 없었다.

“새해엔 널 만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살이 말했다.

“나도 그래.” 토니는 토마소는 어떻게 지낼까 생각하며 말했다. 그때 래그피커스 조직원들과 싸운 이후로 토마소와 웨이페어러 조직원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마침내 종소리가 울리고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 가운데 새해가 왔다. 미국에서의 새해, 그것은 그들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맞는 새해였다! 앞으로도 가차 없이 오게 될 새해이기도 했다.

봄이 오면서 겨울의 우울했던 날들이 녹아들었고, 봄과 함께 모든 일들에 속도가 붙었으며 가족들의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낮이 길어졌고 태양은 더욱 밝게 빛났으며 아빠는 도로를 놓는 노동일을 다시 시작했다.

피에트로 페트로시노는 집 안에만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다정다감해 졌고, 좀더 가족들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애정이 넘쳐났다. 여전히 늦게 귀가할 때도 있었지만 엄마가 화를 냈었던 일을 기억하는지 절대 술에 취하는 법은 없었다. 엄마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고되고 따분한 의상 수선 일을 다시 시작했다. 아이들은 계속 조화작업을 해 나갔으며 토니는 심부름일과 장보는 일을 했고 비니와는 여전히 신문을 팔았다.

이제 돈이 더 많이 생겼다. 그것으로도 아직 충분하진 않았으나, 최소한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길에 내쫓길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비니는 학교생활을 꾸역꾸역 해 나가고 있었지만 조이와 안젤리나는 열심히 하고 있었고 토니는 그 중에서도 훨씬 더 잘 해내고 있었다. 영어와 산수, 역사, 국내정치 및 애국심에 대해 배웠고, 6월쯤엔 그 해 가을에 7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토니는 뿌듯했다. 이제 그는 혼자서도 국기에 대한 충성을 외울 수 있었고 그 낭

송하는 말의 의미도 모두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와 살 또한 그런 토니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가을이 되면 8학년으로 진학할 것이다. 학년 말 쯤에는 어쩌면 토니와 살이 같은 학년에서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

9

토니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자마자 웨이페어러 조직이 다시 나타났다. 그가 동생들과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토니는 그들이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두 줄 사이로 걸아가면 흠씬 물매를 맞을게 뻔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 어쨌거나 쫓아와서 때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재빨리 비니와 조이, 안젤리나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한 후에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따랐다.

그는 서 있는 웨이페어러 조직원들에게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사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나갔다. 여기저기서 날아올 주먹을 각오했으나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자 깜짝 놀랐다. 그는 아무 일 없이 조직원들 사이를 뚫고 나갔던 것이다.

토니는 그 영문을 몰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자신을 노려보며 계속 서 있었다. 폴이 다가와 토니의 셔츠를 잡아 올리며 말했다.

“모두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고마워.” 토니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원래 이렇게 너그러웠니?”

“웃기지마. 이젠 우리 조직에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은데?”

폴은 토니의 셔츠를 놓아주었다. 토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기 스스로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한테도 무례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웨이페어러 조직원들이 다음번엔 그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랐다.

“미안해.”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웨이페어러는 갔다. 멀베리 가(街)의 사람들이 토니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토마소

도 남아 있었다.

“토니, 우리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글쎄, 친구라고.” 토니가 말했다.

“우린 친구가 될 수 없어. 너도 잘 알잖아. 토마소, 놈들이 네가 할 일을 다 일일이 얘기해 주니? 언제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를?”

“아니야. 그건 오해야. 그렇지만 조직엔 규칙과 목적이 있어. 나는 조직의 한 멤버고 그래서 받아들여야--”

“그럼 그렇게 해, 토마소. 그러면 되겠네. 그렇지만 나한테까지 강요하진 마. 난 너희 조직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우린 멀어지게 될 거야.”

“그렇지도 모르지.”

토마소(미국이름은 토미)는 그를 포옹했다. 그리고 그 역시 뉴욕으로 오는 배 위에서 추억을 간직한 채, 화창하고 분주한 멀베리 가(街) 한복판에 슬프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서 있는 토니를 두고 가버렸다.

이상하게도 토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웨이페어러 가입에 대한 계속된 그의 반항 내지는 거부가 오히려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든 것이었다. 그의 고집스런 결단력이 대단한 소신으로 비쳐진 걸까? 아니면 웨이페어러 조직의 기세가 한 풀 꺾인 것일까?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조직원들 중 누구라도 이제 그를 보면 정말로 상냥하게 굴었다. 기껏해야 고개 짓을 하거나 미소 짓는 게 다였지만 적대감 보다는 훨씬 호의적인 태도였다. 어쨌든, 당분간 토니는 걱정거리 하나를 덜게 된 셈이었다.

곧 여름이 왔다. 공기가 습기를 가득 먹고, 태양은 너무나 비좁은 공간에 들어 차 있는 사람들 위를 내리쬐었다. 아빠는 도로에서의 하루 노동으로 땀범벅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겨드랑이 밑은 반달 모양의 땀자국이 났고 이마에도 땀방울이 그렁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면 푹푹 찌는 아파트에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엄마” 조이가 말을 꺼냈다. “제발요. 엘리자베스에 급수전이 문을 열었던 말이에요. 거기 가고 싶어요.”

“조화 20여개만 더 만들면 가거라.”

엄마는 그 말이 얼마나 무정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지만 돈을 더 벌어야 하는 현실을 알기에 자신도 일에서 손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이제 방학이 되자 토니와 비니는 채텀 광장에서 신문을 팔며 더욱 길어진 오전을 보내고 있었다. 다른 누군가가 오후에 그 자리에서 신문을 팔았지만 토니와 비니는 그게 누군지 굳이 알아내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토니에겐 여전히 심부름일과 장보기 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는 야구경기도 계속해야 했다. 비니는 멀베리 가(街)와 그랜드 가(街) 모퉁이에 있는 스테이빌 은행에서 시간제 배달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토니에게, 그 해 여름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정을 쌓는 일만이 의미를 지닐 뿐이었다. 그것은 알피나 버즈, 토마소와의 우정이 아니라, 새해가 되면 그를 더 자주 보고 싶다고 한 살과의 우정 이었다.

토니가 펄펄 끓는 냄비 속 같은 아파트 5호를 뛰쳐나올 수 있는 저녁에는 살을 만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다.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도 사탕가게나 카페를 배회하고 여기저기 들러서 탄산음료나 에스프레소 내지는 리코타 치즈 케익 한 조각을 먹곤 했다. 그들은 신문을 팔거나 다른 잡일을 해서 받은 돈을 그 용돈으로 썼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꼭대기 층으로 앞 다투어 올라가곤 했다.

아주 더웠던 그 해 여름 밤마다 세 들어 사는 아파트에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기껏 있는 창문도 그 바로 밑에서 잠을 자지 않는 이상 별 도움이 되질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매트리스나 잠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침구류 등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아말피씨네 가족은 2층에서 올라와야 하는데도 페트로시노 가족과 함께 언제나 먼저 지붕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들 가족만의 자리로 특정 공간을 차지했다. 자식이 세 명이 딸린 식구라 아말피씨네도 페트로시노 가족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긴 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그 두 가족은 자리 경계 없이 아무렇게나 누워서 잠을 잤다. 수많은 별 아래서 자다보니 그들 자신들도 별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 마냥 같은 동지가 된 기분이었다.

토니와 살은 종종 비상계단과 물탱크 사이에 그들만의 공간을 찾아 지붕 난간에 발을 짚고 누워서 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쳐다보았다.

어느 날 밤엔가 살이 물었었다.

“우리가 카페에서 들었던 노래 말이야. 그 노래 듣고 뭐 떠오르는 거 없었니?”

“난 고향이 생각나던데. 벌써 너무 오래 전 일처럼 느껴져.” 토니가 대답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살이 말했다.

“나도 그래.” 토니가 맞장구를 쳤다.

“이탈리아에서 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떠돌아다니는 한 우주 생명체였을 뿐이었지. 그런데 여기서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된 거야.”

토니가 웃음을 터트렸다.

“그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그래. 그래도 난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나도 그래, 토니는 생각했다. 나도 그래, 나도 꺾이 있어. 희망이 있지. 하고 싶은 게 있어. 살과 열띤 대화를 하던 그 많은 여름날밤에 토니는 내면에서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에게겐 꺾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

그러나 개학이 되자 다시 학교로 나가야 했고, 눈 깜짝 할 사이에 겨울이 금새 다시 한 번 찾아올 듯 하였다. 그러면서 아빠는 또 일을 쉬게 되고 집에 들어앉아 식구들을 괴롭게 만들었다. 엄마 역시 수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온 식구는 또 조화 만드는 일에 더욱 몰두해야 했다.

토니는 신문을 더 많이 팔려고 애썼지만 팔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전 생활이 언제까지 갈까? 그는 걱정스러웠다. 양이 없고 겨울이 오면 분이 폭 때까지 허둥대는 이런 끝없는 절망의 굴레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 걸까?

토니가 잊어버리기라도 할까 봐 래그피커스 조직은 잇을 만나면 나타났다.

어느 추운 1월 아침, 토니와 비니가 채텀광장에서 신문을 팔고 있던 때였다. 그들이 손에 입김을 후후 불면서, 발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바닥에 발을 동동 구르며 나타난 것이었다. 신문을 서서히 다 팔아가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재수 움 붙은 놈아, 여기 좀 보시지, 일간이 같은 놈!”

토니는 길 건너편을 보았다. 어깨에 온 힘을 다 주고 있는 듯한 래그피커스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검정색 옷이 잿빛으로 물든 오전 날씨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다.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러지? 토니는 정말이지 궁금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을 던져 봐야 대답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아주 슬로모션으로 길을 건너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토니는 서둘러 신문을 팔았다. 그리고 또 팔았다.

“비니, 여길 어서 빠져나가. 나도 곧 뒤따라 갈 테니까.”

비니도 래그피커스가 오는 게 보였다.

“형, 나도 여기 있을게.”

“안돼, 어서 가. 어쨌든 이건 내가 부딪혀야 할 일이야.”

비니는 뒤를 돌아보며 갔다.

히키는 다시 한 번 부하들을 데리고 본전도 못 찾을 일을 하러 왔던 것이다.

토니는 건들건들하게 서 있는 그의 부하들과 히키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신문 하나 줘봐.” 히키가 말했다.

신문이라고? 토니는 의아해 했다. 신문이 몇 부 남아 있어서 한 부를 건네주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히키는 트리본지를 겨드랑이에 끼고 동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신문 값은 여기 있다, 얼간아.”

토니는 굴러가는 동전을 신발로 밟아 세웠다. 히키는 토니를 등지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사라졌다.

토니는 그들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소한 히키가 신문을 훔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토니는 동전을 주웠다. 그러니까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일 뿐이었다. 결국 이 일을 끝내기는 할 것인가? 강가에 있던 소년에게 했던 방식으로 이 일을 끝낼까? 토니는 공포에 떨며 지내야 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3월 18일이 되자 그는 14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다. 미국에 사는 여느 소년들처럼, 그는 초코 아이스크림이 얹어진 초코 케익을 먹었다. 엄마가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 주어서 그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6월, 토니와 살은 같이 8학년을 졸업했다.

토니의 담임인 오 브라이언 선생님이 토니가 졸업시험에 통과했다고 했을 때, 토니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정말로 졸업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살은 현실을 확인시켜주고자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토니도 살의 옆구리에 알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학교를 떠날 때, 토니는 오 브라이언 선생님에게로 뛰어갔다. 그녀는 토니와 악수를 하고나서 말했다.

“너도 잘 알겠지만 말이다, 토니, 너만큼 이렇게 빨리 졸업한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

토니는 미소를 지었다.

“난 네가 졸업을 해서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 그녀는 말을 계속 이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토니는 그런 그녀의 말을 가슴속에 새겼다. 과연 그녀가 토니가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녀는 그런 말은 없었다. 그는 물어보기가 두려웠다. 그의 차례가 다 되고 그녀는 다음 학생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토니는 그 자리에서 나와 그의 동생들을 찾고서 자신이 졸업시험에 통과했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 선생님의 말씀은 형이 학교를 이제 그만 다녀도 된다는 말 같아.” 비니가 말했다.

토니는 요점이 어디로 흘러갈지 뻔했기 때문에 응수하지 않았다.

“그래 비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토니는 엄마에게 졸업을 하게 된 소식과 오 브라이언 선생님이 한 말을 전했다. 엄마는 감격했다.

“*magnifico*(잘됐네). 토니오,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 기술학교도 있고. 자선협회에서 하는 공부도 있으니까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니?”

토니는 입이 벌어졌다. 아빠가 뭐라고 할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몇 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졸업식이 열렸다.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하고, 미 국기가 연단 위에 달려 있었으며,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졸업장이 수여 되었다. 모든 학생들이 연단 위로 줄지어 올라갔고 교장 선생님과 악수를 했다.

토니는 졸업장을 받고 연단을 내려오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 '별이 빛나는 깃발(The Star-Spangled Banner)'을 부를 때에는 완전한 미국인이 된 것 같았다. 그와 같은 학교를 나서며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은 학교를 나와 사회에서도 같은 소속이 될 것이다.

그때가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 볼 최적의 시기였다. 토니는 그 날 밤, 저녁식사 내내 기다렸다. 저마다 말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통에 너무 시끌벅적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들 조화를 만드는 일을 하기 전에 다른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식탁엔 아빠만 남게 되었다.

토니는 아빠를 마주보고 앉았다.

“아빠, 오늘 제가 8학년을 졸업했어요.”

아빠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실눈을 뜨고 말했다.

“잘 했구나.” 그는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이제 온 종일 일만 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토니는 온 몸에 힘이 빠졌다.

“그렇지만 아빠,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제 담임선생님이....생각하는 건...공부를 좀 더-----”

“학교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토니오. 이제 너도 나처럼 하면 된다. 일을 하는 거야. 신문 파는 일을 정식으로 해라.”

“아빠, 그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 했어요. 그건 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가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게다, 토니오. 뭐가 더 필요한 거냐.”

“전 가족을 위해 힘썼어요. 전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토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무지한 채로-----”

“뭐라고?” 얼굴을 붉히며 아빠가 소리쳤다.

“지금 나보고 무지하다고 했냐? 네 아비보고? 됐다! 일만 하도록 해.”

토니의 가슴이 울컥 거렸다. “안돼요!” 그는 소리치고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가 손잡이를 돌리면서 뒤를 돌아보자 아버지의 이글거리던 눈이 다른 곳을 향했다. 토니는 계단을 내려갔다.

토니는 몇 시간 동안이나 현관 계단 앞에 앉아있었다. 카페근처에 있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멀베리 가(街)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잡담 소리들, 술잔과 커피 잔이 부딪히는 소리를 감상하고 있었다. 사람들도 모두 같이 모여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있었다. 모두가 이렇게 더운 6월의 초여름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미국은 그에게 더 가라고, 더 하라고 손짓하지만 아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딜 가서 무얼 한단 말인가? 아빠의 허락이 없으면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이다. 가족을 잃게 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아빠가 그를 여기로 데려 온 것이고 그 대가로 그는 그에게 존경과 충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쳐야 한다. 설령, 교육으로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믿는다 해도 그는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밝고 스스럼없는 멀베리 가(街)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그는 테지아노 출신 이탈리아인의 아들이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아빠가 그와 다시 대화라도 해 줄 것인가? 그는 자신의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에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토니는 천천히 계단 위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층이 더 많아보였고 어둡고 냄새도 더 나는 것 같았다. 전에는 무심코 그 계단 위를 오르내렸었는데 지금은 각 층마다 멈춰 서서 호흡을 멈추어야 할 지경이었다.

마침내 5층까지 다다르자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두렵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갈 곳은 아무데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 알피나 버즈처럼 혼자 내버려진, 아무것도 없는 거리의 소년이 되었을 것이다.

토니는 문을 열었다.

아빠는 지금도 아까 전 그가 문을 박차고 나올 때 보았던 부엌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이번엔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아 있어서 현관문에서 흰 러닝셔츠를 입은 넓은 등이 보였다. 다른 식구들은 아빠 둘레에 앉아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자기 몫만큼 조화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아빠, 죄송해요!” 토니가 소리쳤다.

아빠는 바닥에 굽히는 소리가 나도록 의자를 뒤로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고개를 돌리면서 무표정하게 방 가운데에 떨거니 서 있는 토니를 바라보았다.

토니는 그런 아빠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아빠 말을 들어야 했어요. 정식으로 신문 파는 데에만 열중하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는 무릎을 꿇었다.

아빠는 그런 그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커다란 팔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괜찮다. 토니오. 용서했어. 다 같이 힘을 합해보자꾸나.”

그러면서 모두가 정말로 다시 화목해졌다. 토니는 엄마와 비니, 조이와 안젤리나를 안고 조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 같이 모여 앉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일이 조용해졌다고 생각할 때 쯤, 토니는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을 깨닫고 놀랐다.

엄마는 커다란 보라색 장미꽃 너머로 바라보며 말했다. “토니, 네가 나간 동안에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단다.”

빈센조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스테이빌 은행에서 하루 종일 배달꾼으로 일하고 싶어 했다. 그 은행 사람들은 빈센조를 좋아했고 급여도 괜찮았다. 그는 12살이 아니라 14살이라고 말을 했으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학교에는 학생들로 넘쳐나서 그가 빠져도 모를 것이다. 기세프는 시장 보는 일을 하게 되었고 안젤리나와 함께 엄마를 도와 방과 후 또는 여름방학동안에 조화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토니가 정식 신문팔이가 되기로 하면서 아빠는 그를 용서했고 다음 주부터는 토니와 같이 일 할 파트너는 없게 되었다.

엄마는 이 얘기를 꺼내는 동안 슬픈 표정을 지었다. 토니가 얼마나 더 배우고 싶어 하는지 누구보다 그녀가 더 잘 알기 때문이었다.

토니는 미소를 지었다. 저녁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비니와 나눈 대화가 끝난 후라 이제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란 고작해야 이런 것이었다. “신문팔이가 되고 싶었던 건 바로 비니였는데 말이죠.”

“살바토레에게 가서 같이 일하자고 말해 보는 게 어떨겠냐?” 아빠가 말했다.

“지난주에 그 애 아빠하고 카드를 했는데 말이야. 그 애가 그 일에 적성이 맞는 것 같더구나. 같이 일을 하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미 계획된 일에 넘어간 것이었나? 토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았다. 살과 같이 일하고 매일 얼굴을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조차도 그는 모든 게 다시 궁금해졌다. 왜 하필 신문을 팔

아야 하지? 뭔가 다를 일을 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분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토니는 그가 과연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걱정하며 천장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또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선택을 하게 될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오후, 그는 나폴리 가게에서 살을 발견하고 쫓아갔다. 그 곳의 소유주인 시그노어 베네벤토가 최근에 베수비어스 산 (역주 :이탈리아 서남부, 나폴리 부근의 **화산**)을 솜사탕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창가에다 진열해 놓았다. 모두 보라색과 금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살이 테이블에 앉아 그 솜사탕 조각을 보고 있을 때 토니가 들어갔다.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엉터리 같지?” 토니가 물었다.

“그래.” 살이 대답했다. “그런데 내가 널 처음으로 여기에 데려 온 게 생각나. 네가 미국에 처음 온 날 밤이었지.”

“그때의 나라면 저 조각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몰라.” 토니가 말했다.

“나도 멋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살이 동의했다.

“왜 이젠 무엇을 봐도 기쁘지 않은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린 단지 이제 현실이 뭔지 알게 된 것 뿐이야.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잖아.”

“그 애길 우리 아빠한테 가서 해줘.” 토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살은 토니를 가까이서 바라보았다. 토니는 자리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얘기를 마치고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너도 정말 정식으로 신문팔이 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런 거라면, 그 일을 같이 하는 게 좋겠어. 언제나 같이 일하고 싶어 했으니까.”

“응, 같이 일해보자.” 살이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빠들이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나자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졌다.

월요일 아침 들은 현관문 밑에서 만났다. 토니는 언제나처럼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갔다. 예전에는 이런 새벽에 계단을 내려갈 때는 좀 조용히 내려가려고 해 본격적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 아파트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으며 뼈가 빠지는 노동의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토니도 이제는 안다.

무슨 일을 벌이려는 음모자들처럼, 토니와 살은 새벽도 되기 전에 질게 깔린 어둠속을 살그머니 걸어가서 그들이 항상 해오던, 그러나 이제는 둘이 파트너가 되어 같이 일을 했다. 이제는 제법 경력 있는 신문팔이인지라 오전에는 채텀광장에서 신문을 팔고 오후에는 살의 구역이었던 챔버스 가(街)에서 팔았다.

트리본 배급소에서도 그들은 줄 맨 앞쪽에 서 있었다. 알피와 버즈는 없었다. 토니는 한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는 살에게 혹시 그 애들을 아냐고 물었다.

“알 것 같아. 마르고 금발인 애하고 키가 작고 검은 머리의 애 말이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던?”

“맞아, 개네들이야.”

“친절하고 항상 상냥했었지.”

“그래, 잘 됐네.” 토니는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길 바라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봐야 소용없었다. 설사 그 애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누가 알겠는가?

토니와 살은 그 날의 신문을 들고 생각지도 못했던 성공을 거두었던 채텀 광장을 향했다. 이젠 신문장사에 도가 튼 그들은 ‘마지막 신문’ 작전과 알피가 가르쳐준 ‘특효약’이라는 방법도 써 먹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헤드라인을 그렇게 잘 만들어본 일은 없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6월 1일, 홍수가 터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익사했고 펜실베이니아 주의 존스타운 전역에 걸쳐 선로와 전선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자세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으므로 헤드라인을 열심히 떠들어댄 결과 판매율이 최고였다.

“존스타운의 대 재앙! 약 만 여명 사망!”

그와 동시에, 미 국무부 장관인 제임스 G. 블레인이 사모아(Samoa) 국과 미 협정을 연기시키기로 했다. 치프 레드 클라우드(Chief Red Cloud)가 미국 정부에게 땅을 더 쥐야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사인을 거부했던 것이었다. 크로닌이라는 박사가 시카고에서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14번 가에 있는 이메쿨리트 컨셉션(Immaculate Conception) 교회는 번개를 맞기도 했다.

토니와 살은 헤드라인 기사를 번갈아가며 말했다. 토니가 존스타운이나 제임스 블레인, 또는 치프 레드 클라우드 기사를 소리치면 그 다음엔 살이 그 기사를 소리내어 읊었다. 그러나 존스타운 기사를 제외하고 가장 잘 팔린 기사는 크로닌 박사의

죽음과 몰락한 교회였다. 흔히들 사람이 살해되었다고 하거나 재앙이 닥쳤다고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마련이었다.

오전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 무렵, 신문을 다 팔았다. 의기양양해진 그들은 일을 멈추고 샌드위치와 탄산음료를 사먹고 챔버스 가(街)로 갔다.

오후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사람들은 직장에 있었고 신문을 사러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퇴근시간인 러시아워엔 다시 바빠졌다. 그들이 마침내 어두워지기 바로 전에 일을 마치게 되자 토니와 살은 두 번째 신문을 가져다가 모두 팔아서 텃을 포함해 한 사람당 80센트씩을 벌었다.

그 시간동안에는 뭔가 다른 걸 해 보겠다는 생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멀베리 가(街)에 다다르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뭔가를 쳐다보고 있었으나 그게 뭔지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토니와 살은 사람들을 밀며 가까이 다가가 길가에 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말은 옆으로 누워 있었고 말이 끌던 마차의 끈에 다리가 위로 매달려 있었다.

이런 일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뉴욕 시에서는 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했거나 노령이 되어서 한 여름 더위나 한파 내지는 폭설로 인해 매일 죽는다. 보통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서 공중 위생부에서 나와 수레로 실어가기 전까지는 쓰러졌던 곳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거리에 악취를 더해주는 요인이 되었다.

오히려 이상한 건 채찍을 휘두르는 남자였다.

그는 이미 죽은 말을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록 채찍으로 계속 때리고 있었다. “일어나!” 그가 소리쳤다. “일어나란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으니! 배달을 마저 해야 된단 말이다!”

또다시 채찍이 가해졌다. “왜 그러는 거야?”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의식하는지 마는지 그 가련한 남자는 소리쳤다.

갑자기 채찍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를 데리고 갔다.

사람들 사이에 한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한동안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마치 그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아까 그 상황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듯 했다. 잠시 후, 사람들은 다 같이 자리를 뜨며 멀베리 가(街)

의 사람들 틈 사이로 사라졌다.

토니는 무슨 말을 하려고 살을 쳐다보았다. 살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날 밤 집에서 엄마는 시그노어 비온도에 대한 얘기로 설 틈이 없었다. 그 가없는 부인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 보아야할 정도라고 했다.

비니는 그냥 스테이빌 은행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제야 토니일이 생각났는지 토니를 보고 말했다. “참, 나 없이 해보니까 어땠어?”

토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주 좋았어. 너와 신문을 팔고 얻은 판매수익 기록을 켜지.” 무심한 태도라기 보다는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했다.

“오, 잘됐네.” 비니가 말했다.

그러나 토니는 이 대화에 별로 흥미가 없었으며 살과 일한 첫 날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다. 아무 힘없는 살집 위에 계속해서 내리쳐지던 채찍의 형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두렵고 가난에 찌들어 미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토니는 배게 속에 머리를 파묻었다. 거의 잠이 들려고 할 때쯤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 번 뇌리를 스쳤다. **희망, 희망, 희망.** 그는 이제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헛된 희망을 걸어보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말이 없어진 걸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11

토니와 살은 그 말 사건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대신 힘을 합쳐 채텀광장과 챔버스 가(街)를 돌며 신문을 팔았다. 매일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하루가 다르게 호흡이 잘 맞아갔다.

“특종이요! 특종! 읽어 보세요! 새 시청 건축계획이 시청공원을 파괴 한대요!”

머지않아 그들은 하루에 각각 90센트씩을 벌었고 그 다음엔 95센트까지 판매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더 오랫동안 낮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서 밤 시간에도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어른 몫의 일을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나 여름방학동안 잠시 일하는 애들이 아니라 독립할 수 있는 권한과 그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 밤마다 토니

는 엄마에게 번 돈을 주었지만 얼마씩은 자신의 몫으로 남겼다. 가족이 나머지 돈을 가져갈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었다.

자신의 몫이 생긴 첫날 저녁에 토니와 살은 밖으로 나와 전에 즐겨 갔던 곳을 찾았다. 그들은 사탕가게, 카페, 그리고 커피 하우스 등을 들러서 멀베리 가(街)를 따라 있는 테이블에 앉아 쉬며 몇 시간을 보냈고, 전에 지붕 위에서 보냈었던 것처럼 여름밤을 즐기며 현실 가능성이 없는 미래에 대해 상상을 해 보았다. 이제 그들은 이웃 어른들, 이를테면 윗동네에 사는 성격 좋은 사람들, 선원들과 점원들, 변호사나 행복에 젖은 부부들과도 사귀었다.

“난 트리본 사를 소유하고 말거야, 두고 봐!” 토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난 너와 함께 트리본 사를 소유하겠어!” 살이 소리쳤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크로스바이 가(街)를 지나가다 보았던 선술집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거기 한 번 가볼까?” 살이 말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넌지오네 한 번 가 보는 게 어때?” 토니가 말했다. “웨이퍼어가 거길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 항상 궁금했었어.”

“싸우려고?”

토니는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아니. 난 개들한테 아무런 감정 없어.”

살이 웃자 토니도 따라 웃었다. 커피 계산을 마치고 출발했다. 넌지오네 가게는 엘리자베스 거리를 지나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문을 밀어 쫓히고 술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구조가 길고 좁았으며 무슨 정원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벽은 장미 덩굴로 덮여 있었고 뒤에는 페인트로 하얀색 말뚝 울타리가 그려져 있었다. 테이블엔 온통 장미꽃, 데이지, 백합꽃이 놓여 있었다. 술집 한 가운데에는 큐피드가 있는 돌 분수가 있었고 분수대 꼭대기에서는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고주망태가 된 사람들과 천장 위로 보이는 자욱한 담배 연기가 주는 분위기는 참으로 신기하게만 보였다.

토니와 살은 벽을 등지고 있는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았다. 웨이터는 쳐다보지도 않고 주문을 받았다.

“저는 헬 게이트로 주세요.” 토니가 말했다.

헬 게이트는 유명한 지역 맥주이름이었다.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살이 말했다.

토니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보이는 건 전부 이탈리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술집을 딱 메우고 있었고 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다른 이들에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주문한 맥주가 오고 그들은 술잔을 부딪치며 마셨다.

“저쪽에 웨이페어러 조직원이 두어 명 보이는 것 같은데.” 살이 턱으로 그들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풀은 아니고 서너 명 되는 것 같아.”

“토미도 보이니?” 토니가 물었다.

살은 다시 그 쪽을 힐끗 보고는 말했다.

“아니, 없는 것 같아.”

토니는 안도의 숨을 쉬고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들은 인상을 쓰며 손을 흔들었다.

토니와 살은 맥주를 더 시켰고 깡패 조직과 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엔 긴장이 되었다.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 토니가 물었다.

살은 테이블 위로 몸을 젖혀 손을 토니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감옥행이지.”

그들은 서로 웃고는 맥주 한 모금을 들이켰다.

그때 어디서인지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며 뒤쪽에 있는 무대 위로 급하게 올라갔다.

그 사람은 남자였는데 검정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웨이터 복장을 하고 있었고 영국 스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빙빙 돌리며 탭 댄스를 추고는 갑자기 ‘달빛이 비치는 저녁(In the Evening by the Moonlight)’의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곡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박수를 기다렸다. 토니와 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크게 박수를 쳤다.

그는 매우 뿌듯한 것 같았다. 그는 씩 웃고는 지팡이를 한 번 더 휘두르고 스텝

을 밝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윗동네엔 대저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네.
값비싼 현관문에 높고 넓은 계단으로 둘러싸여.
아랫동네엔 가난에 찌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네.
허름한 창고와 지붕 밑에 양떼처럼 엉켜서.
윗동네는 칠면조에 포도주에 거북고기, 파이를 먹지만,
아랫동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너무나 조출하여
저녁도 거르는 일이 다반사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바지를 내렸다. 그의 실크 속옷엔 빨강고 금색인 달려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웃고 손뼉을 쳤지만 토니는 사람들이 웃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난이 그렇게 비참한 것이라면 왜 그걸 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드는 걸까?

“과연 웃어야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 그는 살에게 말했다.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살이 말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커피숍과 카페, 그리고 사탕 가게 등을 돌아다녔고 어느 오후 늦게는 집을 향해 브로드웨이 거리 위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뉴 오리엔탈을 지나게 되었다.

건물 밖에는 커다란 화포가 걸려 있었는데 한 아름다운 터키 여인이 비즈와 부드러운 실크로 몸을 감싸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하인이 서 있었는데 차양을 쳐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나도 저곳에 가보고 싶다.” 토니가 말했다.

살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왜?”

“이국적이잖아.”

“우리가 사는 곳도 충분히 이국적이지 않니?”

“아니.”

그날 밤 그들은 뉴 오리엔탈로 갔다. 그 화폭은 어둠속에서 더욱 빛이 났고 입구는 보라색 제복을 입고 머리에는 터번을 두른 도어맨이 지키고 있었다. 문지기 앞

을 살그머니 지나치자 커다랗고 우아하게 생긴 술집 측면이 보였다.

벽엔 불빛이 바람에 깜빡이는 가스램프들이 달려 있었고 천장엔 다채로운 빛깔로 오려진 종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어여쁜 웨이트리스들이 건물 밖에 걸려있는 화폭의 여인처럼 똑같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서 넥타이와 양복을 입은 신사들에게 술 주문을 받고 있었고, 관악 악대는 피아노에 맞추어 연주하고 있었다.

토니와 살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여기가 바로 '윗동네 세계' 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랫동네 사람들'이었다. 그것만큼 그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표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만 했잖아!” 나폴리로 돌아가는 길에 토니가 소리쳤다. “거기 가봐서 좋았다고!”

“왜? 거기가 왜 가 볼만 한 곳이야?” 살이 물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 토니가 대답했다.

그들은 점점 대답해졌다. 정확히 말해서 대답해진 건 토니였고 살은 그냥 토니를 따라다녔다. 술집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극장이라는 곳도 알게 되었다.

로워 이스트 사이드 전체에 극장이 있었다. 보웨어에 있는 독일식 극장과 아일랜드 극장들은 빠르게 이디시어로 공연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고 이탈리아 타운에 있는 극장에서는 이탈리아어로 공연했다. 멀베리, 스프링, 엘리자베스 가(街) 에서도 극장문화의 싹이 돌아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상점극장들이 생겼다. 그곳에서 셰익스피어 작품과 광대극, 통속극, 인형극 등이 모두 이탈리아어로 공연되었다.

토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토니에겐 그 곳에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와 살은 엘리자베스 가(街)에 있는 사탕가게로 향하다가 리엔치 떼아트로 이탈리아노 극장 밖에 있는 사람들 틈으로 달려갔다. 공연이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연극을 보려는 사람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들어가고 싶니?” 토니가 물었다.

대답은 뻔했다. 그들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극장 앞에서 10센트를 내고 들어가 벽에 붙어 있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자리 두 개가 비어있는 걸 발견했다.

극장 안은 접는 의자로만 채워진 작은 직사각형 구조였으나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노동복을 입은 남자들과 페전트(peasant) 망토를 걸친 여자들, 갓난

아기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부, 그리고 청년들 여럿이 왔거나 혹은 혼자 온 사람들도 보였다. 그들은 극장에서 먹을 파스타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오기도 했고 길에서 파는 구운 감자나 뜨거운 옥수수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앉아 있는 줄에서 다른 줄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서로 소리치기도 했다.

작은 무대 위로 막이 오르자 극장 안의 불이 꺼졌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육을 먹지 않기 위해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었다. 연극을 보기에 바빴기 때문에 토니는 극장 안 분위기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슬픔에 젖어 반쯤 정신이 나간 한 부인이 12년 전 나폴리에서 선원들에 의해 납치당한 딸을 찾기 위해 묘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양손을 마주 잡고 뒤틀었다.

한편, 그 딸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녀를 납치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막기 위해 그녀에게 약을 먹인 다음 묘지에 버렸다. 그러나 결국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녀를 찾아냈다.

막이 내리자, 사람들은 모두 갈채를 보냈다. 토니는 이탈리아 사람들(*compaesani*)에 둘러싸여 가슴이 벅차올랐으나 그의 삶과는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될 수 없는 연극상황에서 이내 벗어났다.

그는 살을 힐끗 보고 말했다. “연극이 맘에 들었니?”

“너는?”

“난 맘에 들었어.” 토니는 살이 다 묻기도 전에 대답했다. “이탈리아와 미국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잖아!”

울다가 웃게 만드는 멜로드라마는 토니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였지만 간혹 현실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연극도 좋아했다. 예를 들면 못되게 괴롭히던 남편을 죽인 죄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 이민 여성을 다룬 것이나 가난에 심하게 찌들다 폭풍우 속에 두 아이를 고아로 만들고 죽은 여성을 다룬 이야기 등이었다.

그 때 토니는 벅스터 가(街)에서 그랜드 듀크 극장을 발견했다.

그곳은 벅스터 듀드라는 갱단의 베이비페이스 윌리라는 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피를 부르는 천둥(*blood-and-thunder*)’라는 극을 썼고 대부분 사람들을 강탈하고 죽이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들은 무대를 비추기 위해 유리 막을 씌

은 6개의 등유램프를 사용했고, 관객석엔 두 개의 발이 달린 벤치들을 놓았다.

토니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접 사다리 위에 올라가거나, 위에 앉을 수 있게 마련된 마분지 박스위에 앉아서 소리를 크게 내지르며 연극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벅스터 듀드 조직이 래그피커스 조직과 둘도 없는 라이벌이라는 사실은 토니가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는데 한 몫 했다. 필시 래그피커스 조직은 다시 나타날 것이었다. 해리 히키와 베이비페이스 윌리가 복도에서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들중 누구든 간에 흠뻑 두들겨 맞는 상상은 토니에겐 더 없는 즐거움이었다.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

그랜드 듀크 극장으로 가는 일은 토니를 훨씬 더 과감해지도록 만들었다. 그는 살에게 14번가와 유니온 광장에 있는 토니 페스토의 오페라 하우스에 가자고 했다.

그때는 그야말로 무더운 여름 밤 이었다. 그들은 그 기분을 만끽하고 싶지만 되도록 침착하게 브로드웨이 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들 가족들 중 누구도 그 유명한 토니 페스토에 가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너무 흥분이 되고 들떠 있어서 생각했던 것 보다 빠르게 걸었다. 그들은 결국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그들의 주머니 사정에 비추어 큰 돈 이었던 25센트를 지불하고 위층에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그 정도 높이에서 무대를 내려다보니, 아래층에 빼곡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자와 실크 드레스, 신문팔이 소년들이 즐겨 쓰는 야구모자와 멜빵바지를 입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살은 모자를 벗으면서 말했다. “토니,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 같아.”

그 말에 토니도 동의했다.

그들은 밴조 (역주 : 미국 먼요나 재즈 따위의 경쾌한 음악의 반주에 쓰이는 현악기의 한 가지)를 들고 와서 ‘오, 수잔나’ 노래를 부르는 흑인 남자를 보았다. 그는 마술사 한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마술사는 스카프를 사라지게 만들고 마술 도우미 여자를 반 동강 내는 마술을 보여 주었다.

다음 차례로는 매기 클라인이 등장 했는데 사회자는 그녀를 ‘아이리쉬 맥’ 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길고 빛나는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다. 블랙 미니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부채를 들고 있었다. 관객들이 환호하자 그녀는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고는 외설스런 내용의 ‘호간이 집세를 낼 때(When Hogan Pays the Rent)’ 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녀가 너무나 힘차게 노래를 불러줘서 맨 뒷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가

사를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노래를 마치자 뒤이어 권투경기 버전의 '그를 부셔버려, 맥클로스키' 라는 노래를 불렀다.

토니는 그 공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살도 완전히 매료를 당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 토니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아마 그녀의 목소리가 아닐까.” 살이 대답했다.

“난 그녀의 머리카락이 예쁘던데.” 토니가 말을 이었다. “이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머릿결은 처음 봤어.”

두 소년들은 싸구려 술집과 저속한 살롱, 매춘구역이 밀집한 보웨리를 피해 시내 쪽으로 걸어갔다. 8월이 되자 6월 중순 때보다 더 덥고 습해져서 쉽게 지쳤다. 토니는 빨리 집에 가서 토니 페스토 극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고 '아이리쉬 맥'에 대해, 그리고 그가 보낸 오늘의 일을 다 설명해 주고 싶었다. 아빠는 비웃을 것이 뻔했지만 엄마는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비니, 조이, 안젤리나는 눈알을 희번덕거리며 열심히 들을 것이다.

토니와 살은 멀베리 가(街)에 도착해서 나폴리가게에서 시계를 보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다. 거의 11시가 다 되었던 것이다. 토니는 그가 본 것을 다 설명해 주려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분명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보게 될 살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가족들이 전부 지붕위에 올라가 있을까? 그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5층 난간까지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앞방과 중간 방 사이의 문이 닫혀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깨닫고 놀랐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본 적이 없는 소파위에 그가 잠옷으로 입는 반바지와 셔츠가 흩어져 있었다.

12

토니 앞에 닫힌 문은, 아빠와 말다툼을 했던 그날 밤에 느꼈던 것처럼 토니를 가

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종의 끔찍한 장벽처럼 다가왔다. 소파 위에 펼쳐진 그의 옷은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고 웬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그의 잠옷은 마치 있어야 할 곳에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또한 버려진 걸까? 아무도 앞 방에서는 자지 않았다. 엄마가 벽에는 십자가와 달력을 달아놓았고 캐비닛 위에는 레이스달린 깔개도 놓아 항상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해 놓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공간은 가족들이 일하고 식사를 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소파는 그 위에서 잠을 자기엔 턱없이 비좁았다.

중간 방문이 열렸다. 엄마가 문을 열자마자 다시 뒤로 문을 닫았다. 어두운 불빛으로 엄마의 뺨은 머리하며, 그녀가 입은 잠옷이 바닥에 끌리는 걸 보면서 너무 왜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니오, 늦었구나.”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살과 함께 토니 페스토에 다녀왔어요, 엄마!” 토니가 말했다. “거기서 마술 쇼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가수가-----”

그는 넋을 잃고 말했으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엄마, 어떻게 된 일이지? 제 잠옷이 왜 여기 있나구요! 그것도 소파위에요!”

엄마는 입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다.

“췌, 토니오. 목소리가 너무 커. 아빠가 하숙인을 받았단다. 프란체스코 카슬라마레 라는 사람이야. 우리 고향사람이고 아빠와 함께 도로 놓는 일을 하신단다.”

“하지만, 엄마! 제 옷을 보세요! 저는 도저히-----”

“네가 이해하려 무나, 토니오.”

그녀는 반바지와 티셔츠를 소파에서 걷어 소파 위에 걸치고는 소파위에 토니와 같이 앉았다. 잘 하면 당분간, 어쨌면 더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야 할 것이다. 엄마는 토니에게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언제나 돈이 궁했다. 그들은 프란체스코가 테지아노 사람이라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는 성격이 꽤 괜찮은 젊은이였고 일도 성실히 잘 했다. 토니는 확실히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제일 끝 방에서 빈센조, 기세프와 한 방을 썼는데 그 방 말고는 그가 그나마 편안하게 있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는 소파에서 지내야 했다. 그녀도 마음이 불편하고 토니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소파에서 자기엔 너무 비좁단 말이에요, 엄마!”

“토니오, 그래도 네가 잘 적응할거라고 생각한다. 꼭 그럴 거야. 여기 사람들 모두 하숙인을 두고 있어. 우리도 조금 더 일찍 세를 줄 생각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지난주엔 5달러 이상이나 벌었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빤 널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토니오. 네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아빤 일거리가 없는 겨울을 걱정하고 있지. 프란체스코는 좋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인 건 우리로서도 참 운이 좋은 거야.”

이젠 아무 소용없었다. 아빠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왜 저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오늘 오후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어. 저녁때 너에게 말할 작정이었는데 내가 살바토레를 만난다고 서둘러 나갔잖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알았어요, 엄마. 알았다구요 ”

엄마는 일어나서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다.

“고맙구나, 토니오. 네가 이해해줄 줄 알았다. ”

그녀는 중간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 뒤로 방문을 닫으려 했다.

“엄마, 공기가 좀 통하게 해 주세요.”

엄마는 문을 열어두었다. 이제 장벽은 없었다.

토니는 복도에 있는 축축한 화장실로 가서 어두운 앞방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이 방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드나드는 광경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다. 그런 곳에 혼자 있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어둠속에 뻗뻗하게 서 있으려니, 의자와 테이블이 자신을 꾸짖고, 방 한 가운데에 쪼그리고 앉은 난로귀신은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보였다.

토니는 소파에 누워서 옆으로 누웠다가 정자세로 누웠다 하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자리가 워낙에 좁았고 그의 다리도 너무 길었다. 그는 발을 소파 팔걸이 위에 걸쳐보기도 하고 비스듬히 누워보기도 했으며 최대한 구부려 보기도 했으나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다른 소파에도 흔히 있는 쿠션이 있었더라면 바닥에 베개를 베고 잘 텐데 하고 생각했다. 가족들과 그

를 방에서 쫓아낸 이방인, 프란체스코 카슬라마레씨의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다.

두 개의 방문이 다 열려 있어도 달라진 건 없었다. 온 가족이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할 만큼 기온이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그날 밤 온도는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앞방까지 통과하지도 못하는 듯 했다. 토니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정말로 좋은 생각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그 밖에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그는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갔다. 순식간에 새벽의 뉴욕거리로 들어섰고 익숙한 모트 가(街)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둠속을 한시간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평소보다 더 오래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토니는 나무들이 울창한 시청 공원을 지나 그가 유일하게 갈 만하다고 생각한 곳인 나소와 스프러스길 사이에 있는 트리본 건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배급소 안은 소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몇몇은 수다를 떨며 서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다. 반바지 입은 아이들과 맨발로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모자가 있는 아이들은 모자를 머리 밑에 두고 누웠다. 온통 땀 냄새와 씻지 않은 냄새가 났는데 학교 다닐 때에 맡던 너무나 익숙한 냄새였다.

토니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바닥에 누울만한 곳을 찾아내서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모자를 머리 밑에 두고 누워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그가 그토록 경험하지 않길 바랐던 빈곤과 외로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전 오직 알피와 버즈만이 이해할 것이다. 그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일 뿐, 자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낼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열기와 공기부족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바닥은 딱딱했고 소란스러움은 여전했으며 빛은 칙칙했으나 절대 꺼질 줄을 몰랐다. 그러나 같이 모여 있다는 편안함과 안전함이 토니로 하여금 멀베리 가(街)의 소파 위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토니는 가족과 떨어져서라도 혼자 잠을 잘 수 있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토니는 깨어났다. 배급소 내에 평소 일어나기 드문 소란이 일어난 것이다.

토니는 일어났다. 늘어진 콧수염과 금속 테 안경을 쓴 키 작은 남자가 배급소 보

조 매니저에게 손짓했다. 이렇게 불결하고 더운 날씨 와중에도 그 남자는 잘 빠진 갈색 정장에 넥타이, 그리고 뿔뿔하게 칼라를 세운 셔츠를 입고 있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소년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 남자는 얼른 카메라 상자로 보이는 것을 들고 와서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감광판을 집어넣고 카메라의 렌즈뚜껑을 떼어냈다. 가루가 묻은 후라이팬 같은 것을 들고서 환하게 비추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남자는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렌즈커버를 교체한 후 감광판을 떼어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장비를 챙겨서 배급소 밖으로 나갔다.

깜짝 놀라 눈이 따끔거리던 토니는 방금 자신이 사진에 찍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며 왜 사진을 찍고 간 걸까? 그는 옆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나도 몰라. 신문에 널만한 걸 찾는 기자겠지 뭐.”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자세한 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토니는 부 매니저에게 물어볼 생각이었으나 그는 너무 피곤한 상태였다. 그는 다시 잠을 청했다.

몇 시간 후 토니는 살을 만나러 멀베리 가(街)로 돌아갔다.

살은 그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

“배급소에서 잠을 잤다고? 그리고 누가 네 사진을 찍고 갔다고?” 그가 재차 물었다.

“그래,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 사진 찍히는 게 재미있었어.”

그는 그 남자와 카메라, 그리고 플래시가 터진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근데 넌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왜 거기 있었어?”

“아빠가 하숙인을 들였어, 살. 소파 말고는 잠을 잘 만한 곳이 없더라고.”

“알겠다. 우리 집에서도 한 번 하숙인을 받은 적이 있었어. 너무 많이 먹어서 아빠가 결국 내쫓긴 했지만 말이야.”

토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난 운이 좋은 거네.”

그때 즈음, 그들은 트니본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들은 신문을 들고 채텀 광장으로 향했다. 토니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배급소 바닥에서 잠을 자서 그런지 완고한 표정의 부 매니저가 조금 더 상냥하게 보였다.

신문 기사거리가 별로 없는 날이었다. 그들은 단순 헤드라인으로 만족해야했다.

“특종이요! 특종! 호보컨에서 개 한 마리가 성인 세 명과 소년 한명, 말 한 마리를 물었답니다!”

해질녘이 다 돼서 토니와 살이 각각 1달러정도를 벌었다.

하루 종일, 토니는 집에 가면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 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와 버렸다. 집을 나와서 잠을 잔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하숙인을 보는 일 중 뭐가 더 최악일까?

토니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하루 종일 기대한 긴장감은 풀렸다. 그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들 기뻐했고 이해하려고 했다. 그는 사진을 찍고 간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얘기를 꺼내는 게 시의적절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는 약간의 호들갑을 떨어야만 했다.

“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토니오? 잠을 자도 될 만큼 깨끗하긴 한 거니? 잠자리는 편안했어?”

토니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엄마를 안심시켰다. 그런 후 아빠는 토니를 프란체스코 카슬라마레씨에게 소개시켰다. 그들은 미국식으로 서로 악수를 했다.

엄마가 말한 대로, 프란체스코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검정색 곱슬머리에 키가 작고 말랐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영어를 거의 구사할 줄 몰랐지만 그건 점점 나아질 것이다. 토니는 그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서 나쁜 점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토니는 그날 밤 나갈 일이 없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을 도우며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썼다. 그는 그릇을 말리고 조이와 안젤리나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조화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그날 밤엔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다행히도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는 소파의 크기와 모양을 대신해 줄 만한 것은 없었다. 토니는 침대에 있는 베개 중 하나를 달라고 해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여분의 베개가 없는 걸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새벽이 될 즈음엔 완전히 지쳐서 화가 났다. 그는 트리본 사무실로 가는 길에 살에게만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살이 물었다.

“앞으론 배급소 안에서 만나자.”

“지금 제 정신이니?”

“내가 배급소에서 잠을 자는 날엔 너에게 알려줄게.”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길 바라.”

토니는 일주일에 며칠 밤을 트리본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와 아빠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에 대한 의논도 나누었다. 그들이 썩 달가워하진 않았으나 이해하는 것 같았다. 집에는 방도 없었고 돈도 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토니오.” 그녀는 그의 팔을 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알아요, 엄마. 두고 보세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멀리 떠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점점 더 그는 살과 극장을 가거나 늦게까지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런 다음엔 잠을 자러 트리본 사무실로 갔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저녁에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외출하기 위해 집에 잠깐 들르곤 했다.

그는 트리본 사무실의 분위기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아이들한테서도 예전만큼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았고 옷을 입고 자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거의 매일 밤, 그 때 왔었던 사진 기사가 서둘러 배급소를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소년들의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배급소를 찾아왔다.

토니는 처음에 그 사람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진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는 살과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트리본에서 잠을 자려고 했던 때였다.

그는 혼자서 시내를 걸어갔다. 한동안 엄청나게 더운 8월의 어느 하루였는데, 땀이 축축하고 더운 열기로 인해 피부 속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듯 한 날이었다. 토니는 끔찍하게 불편한 소파와 대조되는 배급소의 시원한 바닥을 생각했다. 커널가(街)와 차이나타운을 지나서 브룩클린 다리와 시청 공원에 거의 다 왔을 때 중산모를 쓰고 지팡이를 손에 든, 잘 차려입은 신사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옆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토니는 그가 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너무나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다.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케서린.” 그 순간 토니는 케서린이 아니라 저 남자를

집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이곳은 한 밤중에 돌아다니기엔 그다지 안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혼자 술에 취해서, 더군다나 잘 차려 입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토니가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공원에서 한 무리의 건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신사를 넘어뜨렸다. 그의 모자는 한쪽 방향으로 날아갔고, 신발 한 짝은 다른 쪽으로 날아갔다.

“도와주세요!” 그 신사는 소리쳤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덩치 큰 건달 한 명이 그의 몸을 짓혀서 그를 깔아뭉개고 앉았다.

“주머니를 뒤져봐, 있는 돈 다 꺼내!”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나타난 건달에 놀란 토니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점차 그 목소리가 의심할 여지없는 해리 히키의 것임을 깨달았다.

토니는 래그피커스 조직을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으나, 지금 그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그들이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해결해야만 했다. 열두 명을 상대로 싸워야 했지만 그는 한번 시도해 봐야 했고 그들의 그런 행동을 저지해야만 했다.

그는 히키에게 뛰어가 그를 끌어내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돌려 그의 입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이었지만 그 만족감을 즐길 틈도 없이 6명 정도의 조직원들이 그를 깔고 앉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그때야 히키가 그의 범죄에 누가 끼어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어이, 이게 누구야, 우리의 얼굴이 토니 아니셔! 호박이 녀쿨째 굴러들어 왔구만!” 그가 소리쳤다.

술에 취한 그 신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모자를 챙기고 달아났다. 그때 래그피커스 조직은 토니를 향했다. 그들은 그를 넘어뜨려서 때리기 시작했다. 토니는 혼자 고군분투하며 그들의 주먹을 막아내고자 애를 쓰는데 갑자기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경찰이야!” 누군가 소리쳤고 토니는 히키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침착해! 여길 빠져나가자!”

래그피커스 조직은 흩어져서 도망쳤다. 토니의 머리는 빙빙 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금테 안경..... 길게 늘어진 콧수염..... 잘 빠진 양복..... 트리본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사진 기사였다.

13

“괜찮니?” 그 남자가 물었다.

토니는 스스로 일어나 그의 팔에 기대었다. “네, 그런데 조금 어지러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빠는 부러지지 않았어.”

그 남자는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잠시 쉬는 게 좋겠다. 머리를 식혀라.” 어지럼증이 가라앉았다.

“너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싸워서 이길 수는 거의 없어보였는데 말이 지.”

토니는 어깨를 움츠렸다. “저 깡패 조직과는 그럴만한 일이 있었어요. 충동적이었죠 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

토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 말인가요?”

“그래. 슬럼가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 남자는 그의 손을 내밀었다. “내 이름은 제이콥 리스야. 트리본지의 경찰서 출입기자지.”

토니는 악수를 했다.

“전 토니 페트로시노예요. 트리본지의 신문팔이지요.”

리스는 질질거리며 웃고는 말했다. “그래서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거군 그래. 배급소 안에서 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며칠 밤을 거기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사진을 찍었던 날 밤에도 거기에 있었죠.”

“아, 그렇지. 그 사진.”

리스는 토니 옆 인도에 앉아서 양손을 무릎 앞으로 모아 깡지를 끼었다. 그는 도

시의 집 없는 소년들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필요한 사진을 찍었던 것이었다.

“거리의 불량자들.” 그는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들은 너무나 지저분한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그들을 돕는 일이 쉽지 않았다.

토니는 알피와 버즈를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기자 아저씨, 전 불량자가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거기가 너무 비좁아서 제가 트리본 사무실에서 지냈던 것 뿐이라구요.”

리스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안다, 토니. 너와 잠깐 말을 해봐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그는 집 없는 소년들을 위해 한다는 기사의 보도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기사를 쓰는 일 이외에도, 세입자 아파트의 끔찍한 환경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기사를 쓰고 있었다.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했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사진의 신기술을 이용해서 그는 그 기사에 어울릴만한 사진을 찍었던 것이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 세입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리스 아저씨.” 토니가 말했다. “궁전 같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테지아노에서 살던 곳만큼 나쁘지도 않아요.”

“넌 멀베리 밴드에 살고 있지 않잖니. 고담 지구나 저지 가(街)에서 살고 있지 않고.”

제이콥 리스는 일어나서 토니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었다.

“잘 들어라, 토니. 난 너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 오늘 밤에 난 모험을 할 예정인데 나와 같이 가겠니? 내 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토니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냥 어린 아이일 뿐이다. 거기에다 이민을 온 신문 배달원일 뿐이었다. 물론 이런 색다른 시간을 보내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러나...그런 저런 이유들을 핑계로 거절할 것인가?

“고마워요, 리스 아저씨.” 토니가 말했다. “당연히 저도 같이 가겠어요.”

“잘됐구나. 그렇다면 먼저 트리본 사무소에 들러야겠다.”

리스는 키가 작긴 해도 걸음이 빨랐다. 사실, 그는 뭐든지 빨리 하는 것 같았고 원래 성격이 급한 것 같았다. 그들은 트리본 건물에 도착하여 배급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기서 기다려라.” 리스가 말했다. “내가 위층에 카메라를 두고 왔거든.”

토니는 만약에 살을 너무 늦게 만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메모를 대충 써두었다. 그는 그와는 같이 온 동행인이 아닌 것 마냥 책상 옆에 팔과 다리를 꼬고 서서는 그런 자신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리스가 돌아와서 그에게 카메라와 삼각대를 주자 모든 시선이 거기로 쏠렸다.

그들은 조금씩 선선해져 가는 밤길로 나섰다. “밴드 거리로 가는 거야.” 리스가 미리 선전포고를 했다.

토니는 겁에 질렸다. 밴드라고? 멀베리 밴드? 당연히 리스가 아까 전에 말했던 곳이 아닌가, 그러나 토니는 당장 오늘밤에 그곳에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 동네를 피하며 다녔었다. 부모님께 거기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제이콥 리스와 함께 그곳으로 가고 있다!

“좋아요.” 토니가 말했다.

리스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니?”

토니는 순간 당황해서 눈을 돌렸다. “아뇨, 하지만 가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구나.” 리스가 말했다. “널 데리고 오길 잘 했어.”

그들은 백스터 가(街)에 있는 파크로우 길을 따라 걸어난 다음 파이프 포인트를 지나 백스터 거리를 올라가서 밴드로 들어섰다. 갑자기 리스는 낱아빠진 두 아파트 사이에 난 골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골목길은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토니는 리스 뒤를 바짝 쫓아갔다. 양쪽에 버티고 있는 벽돌담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처럼 보였다.

열심히 실눈을 뜨고 앞을 보던 토니는 골목 앞쪽에 여러 길로 나 있는 좁은 길을 보고 당황했다. 그들은 이제 쓰레기와 병, 음식 찌꺼기가 든 천가방 등으로 가득 찬 쓰레기장에 오게 된 것이다. 쓰레기장 한 쪽 끝에는 판자로 지은 건물이 무너진 채로 있었다. 마치 옆구리가 터져서 뒤에 있는 아파트에 붙여진 것처럼 보였다.

“여긴 바틀 엘리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지.” 리스가 말했다.

토니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들은 부서진 나무계단을 밟고 올라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지저분한 누더기를 걸친 여자가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다. 아파트 안에 있는 두 개의 방에서는 음식 썩은 냄새가 났고 사람들이 너무 꽉 들어차서 그들이 들어가서 앉을 자리는 없었다. 적어도 열다섯 명 정도 되는 세 가구가 지금까지

악취가 풍기는 침대 몇 개와 찌그러진 난로 하나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생활해 온 것 같았다. 남자와 여자들, 아이들 모두가 사람들이 보는 걸 원치 않지만 숨을 데가 없는 바퀴벌레처럼 여기저기 재빠르게 움직였다.

“사진을 좀 찍고 싶습니다.” 리스가 말했다.

저항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리스는 서둘러 삼각대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비추어 사진을 찍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그야말로 처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리스와 토니는 그 곳을 나와 다음 골목으로 내려갔다. 걸음을 재촉하며 리스가 물었다.

“잘 견디는 것 같은데?”

토니는 확실치 않았다. 그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최악이었다. 그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세집살이는 저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비교했을 때 세발의 피였다. “전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좋아.” 리스가 말했다. “플래시에 대해 설명해 줄게.”

선택을 하기에 참 난감한 순간이었다. 토니는 귀를 기울여 설명을 들었다.

“원리는 바로 마그네슘 분말이야. 알코올 화염을 통해 날아가지. 후라이 팬에다 불을 키면 돼. 전에 권총을 쓰던 방법보단 훨씬 향상된 거지.”

“권총이라고요?” 토니가 물었다.

“처음에 내 친구와 내가 이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을 적에 플래시 통이 피스톨 램프에 담겨져서 나왔거든. 한마디로 우린 총을 쏘면서 돌아다니는 거지. 사람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한 밤중에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볼만 했어. 한번은 내가 방에다 대고 쏘았는데 그 뒤처리를 모두 내가 해야 했지.”

토니는 깜짝 놀랐다. “다쳤나요?”

“내가 분말가루에다 불을 붙이고는 내 눈으로 날리게 했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어. 내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장님이 되어 있었겠지.”

그들은 모퉁이를 돌아 계단 몇 개를 내려갔다. 부서져 있는 문을 밀고 지하실 안으로 들어갔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시큼한 맥주가 바닥에 고여서 나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들이 들어간 지하는 어둡고 무서웠다. 벽에 달려있는 가스등이 최소한의 빛만 비추고 있었다. 바닥과 천장은 널빤지로 덧대져 있어 음침한 분위기를 더했다. 사방

에 얼룩진 나무 탁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 몇몇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중산모를 쓰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단추를 풀어 헤친 셔츠차림에 멜빵바지를 입고 있었다. 대부분이 눈동자에 초점을 잃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거나 술을 마시는 중이었고, 또는 쓰러져서 두 팔을 포개어 그 위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곳을 2센트짜리 식당이라고 부르지.” 리스가 속삭였다.

“완전히 김이 빠진 맥주를 팔아. 2센트로 커피 한 잔에다 롤빵을 사 먹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맥주를 사서 이렇게 밤새 내내 마셔.”

“김이 빠진 게 뭐예요?” 토니가 물었다.

“찌꺼기인 셈이지. 술집 주인이 양조 업자를 주려고 길에다가 술통을 놓아두는데 거기서 나온 맥주야. 이런 찌꺼기들을 모아 화학 약품을 넣고 섞음질을 해서 한 사람 분량의 맥주를 만들어. 그래서 가격도 싼 거야. 넌 마셔 볼 엄두도 내지 말아라.”

한 남자가 구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지저분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바닥에 넘어졌다. 누군가가 그녀가 일어나는 걸 도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가만히 있었다.

코가 길고 키가 큰 남자가 리스에게로 다가왔다.

“주문하시겠어요? 커피? 술?”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리스가 말했다.

그는 얼굴에 난색을 표하며 말했다. “사진이라고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는 문을 열고 그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리스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다시 말했다.

“1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전 트리본 지의 제이콥 리스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쓰고 있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토니는 그를 도와 삼각대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남자는 싸울 생각은 없는지 주저했다. 그는 리스가 화약에 불을 붙이고 셔터를 손 빠르게 누르는 걸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리스와 토니는 최대한 빨리 그 곳을 빠져나왔다.

“가끔씩은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있단다.” 밴딧 루스트라고 말한 골목을 통해 도망치듯 나오면서 리스가 말했다. 건물 벽에 기대어 협박하는 사람들, 계단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는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놓은 사람들이 보였다. 리스와 토니는

구석진 곳에 있는 술집을 지나칠 때, 어린 소년이 물통을 들고 걸어왔다. 7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갖다 줄 맥주 통인가? 이렇게 덥고 늦은 시간에 자기와 친구가 나누어 먹을 물통인가?

“저건 배달식 맥주야.” 리스가 말했다.

“통에다가 맥주를 담아서 집에 가져가는 거지. 너무 어린 아이들은 술집에 들어갈 수 없어....그렇지만 바로 저 일이 내가 지금 ‘아이들’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

리스는 불쌍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과 왜 모든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여느 아이들처럼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과 잔디가 있는 집이 필요한가에 대해 한참 동안 설명했다.

리스가 이야기를 마치자 토니가 말했다. “저는 8학년을 졸업했어요.”

“잘했다, 토니. 아주 잘 한 일이야.” 리스가 말했다. 그런 다음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 순간 토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잘 몰랐다. 리스가 워낙 아이들과 교육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 걸 들은 후라서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묻고 싶었다. 그는 이렇게 묻고 싶었다. ‘저도 나이가 아직 어려요. 교육을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나 리스는 토니를 공부를 할 만한 애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듯 했고 그래서 어떤 충고도 해주지 않았다. 만일 그가 진로에 대해 충고를 해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반드시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고 아빠는 절대 승낙해주지 않을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리스가 말을 꺼냈다.

“자, 내가 간절하게 없애고 싶은 밴드 거리의 뒷골목을 보여 주었지. 이젠 나의 다른 면을 보여주지. 피곤하니?”

토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멀베리 가(街) 쪽으로 모퉁이를 돌아가서 엘리자베스 가(街)에 있는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날 당직인 경관이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시오, 리스 기자양반.” 그가 웃으며 말했다.

경찰관들과 알게 되면 나중에는 꼭 나 혼자 남겨지게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서로 붙어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따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각각의 방 한 쪽 구석에는 찌그러진 싱크대가, 다른 쪽에는 미니 벽 뒤에 변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각 방의 벽에는 비스듬히 돌출된 철 선반들 위로 줄지어서 나무 널빤지가 놓여 있었다.

흐리멍덩한 눈에 허기에 찌든 여자들이 여름인데도 추운지 오뎅이 모양의 녹이 슨 난로 주변에 둘러 앉아있었다. 남자들은 맨발이거나 더러운 터진 양말 속에서 빠져나온 지저분한 발가락을 보이며 딱딱한 널빤지를 이불삼아 누워 있었다. 리스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몇몇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잠을 자거나 카메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불결함에서 나오는 끔찍한 악취가 심각해서 더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리스와 토니가 서둘러 나오는데 리스가 말했다. “난 이 경찰서의 임시합숙소를 폐쇄시켰으면 좋겠어. 경찰서에서 관리 하지도 않아서 질병만 더욱 퍼지게 만들고 있지.”

토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랫동네에서 겪고 있는 진정한 빈곤을 경험했는데도 리스가 왜 다른 것보다 임시합숙소의 환경에 대해 더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리스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겠어. 같이 갈래?”

같이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토니는 그렇게 했다. 그들이 멀베리 가(街)로 다시 걸어 올라가는데 (그날 밤 할 일은 다 해서 이제 더 서두를 일도 없었지만) 토니는 이 늘어진 콧수염을 하고 있는 활기차고 인정 많은 기자 아저씨에게 뜻하지 않은 어떤 친밀감을 느꼈다. 그들은 하기 힘든 일을 같이 해냈다. 이제 막 동이 트려고 하자 그들은 토니가 사는 동네로 계속 걸어갔다. 그는 그의 집과 가족에 대해 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멀베리 가(街)의 경찰청 건너편에 있는 멀베리와 허드슨의 경찰서 출입기자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턱수염이 난 기자들 몇 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리스가 갑자기 들어오자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카드놀이에 열중했다.

리스는 그의 우편함을 뒤적거리며 다음 날 쓸 만한 머리기사를 정리했다. 그가 몇 시간 잠을 자고 나서 기사로 바꿀만한 전문(前文)이다. 그는 고개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오늘 밤엔 강의가 있는데. 목요일에 다시 와 주겠니?”

토니는 사실상 오늘 한 숨도 자지 못했다. 그렇게 빨리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말했다. “물론이죠.”

“그럼 여기서 11시에 만나자꾸나.”

토니는 집으로 가서 그렇게 처량하게만 보이던 소파위에서 두 시간동안 몸을 웅크리고 잠갔다.

그는 집에 와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적이 없었고, 또한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어 이토록 안심이 되었던 적은 없었다.

14

“멀베리 밴드에서 밤을 샐다고?”

“그래.”

“강도를 만나거나 칼에 찔리거나 하지도 않고?”

“아니, 제이콥 리스씨와 같이 갔었어.”

다음날 새벽이었다. 토니는 마침내 살을 만나 트리본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다. 토니는 살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살이 말했다.

“왜?”

“밴드거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동네라고, 토니.”

“난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게 살 수도 있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플래시 사진 기술도 대단하고 말이지. 난 다시 가볼 생각이야.”

“네가?”

“그래. 너도 가고 싶으면 같이 가도 돼. 내가 리스씨에게 물어---”

“고맙지만 난 생각 없어 ”

“그래, 살. 다시 묻지 않을게.”

토니는 혼자 갔다. 목요일 밤에도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였지만, 그는 멀베리 기자사무실에서 리스를 만났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제복을 입은 키 큰 남자도 있었다.

“토니, 여기 이 사람은 샘이야.” 리스가 말했다. “공중위생담당 경찰관이시지. 오

늘 밤에 우리와 같이 동행하기로 했어.”

토니는 샘과 악수를 하고 카메라와 삼각대를 어깨에 짊어지었다. 다시 한 번, 그들은 밴드를 향해 출발했으나 이번엔 바야드 거리를 따라 북쪽 끝 길로 갔다. 그들이 멀베리와 바야드 모퉁이를 지날 때, 토니는 학교를 갔던 첫 날 그 곳에서 있다가, 래그피커스를 마주친 일이 생각났다. 아주 오래 전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인연으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았다.

본능적으로 그는 주변을 살폈다. 래그피커스 조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와 두 사람은 어설픈 불빛을 받아 검은 그림자를 만들며 계속 걸어갔다. 그들은 아파트 계단 위를 걸어 올라갔다. 장비를 짊어지고 가던 토니는 한 번에 계단 하나씩 밟으며 올라갔다. 그들은 계속해서 2층으로 가는 찌그러진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작은 방 하나에 열두 개 내지는 열세 개 정도의 매트리스가 있었다. 그 중 몇 개는 층 침대위에 있거나 방구석의 벽에 쑥 들어간 공간에 끼워져 있었다. 나머지는 바닥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누더기를 입은 남자나 여자들이 매트리스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흠이 묻은 담요를 몸 전체에 덮고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다.

한 쪽 편에는 난로 위에 다 낡아빠진 여행용 큰 가방이 있었고 그 위에는 누더기 더미가 있었다. 낡은 부츠와 그 안에는 양말이 쭈셔 박힌 채로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벽 한 쪽을 따라 선반 위에는 냄비와 그릇이 있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듯했다. 희미하게 타고 있는 등유램프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 남자들은 토니가 리스가 사진 찍는 것을 돕자 자신의 머리를 가리려고 했다. 벽장 속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카메라를 보고 웃었다. 리스와 토니가 사진을 다 찍고 가방을 쌀 때까지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자 샘이 물었다. “여기 소유주가 누구지?”

그러자 얇은 회색머리카락의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남자가 인상을 쓰며 나타났다.

“이 사람들에게 돈은 얼마나 받고 있나?” 샘이 물었다.

“매트 하나에 5센트씩 받고 있습죠. 경관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인원초과로 자네를 경찰서로 호출하겠네. 이 인원의 반 정도로도 방이 딱 찰것

같은데. 그리고 당장 청소도 좀 하게. 꼭 돼지우리 같네 그려!”

그는 그 남자에게 서류 하나를 주고 방을 나갔다. 리스와 토니도 따라 나갔다.

그 남자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들을 배웅했다. 샘은 완전히 체념한 듯 힘들어 보였다. 그의 눈은 울었던 것처럼 젖어 있었다.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지.” 그들이 계단 밑을 내려가면서 리스가 말했다.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 샘이 말했다.

“후속조치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부패에 썩은 사람들뿐이지.”

“내가 전에 말했듯이 다시 한 번 말해 보겠네. 멀베리 밴드를 해체시키자고.”

“나도 동의하네. 만일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다보면 상황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을 걸세.”

그날 밤, 그들 셋은 저지 가(街)에 있는 래그피커스 갱단의 본거지와 보웨리에 있는 7센트짜리 하숙집, 보웨리 술집, 그리고 나중에는 처치 가(街)의 경찰서 임시합숙소까지 돌아다녔다. 처치 가(街)를 다 돌아 리스가 기분이 좋아져서 제안을 했다.

“멀베리 동네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어때?”

보웨리는 이상하리만치 중독성이 있는 곳이었다. 극장과 음악회장, 술집과 오락실, 동물 쇼와 엘 가(街)의 길은 화려함과 어둠의 분위기가 동시에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멀베리는 여전히 토니에겐 가장 큰 기쁨인 곳이었다. 좋았어, 그는 생각했다. 나쁜 집으로 데려가는 구나.

그들은 토니와 살이 잘 가는 단골집인 마리에타의 카페로 갔다. 토니는 도로변에 나와 있는 테이블에 자신이 제이콥 리스와 보건 경관과 같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이 전부 잠을 자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면 바로 옆으로 지나갔을지도 몰랐다.

리스는 시가를 한 대 꺼냈다. “토니는 담배를 피우나?”

토니는 고개를 저었다. 리스는 샘에게 시가를 한 대 주고는 불을 켜 주었다. 그들이 주문한 에스프레소가 나오자 리스는 한 모금 쪽 마시고 의자 뒤로 몸을 젖혀 자신의 과거와 경찰서 합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도 이민자로서 원래 고향은 덴마크의 리베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글래스고에서 토니가 그랬던 것처럼, 3등선으로 배를 타고 와서 1870년 6월에 캐슬가든에 도착했다. 그는 처음에 일거리를 찾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 7년이 지나서야 트리본 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엘러게니 강 근처에 있는 제철소에서 목수 일을

했었고 당시엔 뉴욕 시에서 굶주린 부랑자였다고 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불어 닥치는 와중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늘 밤에 잤었던 곳과 매우 비슷한 처치역에 잤었는데 다음 날 아침, 같이 묵고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걸쇠가 없어졌다고 리스를 내쫓고 계단 위에서 강아지를 때려 죽였다.

“난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단다, 토니.” 리스가 말했다.

“그 일로 난 이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을 짐작할 수 있었지.”

토니는 이해가 갔다. 어떻게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제이콥 리스가 이민자라는 것과 이 익숙한 거리에서 부랑자 생활을 했었던 것, 그래서 그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등이었다.

다음 몇 주 동안에 걸쳐, 토니는 리스와 자주 돌아다녔다. 그는 리스가 ‘시민의 반이 사는 법’ 이라고 부르는 뉴욕시의 취약부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었다. 잠이 많이 모자란 채, 살과 여전히 신문을 팔다가 어떨 땐 너무 피곤해서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또 플래시를 켜고 셔터를 누르며, 렌즈 뚜껑을 갈아 끼우는 등, 카메라 사용법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리스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 그 둘은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늦은 밤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리스가 말했다.

“넌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토니. 신문 파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네, 알고 있어요.” 토니가 말했다. 그는 리스가 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에게 그럴듯한 충고를 해주지 않는지 궁금했다. 토니는 또 다시 마음속이 복잡해졌다.

토니는 호기심에 다음 날 밤에 혼자서 보웨리로 다시 가 보았다. 그는 살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혼자 가보고 싶기도 했다. 그는 그가 지나온 첫 번째 음악당 안을 어슬렁거렸다.

그 곳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었다.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과 소매치기처럼 보이는 멋쟁이들도 몇 있었다. 토니는 눈에 띄지 않게 2층으로 가서 앉았다. 쇼가 굉음을 내며 시작되었다. 개들이 서로 상대방의 방향으로 점프를 했고,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남자도 나왔으며 격자무늬의 바지를 입고 실크로 만든 높은 모자를 쓴 보웨리의 마스코트이자 아일랜드 출신의 뷰오이의 무대, 그리고 인간 피라미드의 쇼가 펼쳐졌다. 또 흑인으로 분장한 밴드가 나와서 노래도 불렀다.

캠프타운의 여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네, 두다, 두다
캠프타운의 경주로는 5마일 거리, 오! 흥분되네!
밤새도록 달렸네! 하루 종일 달렸네!
나는 저 꼬리 짧은 경주마에 돈을 걸어야지!
누군가는 저 적갈색 경주마에 돈을 걸 거야.

이 극장은 토니 페스토 극장만큼 환상적이진 않았지만 겁을 주는 면에 있어서는 토니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는 죽을힘을 다해 집으로 뛰어갔다. 그가 맨 첫날밤에 멀베리 밴드에 나왔을 때처럼, 그는 그의 가족에게로 뛰어갔다. 그는 멀베리 동네에 다다르기 전까지 도로주변을 보기가 힘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계단을 거의 날다시피 뛰어올라가 현관문에 도착했다.

엄마는 조화 몇 개를 더 만들면서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토니는 그의 팔을 뻗어 엄마 목을 감았다.

“엄마, 사랑해요!” 토니가 말했다.

엄마는 히죽 웃고는 말했다.

“그래, 토니오, 나도 널 사랑한다. 자 이제 잠을 자자꾸나.”

소파 위에서이지만 잠을 깊게 잔 토니는 다음 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났다. 토니는 유일하게 살에게만 제이콥 리스에 대해 말해 주었다.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였다.

그 후 며칠 동안, 토니는 신문을 파는 일에 열중했고 다시 가족과 같이 일하려고도 했다. 그는 너무나 오래전 일인 것 같지만 한때 얼마나 좋아했던 놀이였던가를 생각하며 비니와 조이하고 야구를 했다. 그는 엄마를 도와 조화작업일도 했으며 심지어 하루는 아빠와 프란체스코, 루이지 마짜페리씨와 함께 나가서 카드놀이도 했다.

그리고 8월 16일, 산 로코 페스타(축제)일이 되었다. 당연히 가족 모두가 축제에 참석해야 했고 아빠, 프란체스코, 그리고 토니는 그 날 하루 일을 쉬고 모두 같이 갔다.

11시가 되자, 그들은 계단 밑을 떠들썩하게 내려가서 건물 밑에서 기다렸다. 그들을 둘러싼 아파트 건물위에는 태피스트리(역주 :색실로 ·짠 주단)와 이탈리아 깃발,

삼색 등과 전구가 매달린 줄이 여럿 매달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치 나폴리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고, 모두가 행복한 듯 보였다. 여자들은 색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고, 남자들은 검은 양복이나 군복을 입었다. 토니는 안젤리나의 손을 꼭 잡으며 멀베리에 왔었던 첫 날을 기억했다. 그 당시엔 손이 더 작았었다.

토니는 산 로코에 대한 유래를 알고 있었다. 전염병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는 개 한 마리가 주인의 테이블에서 빵을 가져와 그에게 주었기에 죽다가 살아났는데 로코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토니는 마음속으로 그의 가족은 로코가 겪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상황을 더 낮게 만든 치유라는 점에서 로코를 구한 개와 제이콥 리스를 구했던 개가 비슷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행렬은 모트 가(街)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잠시 후 나팔소리가 들렸고 깃발과 배너가 등장했다. 경찰 팀이 처음에 동원이 되었고 그 뒤를 악단과 산 로코와 그의 개를 잘 나타내는 배너가 따랐다. 그 배너는 이탈리아 깃발과 미국 깃발이 양쪽 측면에서 둘러싼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 소치에타 산 로코의 회원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금색 단추와 줄무늬가 들어간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들 뒤에는 여러 가지 밀랍 형태의 신체 부위가 들어간 산 로코의 성골함이 있었다. 그 신체의 일부에 해당하는 밀랍에는 플로리오 아줌마가 다리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제노비스 아저씨가 청력을 되찾을 수 있게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악단들이 더 보였는데 다양한 교회에서 온 신도들도 있었다.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길거리 위아래로 폭죽 터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토니는 동생 비니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 비니는 형을 쳐다보고 웃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토니는 안절부절 하지 못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살과 같이 밖에 나가자고 졸랐다. 축제의 기쁨과 이탈리아 기분에 젖어서 그는 극장에 가고 싶었다. “난 이탈리아와 상관없는 걸 보고 싶어.” 그가 말했다.

“리오네트(꼭두각시) 쇼를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

“좋았어, 거기로 가자.”

그들은 바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스프링 가(街)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곳을 본 게 기억이 났다. 그래서 그 곳으로 갔다. 리스가 항상 토니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하듯 이제는 토니가 살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장식 리본과 다 쓴 폭죽들,

그리고 축제에 쓰였던 종이 등을 뚫고 지나갔다. 한 순간, 살은 토니가 너무 서두르자 조금 짜증이 나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토니는 그의 기분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재촉했다.

조그마한 극장 입구의 창문에는 시간표가 붙여져 있었다. 극단에서는 격일 밤마다 두 개의 연극을 공연하고 있었다. 팔라딘의 전쟁 과 아리스토의 16세기 광산의 오솔밭도였다. 각 연극이 끝날 때까지 코가 빠지게 기다려야 했지만 관객들은 아무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입장 할 때 웃으며 농담도 주고받았다.

토니와 살은 그 날 저녁의 추천 연극을 보기 위해 10센트를 냈는데, 제목은 팔라딘의 전쟁이었다. 좁은 극장 안이 너무 사람들로 꽉 차서 그들은 나란히 앉을 수가 없었다. 살이 키가 더 큰 이유로 통로 쪽으로 나 있는 토니의 뒷 자석에 앉았다. 그들은 접는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무대는 작았고 높이도 6피트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막이 오르고 인형들이 등장했다. 그 인형들은 3-4 피트정도의 크기였는데 이목구비는 일일이 손으로 조각을 했고 의상과 실크, 벨벳에서부터 갑옷 한 벌에 이르기까지 공들여 만든 것이었다. 토니가 몸을 살짝 구부리면 무대 뒤에 숨어있는 남자들이 인형들의 몸짓을 긴 막대기로 조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토니는 연극에 빠져들었다. 인형과 아름다운 의상들, 그리고 희극적 음악, 팔라딘의 중세 전쟁은 벅스터 스트리트 듀드 갱단이 일으키는 뒷골목의 전쟁과도 많이 흡사했다.

그러나 얼마 후, 토니는 더 이상 무대로 시선이 가질 않았다. 그는 그 옆에 나 있는 극장 뒷문으로 이어지는 입구를 보았다. 입구에는 검정 벨벳으로 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커튼 앞에는 토니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가 서 있었다.

15

그녀는 중간 정도의 키였고 토니와 거의 비슷해 보였다. 그녀는 긴 검은색 머리에 검은 눈동자, 하트 모양의 얼굴형을 가지고 있었다. 불빛이 약하고 무대 위에서

공연이 상연 중이라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건 무리였다. 그러나 검은색 커튼 앞에서 한 쪽 다리에 무계를 신고 엉덩이에 손을 얹은 모양새는 토니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막간 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불이 들오자 그녀는 사라졌다. 이 연극에서 그녀의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무대 뒤에서 그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토니는 살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이 그 소녀를 뚫어져라 쳐다본 걸 살에게 들키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겼다.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토니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인지 의아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살에게 무엇이든 말하는 걸 꺼려하지 않았었다. 그들은 둘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너무나 특별했다. 너무 부끄러웠고 뭐라고 정의하기 힘들었다. 그가 만일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재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연극 어땠니?” 대신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살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 썩 좋지도 않았고. 집에나 가야겠다.”

“집에 간다고?” 토니가 물었다.

“응. 넌 더 있을 거야?”

더 있겠냐고? 토니는 생각했다. 어떻게든 있어볼까?

“응, 난 더 볼 생각이야.”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

토니는 살이 스프링 스트리트 밑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소극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제 2막을 기다렸다.

공연이 반 정도 진행 되었을 때 즈음, 벨벳 커튼이 열리고 그 소녀가 보였다. 그러나 또다시, 연극이 끝나자 그녀는 사라져 버렸다.

토니는 박수소리가 잠잠해지고 관객들이 떠난 후에까지 자기 자리에서 되도록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꾸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내쫓을 때 까지 뭘 할 수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가지 밖에 없었다. 그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용기를 낸 다음 검정색 커튼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인형을 조종하던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서 있던 무대 뒤의 공간인 무대 뒤에 있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무대장치를 가방에 담고 있었다. 확실히 조수로 보이는 한 소년이 무대 입구 쪽

으로 두 개의 인형을 들고 가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다른 인형극 연기자에게 그의 인형을 극장 뒤쪽으로 가지고 가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토니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죠?” 그녀가 너무나 밝게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는 바람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이곳에 무슨 볼 일이라도?”

당신이요, 토니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당신을 보러 왔어요. 다른게 아니라 당신을 보러 온 거예요. 그는 말을 꺼내려고 애썼다.

“제 자리에서 당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여길 나가 주셔야 되요.”

그건 그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저와 커피를 마시는 게 어떠세요?”

“커피를 마시자고요? 저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녀는 무대 입구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부탁 이에요. 제 이름은 토니 페트로시노입니다. 만나보면 절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아직도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입가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은 고집이 매우 세군요, 그렇죠?”

“리스씨가 가끔은 고집을 부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누구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설명해 드리죠.”

그녀의 의지가 한풀 꺾였다. 그녀는 입구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그를 문가 옆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저는 못 가요. 아빠가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는 그녀의 검고 길며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토니 페스토 극장에서

보았던 가수, 매기 클라인이 생각났다. “그렇지만 전 꼭 당신을 만나야 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지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양 입가가 치켜 올라가더니 이를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다. “내일 밤 공연이 끝난 후에 봐요. 제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디로 가면 될 지 말해주세요.”

토니는 소녀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제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생각해 내야 했다. “브룸과 멀베리의 모퉁이에 보면 사탕가게가 있어요. 가게 이름은 나폴리예요.”

“알겠어요. 10시에 거기서 봐요.”

“알았어요. 이름이 뭐죠?”

“마리아 까벨리노예요.”

그녀는 다시 무대 뒤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토니는 정말로 올라가는 약간의 의심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무대 입구 문으로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그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웠다. 그녀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일 밤에 약속장소에 나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왜 그는 하필이면 자신의 집과 가장 가까운 사탕가게에서 만나자고 했던 말인가? 거기에 살이 들어온다면? 아빠나 프란체스코가 그들을 본다면? 그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계속 걱정이 되었다. 어쨌든 그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그 정도로 걱정했으면 충분하다! 집으로 오는 내내, 그리고 소파에서 밤새도록 잠이 들지 않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다음 날 살과 신문을 팔면서, 토니는 너무 정신이 산만해져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너 오늘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살이 멀베리 가(街)를 향해 걸어갈 때 말을 꺼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토니가 변명했다.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가서 자야겠어.”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은 아니었다. 아마 반은 진실이었지만 토니는 이제까지 이런 문제를 회피해 본 적이 없었다. 살과는 절대 그래본 적이 없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자신에게 자유 시간을 준 것 뿐이었다.....그렇지만 만약에 살이 나폴리에 나타난다면? 그러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토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10시가 되기 바로 전에 그는 부엌 테이블에서

식구들에게 핑계를 댄 다음, 밖으로 나와 사탕가게를 향해 도로를 건넜다. 그는 나중에 토니가 여기서 소녀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베네벤토씨에게 보나 세라(밤 인사,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 다음 그는 창가를 뒤로 해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날 밤은 무더워서 체리 탄산소다를 주문했다.

테이블은 꽉 찼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 토니가 아는 사람은 없었다.

10시가 되었지만 아무도 가게에 들어오지 않았다. 토니는 기다렸다. 10시 15분. 10시 30분. 그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처음엔 조금 늦는 친구를 기다리는 척 해야 했고 그 다음엔 그가 바람 맞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10시 45분이 되자, 토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탄산소다 값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 그는 제발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결국 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참담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거라면? 오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만 했다.

그는 곧바로 스프링 스트리트로 향했다. 극장 입구는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 그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모든 일을 잊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나저제나 그곳에 계속 서 있었는데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문이 열리고 마리아 까벨리노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토니는 너무 놀라서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물었다.

“몰랐어요. 전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약속장소에 못 나가서 미안해요.”

그는 그의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으나 그 대신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빠 때문이에요. 뭔가 낚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입장권 영수증을 살펴보며 나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죠.”

그녀는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빠가 금방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나랑 얘기하고 있으면 안돼요.”

토니는 까딱하면 그녀를 놓칠 상황이었다.

“내일 밤에는 만날 수 있나요?”

그녀의 아름답고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다시 떠올랐다.

“당신은 정말로 고집이 세군요, 그렇죠?”

“네.”

마리아는 다시 뒤를 돌아보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10시에 바바라에서 봐요. 프린스 가(街)에 있는 커피하우스예요. 자, 이제 가세요.”

토니는 극장 안에서 까벨리노씨의 발자국 소리가 나기 전에 멀베리 가(街)의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그는 바바라에서 그녀를 만날 것이다. 그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날 밤과 다음 날에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10시 정각에 그곳에 있었다. 극장에서 두 번 모퉁이를 돌면 바바라 커피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곳은 원형 테이블과 연철로 된 의자가 놓인 아담한 곳이었다. 그는 집에 외출하겠다고 말하고, 살에게는 바쁘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어디에 있지?

10시 15분에 그녀는 머리를 휘날리며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오, 거기 있었네요.” 그녀는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요. 오늘 계획이 엉망이 될 뻔 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켰잖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 없었다.

“와줘서 기뻐요.” 토니가 말했다.

그들은 커피를 시킨 다음, 마리아가 자신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 이제는 토니도 아는 사실이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극장 주인이었다. 그녀가 15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그의 특별 조수가 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밤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인형과 인형극 연기자들에서부터 의상과 극장자체 운영까지 거의 모든 일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유일한 것은 회계 장부 뿐 이었다. 그러나 극장 수입도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엄마가 바느질로 대신해야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외동딸인 마리아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A.T. 스투어트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주일에 6일을 일해야 하는 것이다!

“거긴 괜찮기로 유명한 백화점인데.” 토니가 말했다.

“맞아요, 그렇지만 매일 거기 서서 심술을 부리는 손님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입장에선 그렇지도 않죠.”

마리아와 토니는 둘 다 이민자였다. 그녀는 칼라브리아 출신이며 미국에 온지는 5년이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는 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며

그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8학년까지는 마쳤다고 한다.

“우리 아빠는 남자도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예요.” 토니가 말했다.

“전 교육을 더 받고 싶었지만 아빠가 반대했지요.”

“아빠들이란.” 마리아가 말했다.

“아빠란 존재는 매우 엄격하지요.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오직 가족과 고향에서 익힌 전통 뿐 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가족도 중요해요. 난 그냥 아빠가 미국사회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요,” 마리아가 말을 꺼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하죠.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는 내가 최고의 결혼을 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할 신랑감이 아니 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 그는 결코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녀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토니는 그가 먼저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또한 그녀를 다시 만나려면 그녀의 아버지의 성화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마 그가 마리아에 대해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토니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를 다시 한 번 만나주겠어요?”

마리아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에 얹은 채 밑을 쳐다 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토니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 다시 만나겠어요.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 보죠.”

토니는 무척 안심이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일 점심시간에 브룩클린 브릿지에서 산책하는 게 어때요?”

약속이 정해졌다. 아빠들은 아무데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집에 돌아가야 한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마리아가 물었다.

“요번에 말했던 리스씨는 누구예요?”

토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는 너무 세세하게는 말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설명했다.

마리아의 반응은 살의 반응과 거의 비슷했다.

“새벽 2시에 멀베리 밴드에 갔었다구요?”

토니는 부랑자들의 현재 처지와 리스씨가 바뀌었으면 하는 것 등을 더 말해주었다. 그는 마리아에게 절대로 그런 곳에는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말을 계속하면서, 그는 리스씨와 연락을 안 한지 이제 일주일도 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연락을 취해보고 싶었지만 그가 건네준 번호로 전화를 건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대신에 마리아에게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길가로 나오자 토니는 마리아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음을 알았다.

“잘 자요.” 그가 말했다.

“내일 봐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네, 내일 봐요.”

그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확실히 떨림이었다. 그러나 마리아와 점심을 먹으면 살과는 같이 점심을 먹지 못하게 된다. 그는 살에게 그녀에 대해 말을 꺼내야 했다.

그는 살이 4센트 팁을 받은 직후인 아침 늦게야 비로소 말을 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살은 거의 동전을 떨어뜨릴 뻔 했다.

“그럼 내가 집에 간 그날 밤에----?”

토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은 얼굴을 붉혔다. “믿을 수 없어. 토니, 모두 거짓말이야!”

토니가 미소를 지었다. “모두 사실이야.”

살은 그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 “행운을 빌어, 친구. 네 아빠가 널 죽이려고 하겠지만 말이야. 점심시간 이후에 보자구.”

살의 말이 토니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는 브룩클린 다리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아마도 그는 마리아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낼 때까지는 모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면 아빠는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아버지가 절대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건 완전 가망 없

는 일이었다.

그건 지금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보고 싶었다.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녀는 오늘도 늦을까? 오기나 할까? 간밤에 있었던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는 다리에 다다랐다. 다리의 키 큰 탑이 그의 머리 위로 솟아있었다. 그리고 그 입구에 기다랗고 파란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서 있었다. 드레스의 라운드 칼라가 그녀의 목둘레를 완벽하게 감싸 주었고 검정 머리카락이 어깨너머로 늘어뜨려져 있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토니가 그녀에게로 다가가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제가 일찍 왔네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 제시간에 맞춰 올 줄 몰랐겠죠?”

토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런데 저보다 일찍 왔네요.”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대답함에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건너는데 드는 비용인 1센트씩을 냈다. 그런 다음, 조금 머뭇거리며 그들은 브룩클린 쪽을 향하여 인도로 걷기 시작했다.

이스트 강 밑을 따라 걸어 내려가기엔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너무 멀었다. 그러나 토니는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보거나 멀리 보면서 걸어간다면 그다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매우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다리 가운데로 걸어가서 그 자리에 멈추었다. 다리 양 쪽 끝에는 두 개의 웅대한 아치 모양과 그 사이에는 두꺼운 케이블 전선으로 이어져 있었고, 왼편에는 맨하탄의 하늘을 배경으로 한 지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높은 굴뚝이 달린 연락선이 강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산들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고 그들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들을 방해할 사람도 없고 둘만 있으니 여간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었다.

마차가 한대 지나갔다. 토니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마차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 침묵을 즐기며 길을 건너 계속 걸어갔다.

이제는 아까보다 더 발걸음을 재촉했다. 모퉁이에 있는 매점에서 샌드위치를 사먹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나자 토니가 말했다.

“마리아, 난-----”

그녀는 그의 입술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알고 있어요, 토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어요.”

그녀는 도대체 뭘 알고 있던 말인가?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아니면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건가? 그녀도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 그녀는 토니의 입술에서 손가락을 떼었다.

“일요일 오후에,” 그가 말을 꺼냈다. “그땐 좀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센트럴 파크까지 걸어가요.”

그 계획은 신중을 기해야 했다. 일요일 밤엔 극장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이라 늦게 집에 돌아가면 안 되었다. 그들은 프린스와 멀베리의 한 모퉁이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그들을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은 지나다니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살에게만 그 약속을 말해줄 것이다.

그 주의 나머지 요일은 토니에겐 그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프린스와 멀베리에 약속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다.

5분 늦게 마리아가 뛰어왔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여자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하니까 아빠가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했어요?” 토니가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달으면서 물었다.

마리아가 무슨 말인가 막 하려고 할 때였다.

“뭐 아무렴 어때요.” 토니는 그녀가 무례하게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당신이 여기에 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유가 됐기를 바라며 말을 덧붙였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고 싶었지만 그 대신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냐하면 그건 전에도 해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특유의 환한 미소를 입가에 띄며, 그들은 8월 말의 선선하고 상쾌한 날씨에 브

로드웨이 너머로 걸어갔다.

브로드웨이. 토니가 미국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접한 대로였다. 그와 살이 아일랜드인의 매기 클라인을 보러 지나다녔던 바로 그 길이기도 했다. 길모퉁이에서 나오는 사륜마차와 말 마차들을 지켜보며, 왔다 갔다 하는 쓰레기와 거름을 그녀가 맞을까 봐 길 가에서 마리아를 막아 서 있던 토니는 와벌리 플레이스까지 있는 주택가로 길을 안내했다.

“워싱턴 광장에 데려가고 싶어요. 조지 워싱턴 광장이자, 공원이죠.” 그가 말했다.

“그건 왜요?” 그녀가 물었다.

“보면 알게 되요.”

그는 최근에야 세워진 가리발디 동상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 곳엔 위대한 장군이 서 있었고, 한 쪽 무릎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양을 하고 있었고 한 손엔 칼이 들려 있었다.

“난 이걸 처음 봐요.” 토니가 말했다.

“이 동상이 있다고만 들었죠. 당신과 함께 보고 싶었어요.”

마리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가리발디 장군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나요?”

토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웅이잖아요.”

비록 규모도 협소하고 별로 흥미진진한 곳은 아니지만, 토니는 워싱턴 광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쩌면 조지 워싱턴과 가리발디, 즉 미국의 위인과 이탈리아의 위인의 결합이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른다. 토니는 결합이란 개념이 마음에 들었다. 자신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결합이었다.

그는 이 생각을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다. 그녀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동안 그녀는 5번 가(街)에 더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품위 있게 지어진 몇 채의 대 저택을 지나 23번 가(街)로 가니, 거기에는 5번가 호텔이 있었다. 그 호텔은

우아한 모습에 하얀색 대리석으로 빛이 났고, 현관에는 원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오, 세상에나 ” 마리아는 감탄했다.

그들은 한동안 거기 서서 그 호텔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로비를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는 생각했으나, 그러기엔 너무 두렵기도 했다.

“언젠가는 당신과 저런 곳에서 머무르고 싶어요.”

토니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들리는 것과 같은 의도로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마리아는 부끄러워했다. “로맨틱하게 들리네요.”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깔끔한 흰색 테이블보가 깔려있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식기에 감탄하며 델모니코 레스토랑 창문으로 안을 응시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택가로 걸어가며 상류층들이 사는 주택과 위엄 있는 교회들, 그리고 더 큰 대저택을 지나갔다. 대저택들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집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센트럴 파크에 도착했다. 그곳은 정말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토니가 테지아노에서는 그렇게 방대한 초지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곳은 사방이 모두 초록 잔디였고, 정성들여 잘 정돈되고 다듬어져 있었다. 언덕 위로 혹은 다리 밑으로 가파르지 않은 산책로가 나 있었다. 나무들과 아름다운 호수위엔 보트들이 떠다니고 줄무늬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들이 각양각색의 양산을 쓴 여인들을 위해 배 안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다른 남녀들도 산책로를 따라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팔짱을 끼고 걸었고, 다른 이들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산책하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 호숫가를 쳐다보던 토니는 마리아의 몸에 팔을 올렸다. 그들은 다른 커플과 같다고 생각하며 걷다가 토니가 문득 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항상 가족들과 보냈으면 하고 바랐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마리아가 말했다. “아빠는 스프링 스트리트를 아마 떠나 본 적도 없을걸요.”

“좀 더 있을까요?” 토니가 물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말과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순간 기분 좋은 오후에 잠시동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으나 곧 그들은 다시 기운을 찾고 팔짱을 끼고

걸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까지 걸어갈 시간이 없었으므로, 마차를 타고 가야만 했다.

토니는 2인 승차요금으로 10센트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호소했지만 마리아가 그를 달래고 그의 옆구리를 짚러 웃어넘겼다. 그 둘은 시내로 가는 내내 가까이 꼭 붙어 있었다.

그들은 화요일 일이 끝나고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마리아가 극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전까지 시간을 뺄 수 있었다.

토니에게는 하루하루가 영금영금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약속날짜가 되었다. 시청 공원에서 손을 잡고 그들은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요.” 마리아가 제안을 했다.

그들은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 서둘러 시내로 내려갔다. 그들은 배터리 공원의 난간에 기대어 항구의 여신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본 게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토니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마리아가 말했다.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마리아가 머리를 토니의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토니, 전 걱정 되요.”

“왜요?” 그가 이렇게 물었지만 그 이유를 그녀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아빠가 알게 되면 어찌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알게 되면 그때 그에게 말을 해야지요. 우리가 그를 이해시켜야 해요.”

그는 그녀의 몸을 앞으로 당겨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주택가로 출발했다. 그들은 만약 그녀가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주말에 코니 아일랜드에서 그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했다.

모트 가(街)에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기 위해서 현관 안으로 몸을 피했다. 이번엔 길고 사랑스러운 키스였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토니가 눈을 떴다. 현관 앞에서 입모양을 한마디로 ‘아’ 벌리고 서있는 사람은 바로 루이지 마짜페리였다! 도대체 그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루이지는 황급히 달아났다.

“오, 안돼.” 토니가 마리아를 꼭 잡으며 말했다.

“왜 그래요?”

토니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했다.

마리아는 많이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길 바라야죠.”

그러나 토니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다. 가증스러운데다가 알랑대기 좋아하는 루이지, 언제나 짓대 없는 루이지는 그 길로 아빠에게로 갔을 것이다. 토니의 일을 고자질하고 으스대겠지.

아빠는 지금쯤 집에 돌아와서 토니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태파악을 다 하고 있을 것이다.

마리아를 모트 가(街)와 프린스 가(街)의 모퉁이까지 바래다주고 토니는 그녀를 다시 꼭 껴안았다. 그녀는 그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을 알고 자신도 그를 꼭 안아주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목요일에 점심약속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재빨리 키스를 했고 그녀는 갔다. 가 버렸다.

토니는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절대 필할 수 없는 충동에 대비하며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를 돌았다.

마리아가 그녀의 아버지가 먼저 알 것만 걱정한 것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이제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토니가 전에 생각했듯이, 일단 아빠가 그녀가 얼마나 아픔담고 서로에게 완벽한 상대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토니는 생각에 잠기며 미소를 지었다. 토니는 어두워질 때까지 거닐었다. 그 다음, 가슴을 두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너무나 일상적인 혼잡한 길거리가 보이고 친숙한 아파트 현관도 보였다. 토니는 문을 열고 지난번에는 이게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계단처럼 보였었다는 걸 기억하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었다. 그가 신문팔이가 되기로 함에 따라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아빠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이번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결 될 것이다.

5층 계단 난간까지 올라오자 그는 아까까지의 생각이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아빠가 서 있었고 비니는 눈을 내리깔고 그 앞에 있었다. 아빠가 샷대질을 하며 말했다. “네가 스스로 번 돈으로 유리창 값을 물어줘야 한다, 빈센조.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깨고, 도대체 또 무슨 일을 저지를 테냐?”

“하지만 아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비니가 말했다. “지노가 1루에 서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둘 다 토니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렸다. 비니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아빠는 핑음을 냈다.

“너!” 그 소리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이 집 장남이란 놈이, 건방진 네 놈이, 네 아버지를 기만했어!”

침실에 있던 엄마가 달려 나오며 아빠의 목을 감싸 안았다.

“피에트로, 안돼요, 제발!”

그는 그녀를 마치 있지도 않은 사람 취급하며 내동댕이쳤다. “토니오, 내가 내가 골라 주지도 않은 여자애를 만나고 다닌다고! 이 집 돈을 그 애에게 쏟아 붓고 있는 거냐!”

토니는 그의 아버지를 말리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잘못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이곳은 미국이고 여긴 이탈리아하고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이 집을 나가거라!” 피에트로가 지붕이 떠나갈 듯이 소리쳤다.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나 커서 마치 토니가 그 소리에 문 밖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어느새 자신이 층계참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꿈꾸듯이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갔다.

그는 길을 건너 마리에타가게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그 자리는 살과 또는 제이콥 리스씨와 함께 종종 앉았던 곳이었다. 그는 이제 그 둘 중 누구와도 만날 자신이 없었다. 마리아도 만날 면목이 없었다. 만나서 뭐라고 한단 말인가?

그는 만일 그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식구들 중 아무라도 집 밖으로 나오면 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테이블에 비스듬한 각도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누구도 어디로든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배고프지도 않았다. 있어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마시지는 않은 채로 그냥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근래에 들어 그는 가족관계의 친밀성에 대해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마리아와 사랑에 빠져 버렸고 가족 모두를 잃었다. 사랑에 빠진 것이 어쩌서 죄가 된단 말인가?

이번에는 희망도 없었다. 그는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것이다. 그는 제이콥 리스씨와 함께 보았었던 남루한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남의 집 현관 앞 계단이나 경찰서 구치소에나 살게 되는 '거리의 부랑자' 가 될 것이다. 그는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미쳐갈 것이며 겨울엔 더더욱 추위에 떨어야 할 것이다. 그는 언젠가 죽은 자신의 말을 채찍질 하던 불쌍한 남자와 만 여명의 하위계층을 떠올렸다. 이제 그가 트리본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 곳밖에는 이제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늦은 시간이 되었다. 내일도 신문을 팔 작정이라면 잠을 좀 자 뒤야 했다. 그는 커피 값을 지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 그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뉴욕 트리본 사무소로 향했다.

익숙한 밤거리를 내려가며, 맨하탄 중심부로 진입하는데 이 시간에 그 곳은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했다. 여기는 시청 공원이 있는 곳이며 그 곳에서 그는 마리아의 손을 잡았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정의를 옹호하다 제이콥 리스가 그를 구해주었던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으며 주변을 살폈다.

“어이, 여기야!” 목소리가 들렸다.

“토니, 널 무척이나 보고 싶었다. 오늘은 널 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찌지!”

히키, 당연히 히키 목소리였다. 왜 그는 어둠속에서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심히 서 있었을까?

과연 이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피해왔던 노력의 결과였던 것인가, 결국은 이렇게 그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었던 것인가?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래그피커스 갱단들은 순식간에 그 앞에 나타나 바닥으로 그를 밀쳐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그는 나약하게 주먹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는 몸을 둥글게 말아보았지만 히키가 신발로 자신의 얼굴에 뭉개는 바람에 그런 노

력도 허사였다.

주먹이 빗발쳤다. 토니가 기절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건 히키의 히스테릭한 웃음소리였다.

“이제 됐다, 일간아!”

17

그는 그곳에 얼마동안이나 누워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의식은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점차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매우 옥신거렸다. 그는 눈을 떴다.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하늘색 눈동자에 형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내려와 있었다. 토니 옆에 쭈그려 앉은 그는 손으로 내려온 머리를 뒤로 걷어 올리며 물었다.

“많이 다쳤니?”

토니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일어설 수 있겠니?”

토니는 애썼다. 그의 다리는 비틀거리고 쭈서왔지만 넘어가지는 않았다.

“좋아.” 그 남자가 말했다. “추운데 있어서 말이야.”

토니는 웃으려고 했다.

“래그피커스 조직원들이 할 법한 짓인데.” 그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저한테 돈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가지고 갔나 봐요.”

“난 갱들을 잘 알아.” 그가 말했다. “완전히 말썽꾼들이지. 내가 어디로 데려다 주면 되겠니?”

토니는 고개를 숙였다. “전 갈 데가 없어요.”

“알았다. 자, 내가 어디든 데려가마. 씻고 치료도 받아서 회복해야지.”

“당신은 누구죠? 당신은 어째서 비천한 신문팔이를 도와주나요?”

“난 닉 데일이야. 아동보호협회에서 일하고 있지.”

토니는 털이 곤두섰다. “저를 서부로 보낼 작정은 아니시죠!”

닉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협회에서는 고아들을 농장으로 보내

는 일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전 고아가 아니예요!” 토니는 짹짹 말했다.

“난 네가 고아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봐. 내가 둔 스트리트에 있는 합숙시설로 데려다 줄게. 너는 신문팔이라고 했지. 거기가면 내 동료도 많이 있을거야.”

질문은 더 필요 없었다. 그의 말을 바로 알아들었다. 토니는 그 곳이라면 마음이 놓였다. 그는 둔 스트리트의 하숙집에 대해 들어보았다. 알피와 버즈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다.

“알겠어요. 그 곳으로 가겠어요.” 토니가 말했다.

그 곳은 몇 블록만 지나면 둔과 챔버스 사이의 모퉁이에 있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닉이 토니의 팔을 부축하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마리아가 자신의 팔짱을 껴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그 생각을 더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숙집에 도착하자, 그는 문 앞에 걸린 메모를 보았다.

‘욕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여기에 머무를 수 없음.’ 토니는 알피와 버즈가 이곳에는 규칙이 많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는 그 규칙들을 전부 신경 쓰기에는 너무 피곤한 상태였다.

닉이 서류에 작성을 했고, 토니는 받아들여졌다. 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일 다시 들릴 테니까 편안하게 있으렴.”

“고맙습니다.” 토니는 막상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욕실로 안내되었다. 길고 좁은 공간의 한 쪽 벽면에 나무선반과 물통처럼 생긴 세면대가 있었다. 그는 손발을 씻고 난 다음, 물로 뺨에 난 상처를 씻어내고 부은 눈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그는 기숙사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방 안은 넓었고 벽은 하얀색으로 페인트칠 되어 있었다. 층 침대가 줄지어 있었는데 뽀뽀하고 하얀 시트와 베개커버가 놓여 있었다. 화이트 스타 선박에서 보았던 불결한 3층 침대가 아련하게 생각났다. 그는 이제까지 이렇게 깨끗한 침대시트와 베갯잇을 본 적이 없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소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토니는 선택의 폭이 넓은 순간에 낮은 침대칸을 골라잡았다. 그는 옷을 벗고 시트 안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잠이 들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저녁때였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아래층에 있는 식당 안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배가 고팠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그는 이제 어떻게 합숙시설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혼자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는 줄을 서서 돼지고기와 콩을 담은 접시를 받고 식탁에 앉았다. 다른 소년들이 그가 새로 온 처음 보는 아이였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저녁을 먹었고 눈은 그의 접시에만 고정시켰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다. “어이, 내 친구 토니 아니야! 네가 둔 스트리트에는 웬 일이야?”

토니는 고개를 들었다. 알피였다. 버즈는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악수를 했고 토니는 그들의 질문을 피했다.

“오랜만이다.” 알피가 말했다.

“수개월만이지.” 버즈가 말했다.

“그래.” 토니가 말했다. 그는 알피와 버즈를 마지막으로 언제 봤었는지 기억을 되짚어보려고 애썼다. “재수 없는 일이 벌어졌었지 ”

그가 먼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토니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을 먼저 함으로써 이번엔 알피가 그에게 질문 할 차례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는데 다행히도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기 바빴다.

“맞아. 우린 당분간 신문팔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식당에서 급사조수 노릇을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그 일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나봐. 일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그냥 다시 길거리로 나왔지 뭐.”

토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에 대꾸하진 않았다. 그는 알피와 버즈가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씩씩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 태도는 모든 일들을 덜 어둡게 보이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이 순간을 더욱 실감나지 않게 만들었다.

토니의 얼굴을 이제야 보았다는 듯이 알피가 말했다. “이봐, 토니, 누구한테 심하게 얻어맞았는데 그래.”

토니는 눈을 깜빡 거렸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야 했는데 그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세하게, 마치 물 흐르듯 얘기가 술술 나왔다.

마리아. 그의 아버지. 래그피커스. 어쩐지 그는 제이콥 리스와 겪었던 아슬했던 경험들은 언급하기 꺼려졌다. 그 얘기는 웬지 버즈나 알피가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였다.

토니가 이야기를 마치자 알피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여기에 처박힌 신세가 되었잖아.”

토니는 얼굴을 찌푸렸다. 처음부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들리라고 한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온 걸 환영해.” 버즈가 말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밑바닥 생활로 곤두박질 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미 거기에 있었던 그의 친구들을 경멸했던 것이다.

“이제 방으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야.” 알피가 말했다.

“그래, 나중에 봐.” 버즈가 말했다.

토니는 그들을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궁금해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갔고, 그는 혼자 남겨졌다. 일단 그들이 앞에서 사라지자 그는 그들이 다시 나타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좋았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아침에 되자, 닉 데일이 토니의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갈색 머리카락은 여전히 그의 눈 위로 내려와 있었다.

“안녕. 오늘은 좀 어때?”

그의 질문은 간단명료했으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서 토니는 기운을 차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좀 나아졌어요.”

“상처는 좀 어때?”

고통은 덜 했지만 뺨의 근육은 당겼다. 그는 눈 위에 부은 곳을 만졌다.

“거기도 좀 괜찮아졌어요.”

“잘 됐구나. 이삼일 정도 더 쉬면 나올 거야. 그다음엔 차차 상태를 보자꾸나.”

이제까지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야 했던 토니로서는(그래서 간혹 일이 잘못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결정을 해준다는 것이 고맙게 여겨졌다. 닉은 그에게 줄 빵과 진한 커피 한 잔을 아침으로 들고 왔다. 그는 둔 스트리트 합숙시설이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했다.

토니의 침대는 하룻밤에 6센트였고, 식사는 끼니마다 6센트를 따로 내야 한다. 합숙소에서는 그에게 신문팔이를 다시 할 수 있게 되거나 그가 다른 일을 찾을 때까지 돈을 대 줄 것이다. 그 때까지 묵는 비용에 대한 계좌가 마련될 것이고, 토니가

돈을 충분히 모으면 그 때 되겠으면 되는 것이다. 그가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열어볼 수 있는 자물쇠가 잠긴 박스 안에다 돈을 넣어 보관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 번 돈을 가져다 줄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그 박스 안에다 돈을 모아두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닉을 바라보았다.

“어디에 계실 건가요?”

“난 네 곁에 있을 거야.” 닉이 대답했다.

그가 말한 대로였다. 며칠에 걸쳐, 그는 아침마다 토니의 침대 끝에 앉아있었고 같이 아침을 먹었다. 가끔씩 그는 저녁때 들르기도 했다. 토니는 닉의 조상 중 한 명인 토마스 데일이라는 선생님이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첫 영국 식민지이자 나중에 미국 땅이 되었던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의 초기 통치자였다. 토마스는 범죄자들을 투옥시키기 위한 영창을 지었지만 담배 무역을 장려했고 인디안 족과의 관계도 우호적이었다고 했다.

“어쩌면 나도 토마스 할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지.” 닉은 커피 잔에 스푼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말했다.

“협력 한다는 것, 필요하다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야.”

토니는 그 말을 모두 이해했다. 아무도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얘기는 해주지 않았다. 제이콥 리스조차도 말이다. 그는 자신이 전부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그는 닉에게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음, 아동 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실업학교가 여러 군데 있단다.” 닉은 직접적으로 얘기했다.

토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제가 무역을 정말로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간 대부분을 토니는 기운을 되찾아 회복하려고 애쓰며 혼자 지냈다. 그는 다른 아이들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그런 토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피해 다녔다.

둘째 날 오후에, 그는 꼭대기 층에 체육관이 있는 걸 발견했다. 무슨 이유에선지 공중 그네가 설치되어 있었다. 낮 동안에는 그 곳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내킬 때까지 방해받지 않고 그 곳에서 마음대로 그네를 탈 수 있었다. 그는 마리아를

생각했고 그가 얼마나 그녀와의 점심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그는 살을 생각하고는 그와 매일 같이 일했던 게 그리웠다. 그는 마리아를 마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살은 만나 봐야 할 것이다.

토요일 즈음이 되자 그는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나아졌다.

“좋아, 토니.” 닉이 말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들은 악수를 했다. 토니는 웃었다. 최근 들어 아무도 그에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 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자신감을 얻게 해 주었다.

트리본 사무실에서 살을 만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토니는 곧바로 채텀 광장으로 직행했다. 그가 예상한 대로, 살은 벌써 신문을 팔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자신 있는 큰 목소리로 신문을 팔고 있었다.

“크로닌 살인사건 용의자가 범정에 섭니다! 읽어 보세요!”

토니가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본 살은 마치 유령을 보는 듯이 쳐다보았다.

“토니, 그동안 어디 갔었어? 뺨엔 무슨 상처야?”

“말해줄게. 그런데 믿지 않을 거야.” 토니가 말했다.

그는 닉과 합숙소, 그리고 공중그네 얘기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에게 전부 말했다.

“나도 너희 집안일을 듣고 알고 있었어.” 살이 토니의 말끝에 얘기했다.

“온 동네가 다 알아. 그렇지만 난 네가 걱정이 되었어.”

토니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지만, 굳이 묻지 않고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시 일 할 수 있겠어?” 살이 물었다.

토니는 감격했다. 그를 믿어주고 의리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응. 일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그럼 가서 네 신문 분량을 가지고 와.”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그 날의 일을 마친 바로 그 순간에만, 토니는 멀베리가 아닌 합숙시설로 돌아갔다. 매일 저녁 그가 살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면 가슴이 아팠다.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리아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토니가 살을 만나고 난 후 처음 돌아 온 일요일에 닉은 조언을 해 주려고 아침시간에 왔다. 토니가 다시 가슴 아픈 심정을 드러내자, 닉이 말했다. “넌 잘 해내고 있

어.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는 거야. 만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그 날이 토니가 합숙소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 닉이 가 버리자, 토니는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그가 매일아침 헝클어진 머리에 미소를 짓는 모습을 좋아했었을 뿐이라고 중얼거렸다. 당연히 닉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토니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 뿐 이었다.

다음 달 동안,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그는 사과 신문을 팔고 묵고 있는 집엔 빛을 다 갚았다. 그리고 자물쇠가 잠긴 상자 안에 돈을 모았다. 그는 종종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는 환영받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마리아도 보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너무 당황스럽고 애매모호했다. 그는 그가 잘 다니던 길로 사과도 같이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는 그럴 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가 제이콥 리스와의 연락을 끊고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서였다. 처음엔, 마리아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가 노숙자가 되었다는 굴욕이 그의 정신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보웨리에 같이 갔었던 술집을 기억했다. 그는 예전의 추억을 생각하며 다시 가보기로 했다.

술집엔 대부분 아일랜드 사람들이 있었고 극장식과 음란한 쇼 사이의 수준인 곳이었지만 토니는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다. 그는 바에 서서 헬 게이트를 시켰다.

그는 한 모금 쪽 들이켰다. 맛이 좋아서 그는 기분도 좋아졌다. 그는 바를 둘러보다가 중산모를 쓴 한 흑인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토니는 그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품위 있지는 않았다. 그의 바지에는 얼룩이 젖어 있었고 그의 검정색 양복 자켓의 깃은 찢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상냥해 보였다. 그런 확신이 생기자, 토니는 대화를 시작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제스 파커였다. 그의 부모님은 이전에 노예였었다. 그들은 남북전쟁이 끝나자 북쪽으로 왔고 5번가에서 가정부 일을 했다. 제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의 부모님이 평생 동안 했던 마부 일을 했다. 그는 톰슨 가(街)에서 계속 살아 왔었지만 지금은 이탈리아 인들에게 자리를 뺏겼다고 한다.

“우리가 이웃이라는 게 놀랍네요.” 토니가 말했다.

제스는 웃었다.

“그래요, 하지만 흑인들은 이탈리아 타운에서 실제론 환영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덩치가 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남자가 안으로 질주하며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그들은 서로 맞붙었다. 또 한명이 뛰어 들어왔다.

“조심해요, 손에 칼이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칼이 보였다. 빛바랜 조명아래 칼날이 번득였다. 제스가 앞으로 돌진해서 칼을 휘두르는 남자를 붙잡았다. 그는 힘으로 칼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며 그 남자를 꼭 붙잡았다. 그러나 그 남자는 몸을 돌려 제스를 밀어냈다. 그리고 손을 뺀 제스의 가슴을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

제스는 바닥에 꿈쩍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토니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자자, 여러분!” 경찰관이 소리쳤다.

“누구 짓입니까?”

한 순간 조용해졌다. 그러나 곧 아일랜드 바텐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다.

“저 아이예요, 이탈리아 남자애 말이에요! 저기 있는 저 남자애예요!”

“맞아요, 저 애예요!” 구경하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다.

“제스, 미안해요.” 토니는 이렇게 속삭이고 입구 쪽으로 도망갔다.

“이봐, 거기 서!” 그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가는데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보웨리의 어둠속을 달렸다. 그는 계속해서 달렸다. 그가 지금 상황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찾아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거의 다 오긴 했지만 숨이 차왔다. 그래머시 파크에 있는 닉 데일의 집이 마치 천국처럼 흐릿하게 보였고, 문명화된 오아시스인 공원이 보이자 토니는 계단으로 뛰어갔다. 그는 여러 구획을 누비듯이 뛰어와서 경찰은 완전히 따돌렸다. 그러나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제발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토니는 닉의 팔에 와락 안겼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면 몇 분이 흘렀나? 토니는 알 수가 없었다. 중요한 건 그가 안전하게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이었고, 여긴 그를 믿어 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초록색 벨벳 천으로 싸인 가구들과 벽에 걸린 그림들, 광택이 나는 목재 테이블에 감탄하며 너의 거실에 앉아있었다. 부드러운 백열등 빛이 거실의 조용한 분위기를 한 층 더해주었다.

토니는 한 번도 이런 곳에 와 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곧 마음이 편안해졌다. 너은 그에게 물 한잔을 주며 진정 시켰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으면서 질문을 했다.

“널 본 사람이 있었니? 네 편이 되어줄 사람 말이야.”

토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 말고 너란 사람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니?”

“제이콥 리스씨요.”

“네가 제이콥 리스씨를 안다고?”

“네. 알았었어요.”

그가 리스씨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자, 너이 말했다. “왜 전에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어?”

토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제가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요.”

너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니?”

토니는 주머니 속을 뒤졌다. 아직도 구깃구깃해진 채로 주머니 속에 있었다.

“리치몬드 힐에 살고 있구나.”

전화가 걸렸다. 너이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들린 다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 너이 거실로 뛰어 들어왔다.

“오늘밤에 온다는구나. 멀베리 가(街)에 있는 경찰서에서 한 시간 후에 보기로 했어. 그 사람도 그동안 네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더구나.”

“저도 그래요.” 토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누더기 신세가 된 그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까 봐 조바심이 났다.

그러나 닉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소질이 있었고, 30여분 후에 그들은 집을 나섰다. 토니는 좀 더 자신감이 생겼다.

그들은 빛나는 검은 털을 가진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닉의 마차를 타고 시내로 내려갔다. 토니는 전에 마차를 타 본 경험이 없었다. 그들이 별도 보이지 않는 뉴욕 밤거리를 달려가는 동안, 그는 자신을 곧 체포 될 범죄자라기 보단 중요한 고위급 간부라고 상상해 보았다. 그들이 멀베리와 휴스턴 사이에 도착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다. 뺨뺨한 셔츠에 맵시 있는 정장을 입은 익숙한 차림의 제이콥 리스씨가 건물 앞에 있는 게 보였다.

“토니!” 리스가 불렀다.

토니는 거의 울음이 날 뻔 했다. 그는 닉에게 리스를 소개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리스가 말했다. “다음부터 나를 의심하면 안 돼, 토니.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해 보자.”

셋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건 담당자 앞으로 간 건 제이콥 리스였다.

“안녕하시오, 클랜시 경관.” 그는 근무 중인 경찰관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 리스씨. 그 경관이 인사를 건넸다.

“여기 죄를 잘못 뒤집어쓰게 됐다는 젊은 친구와 같이 왔어요. 도노반 부서장 계신가? 그 문제에 대해 상의를 드릴게 있어서 왔는데.”

리스는 닉과 토니에게 손을 흔들고는 경찰서 안쪽으로 사라졌다. 닉과 토니는 복도로 나와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슬슬 걱정이 되었다.

리스는 15분이 채 되지 않아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돌아왔다.

“아일랜드인 범인을 잡았대. 완전히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자백을 했다는군. 그 흑인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곧 괜찮아질 거야. 토니, 네 혐의는 벗겨졌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집이라고, 어디에 있는 집으로 가건 말인가? 토니는 생각했지만, 벼랑 끝에서 구출된 기분이었다. 그는 리스와 악수를 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토니. 야심한 시각에 그런 곳에 있다 보면 그런 일에 말려들 수도 있지.”

닉은 환호성을 질렀다.

“다들 우리 집에 가서 축하 하는 게 어때? 토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묵는 거

야.”

리스는 길을 건너 사무실에 가서 일정을 확인해 보아야 했지만 확인 결과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너의 마차에 자리를 좁혀 앉았다. 말발굽이 자갈 위를 터벅터벅 걷는 소리와 큰 바퀴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동안, 토니는 왕좌에 다시 돌아온 왕의 기분을 느꼈다.

잠시 후, 그들은 너의 편안한 거실에 앉아 쉬었다. 제이콥 리스는 머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벨벳 안락의자에 자신의 몸을 깊숙이 눕혔고 너는 토니가 리스씨를 알고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다는 말을 했다. 황갈색의 긴 머리카락에 파란 눈을 갖고 있는 너의 부인 에리카도 자리를 함께 했다. 그들의 딸인 클라리사도 있었는데 그녀는 엄마와 똑같이 생겼지만 눈이 크고 초록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부가 커피와 케익을 조금 내왔다.

리스와 너는 빈곤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리스가 아동보호협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감탄하는 등의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너에게 시가를 한 대 건네고 자기도 시가를 피웠지만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자 토니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결국,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난 불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고, 간접적으로는 토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는 클라리사를 쳐다보았다.

“아직도 학교에 다녀요?” 그가 물었다.

클라리사는 14살이고 시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그녀는 매혹적인 그 래머시 파크를 사랑했다.

갑자기 리스가 말했다. “토니, 난 네가 그렇게 학교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말을 꺼낸 적이 없었잖아.”

너는 리스에게 토니가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말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토니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토니가 말했다.

“그럼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뭐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질문에 토니는 망설였다. 적당한 게 있을까? 그가 공부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보았었나?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사진기사가 되고 싶어요.”

리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2번가에 있는 라살학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파트타임이든 풀 타임이든, 네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해 볼 수

도 있어. 내가 한번 알아봐주지.”

토니가 대답도 하기 전에 녀이 끼어들었다.

“토니의 아버지도 생각을 해 봐야지.”

“오, 맞아.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아버지들 말이지!” 리스가 외쳤다. “이제 토니의 집안 식구들을 설득시킬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는걸.”

그들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 동안 토니는 제대로 된 시트가 깔린 침실에 들어갔다. 이런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일하러 나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으나 모두 잠에서 깨지 않은 것 같았다. 되도록 조용하게 손잡이를 돌리며 막 현관을 나서려고 할 때, 클라리사가 나타났다.

“아침 드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토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마침 배도 고프던 차였다. “그럼 조금 먹고 갈게요.”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식당 테이블에 그를 앉히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달걀, 베이컨, 토스트, 그리고 커피가 나왔다. 클라리사가 토니와 함께 자리에 앉았고, 그들은 음식을 먹는 중간 중간에 미소를 주고받으며, 조용하게 식사를 했다. 토니가 나가려고 일어설 때 그들의 눈이 딱 마주쳤다.

“아침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토니가 불쑥 말을 뱉었다. 그런 다음, 그는 곧장 현관으로 향해 가서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해 준 것도, 살을 만나러 트니본 사무실에 도착한 것도 모두 기적이었다. 가는 동안 쪽 초록색 눈동자, 맛있었던 아침식사,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생각으로 그의 머릿속은 꽉 찼다.

그는 살에게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내일쯤이면 살도 그의 미래 계획을 알게 될 것이지만, 오늘은 평소대로 행동했다.

일이 끝나고, 토니는 둔 스트리트의 합숙시설에서 녀을 만났다. 둘이 같이 멀베리가(街)를 향해 걸어갔고, 끔찍한 계단을 모두 오른 다음, 아파트 5호실 문을 두드렸다.

엄마가 나왔다. “토니오!” 그녀는 이렇게 외치고 팔을 뻗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안젤리나는 부엌 일을 하고 있었다.

“오빠, 진짜 토니 오빠가 왔어!” 그녀가 소리쳤다.

조이도 집에 있었다. 그는 뛰어와서 토니의 허리에 팔을 감싸 안았다. 두 명이 그의 몸에 매달린 채, 토니는 테이블 쪽으로 반은 걷고, 반은 경충경충 뛰어갔다. 그들은 부등켜안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는 테이블에 앉았다. 토니는 식구들에게 닉을 소개했다. 닉은 자신이 아동보호협회에서 일을 하며 토니가 그 동안 둔 스트리트에 있는 합숙시설에서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토니가 가족을 매우 그리워했어요, 시그노 페트로시노 부인.” 그가 덧붙였다.

“말씀 안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장남의 얼굴을 보고 손을 다독거리며 말했다. “전 애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행이었다. 엄마는 도와줄 것이다.

비니가 집에 돌아와서 토니가 있는 걸 보고 놀라서 그를 꼭 안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가 물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토니가 대답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토니는 점점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30분이 지나고 계단을 올라오는 묵직한 부츠소리가 들렸다.

문이 활짝 열렸다. 아빠는 식구들이 모여 있는 광경을 훑어보았다. “여기서 뭐하는 거냐?” 그가 말했다.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을까? 토니는 생각했다.

닉이 들어왔다. 그는 아빠를 소파로 안내하고 토니를 그 옆에 앉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의자 하나를 끌어와서 앉았다.

“시그노 페트로시노씨, 당신의 아들은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닉이 말을 시작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동안 매일 매일이 그에게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아빠는 눈을 껌뻑 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경청하고 있었다. 그는 닉 같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대변 해 주려고 왔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닉은 합숙시설과 사진기사가 되고 싶은 토니의 꿈, 그리고 제이콥 리스씨와 라살 학원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말을 하는 동안에 닉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애썼고, 닉의 설명 중 좀 더 복잡하고 세세한 부분은 토니가 이탈리아어로 통역해 주었다. 그리고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인 토니가 아버지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으며 그를 기만하는 일은 다시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과연 그것으로 될까? 그는 두 번이나 강조를 했다. 토니는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 줄 말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말을 꺼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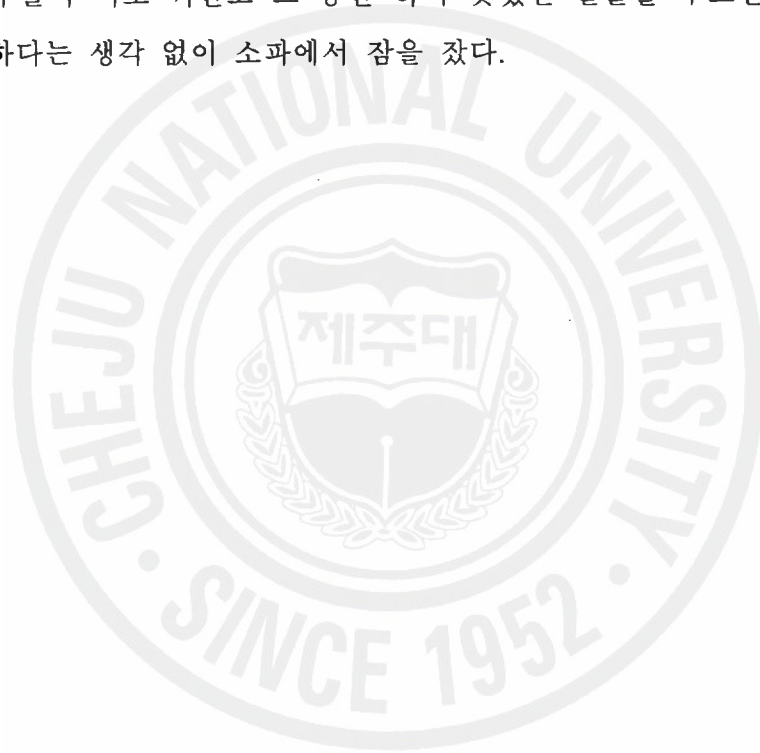
아빠는 냉정하게 토니의 얼굴을 살폈다.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토니가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침묵을 깨며 아빠가 말했다.

“그래, 토니. 집으로 돌아오려무나.”

토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빠를 껴안았다. 그는 닉과 엄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모두 안았다. 그는 닉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설득했다.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식구들이 서로 껴안고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주고받은 후에 토니는 전혀 불편하다는 생각 없이 소파에서 잠을 잤다.



이야기를 마치며

일주일 후, 토니는 공연이 끝날 때 즈음에 스프링 스트리트에 있는 마리오네트 극장으로 가 보았다. 그는 사람들 틈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마리아가 무대 위에서 인형극 연기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마리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는 다시 등을 돌렸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다. 더 이상의 설명은 구차 할 뿐이다. 그 후 그녀를 다시 볼 수는 없었다. 아마도, 미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익숙해져가면서, 또는 토니가 나이가 더 들고 그의 미래가 더욱 나아져감에 따라서 상황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는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작가의 말

제이콥 리스는 그가 원했던 일을 성취해 나갔다. 1890년 11월에 뉴욕 시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당시 상황을 설명해 놓은 그의 저서 '소외계층은 어떻게 살고 있나(How the Other Half Lives)'가 넓은 독자층을 얻으면서 책의 내용과 삽입된 사진들을 통해 소외계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개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94년에는 Gilder Tenement House 위원회에서 멀베리 밴드 지구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897년, 마침내 그 지구를 공원화시켰다. 1895년, 리스는 그의 친구이자, 당시 뉴욕 시의 경찰총장이었던 테오도어 루즈벨트를 설득하여 경찰서 내의 합숙소를 철폐시켰다. 수년간에 걸쳐, 그는 자신의 저서들과 기사를 통해,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돌며 강의를 하면서 빈민층 주택문제와 아동 노동법, 그리고 소규모 공원과 학교 운동장의 개선책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참고문헌

1. 국내서

- 김재현. 번역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신 문화사, 1995.
김효중. 번역학. 서울: 민음사, 1998
유영난.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1991.
지정숙. 번역의 기초이론. 서울: 도서출판 한국번역연구원, 1997.

2. 국외서

- Baker, Mona. In Other Words. New York : Routledge, 1992.
Hickey, Leo, ed.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8.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Robinson, Douglas. Becoming a Translator: an accelerated cour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